



전통으로 현대를 여는 예인들
Modern Tradition and Masters of Craftsmanship

정부간행물등록발간번호 11-1550000-000335-10



전시 기간 | 2006년 10월 20일~10월 31일
전시 장소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주최 | 문화재청
주관 | 한국문화재보호재단
후원 | 제주특별자치도

2006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작품전
문화재청

Modern Tradition
and Masters of Craftsmanship

전통으로 현대를 여는 예인들

2006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작품전

“미래의 전통을 올바르게 창도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전통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관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 마디로 요약하면 계승할 것은 형식 너머의 어떤 가치이고, 창조할 것은 새로운 시대의 양식인 것이다. 쉬운 예로, 세계 도자 사상 유래 없이 뻗어난 성과를 이룩한 고려 시대의 청자조차도 조선 왕조의 창엽과 더불어 그 양식이 가차 없이 폐기되고 분청사기, 백자로 이행하지 않았던가. ... 그 이유는 바로 새로운 시대가 요청하는 미의식과 그 지향 목표가 바뀌었다는 데 있다. 역사와 시대가 내리는 심판은 이처럼 무서우리만치 냉엄하다. 이 경우에도 청자의 양식은 청산하였으되 분청사기와 백자의 제작에 청자로부터 승계한 첨단 기술적 노하우가 녹아들어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바람직한 전통의 계승이자 진보 양식의 한 전범인 것이다. 전통의 직역으로서 계승된 뻗어난 솜씨와, 의역으로서의 창조적 감성이 만나 적절한 자기 몫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야말로 양 진영의 문화적 좌표를 확고히 하는 일일 뿐더러, 창조적 전통 수립의 당면 과제를 위한 적극적 대안이 라고 확신한다.” (최공호, 서문 가운데)



cover design hecyong roh

Modern Tradition
and Masters of Craftsmanship

전통으로 현대를 여는 예인들



Modern Tradition
and Masters of Craftsmanship

전통으로 현대를 여는 예인들

전시 기간 | 2006년 10월 20일~10월 31일

전시 장소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주최 | 문화재청

주관 | 한국문화재보호재단

후원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헌장

문화 유산은 우리 겨레의 삶의 예지와 숨결이 깃들어 있는 소중한 보배이자 인류 문화의 자산이다. 유형의 문화재와 함께 무형의 문화재는 모두 민족 문화의 정수이며 그 기반이다. 더욱이 우리의 문화 유산은 오랜 역사 속에서 많은 재난을 견디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므로 문화 유산을 알고 찾고 가꾸는 일은 곧 나라 사랑의 근본이 되며 겨레 사랑의 바탕이 된다. 따라서 온 국민은 유적과 그 주위 환경이 파괴·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문화 유산은 한 번 손상되면 다시는 원상태로 돌이킬 수 없으므로 선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그대로 우리도 후손에게 온전하게 물려 줄 것을 다짐하면서 문화 유산 헌장을 제정한다.

- 문화 유산은 원래의 모습대로 보존되어야 한다.
- 문화 유산은 주위 환경과 함께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 문화 유산은 그 가치를 재화로 따질 수 없는 것이므로 결코 파괴·도굴되거나 불법으로 거래되어서는 안 된다.
- 문화 유산 보존의 중요성은 가정·학교·사회 교육을 통해 널리 일깨워져야 한다.
- 모든 국민은 자랑스러운 문화 유산을 바탕으로 찬란한 민족 문화를 계승·발전시켜야 한다.

1997년 12월 8일

Cultural Heritage Charter

A nation's cultural heritage embodies its intellectual and spiritual contributions to the civilization of mankind.

Cultural properties, whether tangible or intangible, represent both the essence and the basis of national culture.

Our Korean cultural properties are even more dear to us because they have survived various unfortunate chapters of our long history. Our ongoing efforts to understand, explore, and nurture this cultural heritage deepen our love of our country and of our fellow countrymen. All of us must work together to protect our histories and their surroundings from being damaged or destroyed, since once damaged cultural properties can never get back their original condition.

We thus proclaim this Cultural Heritage Charter, committing ourselves to the supreme task of handing on to future generations our spiritual and physical assets as they were handed down to us by our ancestors.

- Cultural properties must be preserved in their original condition.
- Cultural properties, as well as their surroundings, must be protected from indiscriminate development.
- Cultural properties must never be destroyed, stolen, or illegally traded under any circumstances, because they are beyond material value.
- The value of our cultural heritage must be taught and widely propagated through education at home, in school, and in society.
- All of us must contribute to preserving, developing, and transmitting our glorious national culture.

8 December 1997

인사말 : 문화재청장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더불어 2006 문화의 달 행사의 특별 초대전으로 《전통으로 현대를 열어 가는 예인들 : 2006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작품전》을 개최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전통 공예는 자연에서 재료를 구하고 하나하나 손으로 다듬고 엮으면서 옛사람의 지혜와 장인의 매운 손맛이 어우러져 완성됩니다. 이번 전시에는 우리 시대 최고의 장인들이 빚어낸 130여 종 320여 점의 아름다운 공예 작품들이 전시됩니다.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국내외 관광객과 많은 국민이 우리의 격조 높은 전통 문화를 감상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전통 공예가 그 본질인 '아름다움'과 '쓰임'을 되찾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좀 더 윤기 있고 품격 있는 생활을 가꾸어가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주도는 갯일로 대표되는 망건장, 탕건장 등 조선 선비 문화를 상징하는 '관모(冠帽) 공예' 분야를 전승해 왔습니다. 제주칠머리영등굿, 제주 민요를 비롯한 해녀노래, 허벅장 등 독특하고 다양한 무형 문화 유산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라산 천연 보호 구역이며 성산일출봉,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등의 자연 문화재는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록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화의 땅에서 문화의 바람을 만나다'라는 2006 문화의 달 주제는 이 같은 제주도의 자연적 문화적 특질을 잘 이야기해 줍니다. 풍부한 무형 문화 유산과 빼어난 자연 경관이 어우러진 신화의 섬 제주도에서 우리 전통 공예의 바람이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귀한 작품을 출품해 주신 보유자 및 전수교 육조교, 이수자 여러분과 전시가 개최되기까지 물심양면으로 후원을 해주신 제주특별자치도 지사님을 비롯한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6년 10월 20일
문화재청장 유 홍 준

Address by the Administrator of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I would like to begin by expressing my most heartfelt congratulations on the opening of *'The Holders of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2006,'* held this year in Jeju. It is right now an exciting time in the history of this southernmost island of Korea. Jeju has recently earned the status of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is year'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onference is being hosted here in the context of its 'cultural month' events.

Korea's traditional crafts are handicrafts based on natural materials. These works are the crystallization of the skills and artistry of their authors as well as the collective wisdom and sensibilities of their times. This year's exhibition will be featuring some 320 works, of 130 varieties, by some of today's greatest craft artists. Truly a rare event, and a wonderful opportunity for the people of Jeju Province as well as tourists visiting the island to experience first hand Korea's traditional crafts at their best. Craft arts are both aesthetically pleasing and functionally fulfilling objects. I hope that Korea's traditional crafts will once again find their place at the heart of everyday life as intimate artifacts composing our daily environment.

Jeju is richly blessed with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it is historically known for its horsehair hat and headgear industry, *Heobeok*, a type of water jug unique to the island, and folk songs related to its lady divers like *Jeju Chilmeori Yeongdunggut*. Initiatives are also underway to register Jeju's four scenic sites of this splendid island, including the Hallasan Natural Reserve, Seongsan Ilchulbong, Geomunoreum and the Yongam(lava) Cave System, on the UNESCO's World Natural Heritage List, under a collective entry titled 'The Volcanic Island of Jeju and Yongam Caves.'

This year, the theme of Jeju's cultural month is *'Cultural Winds Sweep the Island of Mythology.'* It is my earnest hope that Korea's traditional craft arts, represented by the exhibits of this year's Holders of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can ride this new wave of interest in culture sparked on this island, to become better understood and appreciated, here at home and by a worldwide audience. On this note, I would like to thank all the artists gracing the exhibition with their works, our host, the Governor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organizers for making this event possible.

20 October 2006
You Hong-june
Administrator of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인사말 :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이사장

결실의 계절을 맞아 조상들의 숭고한 업과 장인 정신을 이어온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작품전》을 아름다운 섬 제주도에서 개최합니다.

전통 문화는 그 안에 우리 민족의 혼과 맥이 살아 숨 쉬는, 현존하는 역사이자 민족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울입니다. 그 중에서도 조상들의 삶의 예지와 섬세한 손맵시가 스민 공예 기술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삶의 기반이자 오랜 세월을 이어 온 생활의 멋과 지혜가 뉘 소중한 문화 유산입니다.

이 전시는 우리 고유의 공예 기술을 보존·계승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지정한 중요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와 전승자들이 한 해 동안 심혈을 기울여 제작한 작품을 한자리에 모아 공개하는 자리입니다. 소중한 문화 유산이 우리 시대에 단절되지 않고 발전해 나가도록 하기 위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전시는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발전하여 명실상부한 이 시대 최고 장인들의 잔치자리로 자리매김하고 전통 공예 문화 발전에 구심점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는 예인들의 전통 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고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하면서 공예인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이번 전시회를 개최하는 제주도는 예부터 선비 문화의 상징인 것의 주요 생산지였고 오늘날에도 전통 문화의 전승 활동이 활발한 곳으로 알려져 있어 더욱 뜻 깊은 전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전시가 우리 선조들의 지혜와 전통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면서 잊혀 가는 전통 공예의 이해를 넓혀나가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전통의 맥을 잇기 위해 우수한 작품을 출품, 전시해 주신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를 비롯한 전승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경의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이번 전시회를 위해 애써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 10월 20일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이사장 이 동 식

Address by the President of the Foundation for the Preservation of Cultural Properties

My hearty congratulations on the opening of ‘*The Holders of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2006*,’ in the scenic island of Jeju-do.

This annually-held exhibition showcases new creations by Korea’s master craft artists, designated as holders of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and trainees, to deepen the public understanding of these invaluable heritages bequeathed to us from our ancestors and to guarantee the continuity of our traditions.

The history of crafts is nearly as long as the history of Korea itself. They evolved along with different lifestyles and aesthetics that succeeded each other. In modern times, the dominance of Western culture has been threatening these home-grown arts and industries with extinction, thereby also endangering the cultural identity of our nation. ‘*The Holders of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as an initiative to reaffirm Korea’s cultural identity and support the admirable endeavors of carriers of traditional knowledge and skills, has now established itself as a major outlet for the manifestation of our national spirit and its living continuity. I have no doubt in my mind that this exhibition will be another memorable occasion for letting the excellence and beauty of our traditional crafts shine through and celebrating Korea’s everyday culture.

This year’s exhibition is more particularly meaningful, as it is hosted in Jeju-do, the region that has been the historical producer of gat, the headgear which is the prime symbol of Korea’s Confucian culture and continues to be a nurturing home for traditional crafts.

The event, I hope, will serve to further kindle interest in traditional culture among the people of this blessed island and help its visitors, from Korea and abroad alike, develop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originality of Korean culture and its aesthetics.

I would like to conclude by expressing my deepest admiration and gratitude to the holders of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and trainees for their unwavering commitment to carrying on the traditions trusted to care. Finally, I would also like to thank our hosts and organizers.

20 October 2006
Lee Dong-sik
President of the Foundation for the Preservation of Cultural Properties

축사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늘을 사는 우리는, 조상들이 손길로 빚어낸 옛것들이 그리워집니다. 현대식 전자 밥통을 보면서 무쇠솥을 연상하고 밥을 먹으면서 놋그릇을 떠올립니다. 보일러 난방을 하면서 청동 화로를 그리워하고 책꽂이를 보면서 문방사우를 상상합니다.

최첨단 문명이 옛것을 몰아내버리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전통의 얼이 깃든 진품과 명품을 일상적으로 만날 수 없으니 참으로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이 같은 문명 전환의 시기에 우리 것의 진수를 보여 주는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작품전》이 지난 1973년부터 매년 국제 행사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행사에서 열려, 대한민국의 명품들을 감상할 기회가 제공되어 왔다는 사실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들께서는 선조들의 숨씨를 그대로 전승하여 한국미의 격조를 드높이는 작품들을 재현해 온 장인들입니다. 그렇기에 그 노력은 더욱 빛나며 묵묵히 빚어낸 작품들은 명품의 반열에 올라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전시가 한국의 아름다운 명품들을 사랑하고 찬미하는 도민들과 나라 안팎의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고 고전적 감동을 듬뿍 안겨 주는 축제의 자리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귀한 작품을 출품하여 주신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들에게 각별한 감사를 드리며, 훌륭한 전시회를 마련하는 데 정성을 쏟으신 관계된 모든 분들에게 심심한 치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10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 태 환

Address by the Governor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ll of us living in today's fast-evolving society to yearn for older ways of living. Each and every daily object surrounding us is a reminder of the lifestyle of an older world we left behind. The electric rice cooker reminds us of the iron pot and brass wares. The comfort of central heating did not erase in us the memory of bronze braziers that kept our ancestors warm through winter nights of yore.

As a matter of fact, our technology-enabled lifestyle has all but completely erased traditional daily artifacts from our environment. Sadly, it is becoming harder everyday to come across these objects, which are like precious bridges between us and generations that lived before us.

“*The Holders of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2006*,” an annual exhibition hosted since 1973, has been providing the public with invaluable opportunities to appreciate Korean crafts, wrought by the hands of those who carry on our endangered traditions, in these times of transition.

Our forefathers' craftsmanship and artistry shine forth every year through the masterpieces exhibited at this show, created from their hard work and admirable dedication.

“*The Holders of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hosted for the second time in Jeju Province. The exhibition is sure to be a delight for our island's tradition-loving people and an occasion for immersion in traditional culture for visitors of Jeju.

I would like to thank all craft artists exhibiting at today's show and the organizers for making this wonderful event happen.

20 October 2006

Kim Tae-hwan

Governor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04 문화 유산 현장	51 제31호 낙죽장	123 제78호 입사장	177 제107호 누비장
06 문화재청장 인사말	54 제32호 곡성의 돌실나이	127 제80호 자수장	180 제108호 목조각장
08 문화재보호재단이사장 인사말	59 제35호 조각장	133 제87호 명주장	184 제109호 화각장
1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축사	63 제42호 악기장	135 제88호 바디장	188 제110호 윤도장
12 차례	71 제47호 궁시장	136 제89호 침선장	192 제112호 주철장
	77 제48호 단청장	139 제91호 제와장	196 제113호 칠장
14 평문 : 지금, 여기서 왜 전통인가 (글 최공호)	83 제53호 채상장	142 제93호 전통장	200 제114호 염장
	87 제55호 소목장	146 제96호 옹기장	204 제115호 염색장
	91 제60호 장도장	149 제99호 소반장	210 제116호 화혜장
22 전통으로 현대를 여는 예인들	97 제64호 두석장	152 제100호 옥장	214 제117호 한지장
23 제4호 갓일	102 제65호 백동연죽장	157 제101호 금속활자장	217 제118호 불화장
33 제10호 나전장	107 제66호 망건장	161 제102호 배첩장	
39 제14호 모시장	111 제67호 탕건장	164 제103호 완초장	220 부록
43 제22호 매듭장	115 제74호 대목장	169 제105호 사기장	221 보유자 현황
47 제28호 나주의 셋골나이	116 제77호 유기장	172 제106호 각자장	222 출품작 리스트



지금, 여기서 왜 전통인가

Why tradition again?



“옛 것을 본받는 법고(法古)는 때 문을 병폐가 있고, 새로이 창조하는 창신(創新)은 상도(常道)에서 어그러지는 병폐가 있으니, 법고하되 변화를 알고, 창신하되 전거(典據)에 능해야 한다.”

성리학의 도학적 세계관이 변화하는 시대의 치세 이념으로서 한계가 있음을 깨닫고 기술 개혁, 공예의 개량을 주장한 박제가(朴齊家, 1750~1805)의 ‘법고창신(法古創新)’은 동시대의 전통 문화 담론에서도 여전히 설득력 있는 근거이다. 우리 시대 문화의 틀거리가 당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왜, 새삼스럽게 다시 ‘전통’을 말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은 바로 여기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전통의 논의는 무성해도 명확한 이해에 근거하고 있지 않은 것이 숨길 수 없는 현실이고 보면, 당분간은 소모적인 논쟁이라도 치열하게 벌여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전통’의 문제가 여전히 시대적 과제의 하나로 남아 있는 이유를 찾아 거슬러 올라가면, 식민지라는 근대기의 특수한 타율적 경험과 맞닿게 된다. 공업화를 주도한 서구 중심으로 세계 질서가 재편되고, 대동아 공영권을 명분으로 동아시아의 맹주를 자처한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하면서, 우리나라는 변방의 변방으로 자리매김되었다. 더구나 근대화를 서구화와 동

최공호 | 한국전통문화학교 교수
Choi Gong-ho | Professor,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일시한 맹목적인 서양 추수적 인식이 근대를 거쳐 현대를 관통해 오며, 전통은 문명의 퇴행이거나 거추장스런 걸림돌로 간주되기 십상이었으므로, 주체적 문화 인식을 기대하기란 거의 불가능했다. 발전을 명분으로 한 파괴적 개발 논리가 지배하던 지난 한 세기 동안 이 땅은 서양 따라잡기와 이른바 현해탄 콤플렉스에 찌들어 내 목을 축일 물조차 이 땅의 우물에서 길어 올릴 여력을 갖지 못한 불행한 시대를 살아야 했다. 패배 의식에 젖은 나머지 스스로를 폄하하는 등 터무니없는 열등감이 유포된 것도 이 무렵의 일이다. 해방 공간을 거쳐 1960년대에는 일시적으로 전통 문화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 그러나 이 시기의 '전통'은 상처 입은 민족적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한 일환이었을 뿐 이미 생산적이고 미래적인 가치로서의 창신이 아니었다. 오히려 '전통'의 이름으로 지난 시기의 것이면 무턱대고 미화하려는 태도에서는 배타적 민족주의의 혐의마저 베어낸다. 어설플 전체주의적 역사 인식이 전통 문화를 수장고에 몰아넣어 박제화를 시도하고, 형식적인 소재주의를 부추기기에 이른 것이다. 갓과 곱방대를 배경으로 장구를 맨 한복 여인이 단골로 등장하는 상투적인 국가 이미지 포스터라든가, 조악한 모조품 금관이 '민족의 얼'이 담겼다 하여 대표적인 관광 상품 행세를 하던 관행이 오늘날에도 버젓한 현실 앞에 직면하고 보면 참담할 따름이다. 그런데 유독 우리 시대에 와서 새삼스레 수호적 전통이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거기에는 강제로 단절된 문화의 시간적 공백을 뒤늦게나마 메워 보려는 의지의 소산으로서, 당시의 시대적 여건에 비추어 일정한 의의가 담겨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고도 성장의 발판을 마련한 1960년대의 개발 독재 시기에 전통 공예 기술의 보존과 전승을 위한 중요무형문화재 제도가 발효된 역설도 이러한 맥락에서 납득이 가능해진다.

가야 할 길은 멀고 할 일이 태산인데, 언제까지 아픈 역사에 핑계를 댈 것인가. 정작 문제는 해방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전통 논의에 그다지 진전이 없어 보인다는 사실에 있다. 아름다운 포장지로 미화된 과거로의 회귀가 목적이 아니라면, 전통은 지금,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려서 상처 난 자긍심을 회복하든 우리의 미래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전통의 각질을 걷어내고 그 자리에 새살이 돋게 해내야만 지금, 그리고 미래의 우리 역사에 진정한 전통의 가치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이다.

“There is a danger of being obsolete in adopting the old, while there is a danger of deviating from the accepted standards in creating the new. Therefore, we should follow the old based on the knowledge of the new, and should create the new with understanding of the old.”

During the Joseon dynasty, Philosopher Park Jae-ga realized the limit of Confucianism as the ruling philosophy and suggested renovation of technology and craft in his slogan of “Adopting the old, Creating the new”. This is still very convincing in today's discourse of traditional culture. The reason is that the framework of contemporary culture in Korea is not very different from that of the past. Here we can find the answer to the question why we are talking about ‘tradition’ again. However, in reality, the heated discussion on tradition does not seem properly based on clear understanding of it. This is why we need even more intense discussion on this issue.

This unsolved problem of ‘tradition’ in our society can be explained in terms of our heteronomous experience of being colonized by Japan during the modernization. While the world was being reorganized by the West European countries which had led the industrialization, Korea was even further marginalized by Japanese imperialists. In addition, modernization has been considered same as westernization throughout the period of modernization.

This west-oriented idea made us believe that tradition was regression and an obstacle to civilization, which resulted in failure in recognizing the identity of our culture. During the last century under the destructive development project, the Korean society was dominated by the blind imitation of the West and Japan. At the same time, the dismal defeatism and the sense of inferiority became prevailing among Koreans.

After the 1945 liberation, the 1960s witnessed a fad of tradition. However, at that time, ‘tradition’ was not a basis of productive creation but the means of recovering the lost national pride. Rather, blind beautification of the past in the name of ‘tradition’ can be seen as exclusive nationalism. As a result, the awkward totalitarianist view of history put the traditional culture into the storage, leaving stereotyped images behind. For instance, the stereotyped images of Korea such as a Korean woman in Hanbok (the traditional costume) tapping the Janggu (the traditional drum) in a national propaganda poster, and a tacky imitation of a gold crown under the title of tourist souvenir frustrate me badly.

Then, what is the reason for the recent call for reconsideration of tradition? This can be understood as the result of our will to recover the lost part of our history, which seems proper to the occasion. In

전통이 일천한 미국이 새로운 산업 사회의 국제적 패권을 쥌 수 있었던 반면에, 제3세계 국가 가운데 전통이 오랜 나라일수록 근대화 과정이 더디고 산업화의 도정에서 시간을 지체한 것은 이 문제와 관련해 시사하는 바가 있다. 문화적 차원의 전통 의식은 슬로건만으로는 그 정수에 근접하기 어렵다. 어떤 역사든 거기에는 계승할 것과 청산할 과제가 있게 마련이다. 계승할 것을 폐기하거나, 마땅히 청산해야 할 과제를 묵시적으로 방치해 버림으로서 발생하는 폐해는 생각보다 심각하다.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들은 바로 이와 같은 역사적 청산과 계승에 대한 분별력의 오류로부터 배태된 것이 적지 않다고 믿는다.

현실이 이와 같을진대 전통의 논의인들 온전할 리가 만무하다. 역사적 청산과 계승의 단계는 점진적일 수 있다. 실상의 복원이 평가를 우선하는 것처럼, 청산할 과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상에 가까운 복원 노력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 보호 정책은 바로 이러한 차원에서 제한적이거나 그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따라서 계승하되 그 한계는 형식이 아니라 무형의 에너지, 곧 기술의 노하우이거나 바람직한 민족의 기질지성, 독자적 조형 질서 등 무형의 것에 그쳐야 한다. 형식이 전통에 묶이면 오히려 전통이 창조의 불모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전통을 모욕하는 일이며, kitsch적 저급 문화의 형식주의에 빠지게 될 공산이 크다.

미래의 전통을 올바르게 창도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전통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관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 마디로 요약하면 계승할 것은 형식 너머의 어떤 가치이고, 창조할 것은 새로운 시대의 양식인 것이다. 쉬운 예로, 세계 도자 사상 유래 없이 뻗어난 성과를 이룩한 고려 시대의 청자조차도 조선 왕조의 창업과 더불어 그 양식이 가차 없이 폐기되고 분청사기, 백자로 이행하지 않았던가. 청자를 빚던 도공에게 새 왕조의 실력자가 하루아침에 제작 중단을 명했거나 청자 도공이 한꺼번에 사라진 것이 아니다. 그 이유는 바로 새로운 시대가 요청하는 미의식과 그 지향 목표가 바뀌었다는 데 있다. 역사와 시대가 내리는 심판은 이처럼 무서우리만치 냉엄하다. 이 경우에도 청자의 양식은 청산하였으되 분청사기와 백자의 제작에 청자로부터 승계한 첨단 기술적 노하우가 녹아들어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바람직한

this sense, it is also understandable that the protection and preservation system for intangible cultural asset was established in the 1960s under the developmental dictatorship.

We have no time to adhere to the scar of the past. The problem is that so far we have made little development in the discourse of tradition since the 1945 liberation. It is useless to return to the beautified tradition or to look back on the past in order to recover our lost self-respect. We can discover the true value of tradition when we remove its dead skin. It is suggestive that the modernization has been retarded in the third world nations with long histories, while the United States, the newly emerging force of the 20th century, held the hegemony of the world. Slogans cannot lead us to the essence of tradition. We have to decide what to adopt and what to reject. It can be a serious problem to neglect this issue. I believe that many structural contradictions of our society were caused by misjudgement between adoption and rejection of history. This is the case when it comes to the discourse of tradition. Adoption and rejection of history has been showing a gradual progress. Restoration of the reality takes precedence over evaluation, and it should be the first consideration in understanding what to adopt and what to reject. This is the reason why the designation and protection system of intangible cultural assets is so important.

Therefore, what we have to adopt is not something in a material form but invisible energy such as the technical know-how, mentality, unique aesthetics and the like. We have to bear it in mind that tradition can be an obstacle to creation if we adhere to it. It is a shame that tradition can easily turn into formalism of the kitsch low culture.

Creation of future tradition depends on the viewpoint of tradition of the past. In a word, what we have to adopt is not material thing but mentality. Also, we have to create a new style for the new times. Let me taken an example of celadon and porcelain. Goryo celadon, which is known as the unprecedented achievement in the world history of crafts, was drastically abolished during the Joseon Dynasty, and gave way to *Buncheong* ware and White porcelain. It does not necessarily mean that the king of the new dynasty gave a command to abolish the whole production system of celadon or the craftsmen all disappeared all at once. The reason for the shift from Goryo celadon to Joseon's white porcelain lies in the change of aesthetics and standard in the new era. In this case, the style of Goryo celadon has been abandoned, but, at the same time, the technological know-how adopted from celadon made a great contribution to production of Buncheong ware and White porcelain. This is a



전통의 계승이자 진보 양식의 한 전범인 것이다.

전통의 직역으로서 계승된 빼어난 솜씨와, 의역으로서의 창조적 감성이 만나 적절한 자기 몫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야말로 양 진영의 문화적 좌표를 확고히 하는 일일 뿐더러, 창조적 전통 수립의 당면 과제를 위한 적극적 대안이라고 확신한다. 이 점에서 산업 디자인 기업 212의 시도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뉴욕의 소호 거리에 대형 매장을 낸 이 회사의 제품은, 선차로 깎은 발우나 나전칠기 등 전통의 재료와 기술을 이용하여 첨단 문화 상품을 디자인하고, 그 분야에서 최고 장인의 솜씨를 빌려 제작한 결과물이었다. 전통의 기술과 현대 디자인이 적극적으로 제휴하여 만들어 낸 우성 결합의 전범으로서 성공적인 모델케이스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전통의 본질은 물의 속성에 가깝다. 창조적 전통의 지혜는 풀을 뜯어 우유를 배출하는 소의 위장을 닮아야 한다. 백마강의 물이 늘 같아 보일지라도 이미 옛 물일 수 없듯이 겉모습은 달라진 시대의 과제에 걸맞은 옷으로 갈아입되 그 내용은 철저히 미래적이거나 최소한 동시대적이어야 한다. 또한 소가 풀이라는 전통의 재료를 먹고 우유라는 새로운 형질의 양식을 창조해 내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통의 형식을 그대로 차용하는 일이야말로 풀을 먹고 그대로 배출하는 일과 무엇이 다르랴. 새로운 문화 양식을 창도하기 위한 전통의 되새김질이 미래의 문화 담당층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이다.

무형의 본질을 계승한 이후에는 창조적 의역이 있을 따름이다. 창조적 대상으로서의 전통은 구체적인 형상으로서보다는 봄날 화사한 산수유나 은근한 난향과 같은 아우라로 적시듯 베어날 따름이다. 우리 시대와 미래의 문화적 정체성을 옹골케 세우기 위해서 척박한 전통 인식을 상대로 그 가치를 올바르게 전파할 책무를 자임한다면, 치열한 자기 반성의 기초 위에서 축적한 균형 있는 역사 의식과 남다른 소명 의식이 필수적이다. 이것만이 전통 문화의 지킴이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시대 양식의 창조적 주체의 반열에 자신을 당당히 세우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계승하되 낡은 시대의 옷을 갈아입고, 창조하되 주체적인 의식에 바탕을 둔 “범고창신”의 지혜가 여전히 설득력을 얻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더 이상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 묵수적 전통에 매어 시간을 소모하기에는 갈 길이 멀고 우리 어깨에 지워진 짐이 너무 버겁지 않은가.

good example of healthy adoption of tradition and its development.

I firmly believe that the balance between literal translation and creative reinterpretation of tradition can serve to consolidate the cultural position and to establish a new culture. In this sense, it is relevant to think over the success story of a Korean industrial designer shop named “Vium” which opened a branch in Soho, New York. The company produces modern design goods with traditional materials and techniques such as lacquerwork under the best craftsmanship. This is a very good example of prepotence of the traditional technology and the contemporary design.

The essence of tradition is like water, and the recreation of tradition is like milk. Just like a river which looks unchanging but changes all the time with flowing water, and like a cow which eats grass to make a totally different products - milk, tradition should not remain same but should be recreated to serve for the present and the future. For creation of new culture, we, the leaders of the future culture, have to ruminate over our tradition.

Understanding of the intangible essence should be followed by a creative reinterpretation. Tradition should be secretly revealed without exposing itself as it used to be. In order to establish our cultural identity of the present and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have a balanced awareness of history and a sense of duty based on intense self-examination. This is the only way to build up our creative subjectivity in the new era, instead of remaining as a keeper of tradition.

This is the reason why the wisdom of ‘following the old based on the knowledge of the new, creating the new with understanding of the old’ still have persuasive power. We have a long way ahead and have too many things to do to waste our time over unproductive old traditions.



전통으로 현대를 여는 예인들
2006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작품전 출품작





갓일 Gannil

제4호 갓일 | 갓일은 갓을 만드는 기능이다. 갓은 조선 시대 성인 남자들이 외출할 때 갖추어야 할 관모(冠帽)중 하나로 주로 양반들의 사회적 신분을 반영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갓을 만드는 과정은 크게 '양태(갓의 테) 일, '총모자(모자) 일, 양태와 총모자를 거두어 맞추는 '입자(笠子) 일로 나뉜다. 양태는 대나무를 머리카락처럼 가늘게 쪼개 둥근 양태판 위에서 한 올 한 올 엮고, 총모자는 말꼬리나 말갈기 털인 말총을 원통형 모갓골 위에서 엮은 것이다. 양태와 총모자가 만들어지면 이것들을 한데 모아 갓을 만든다. 양태는 둥글게 트집을 잡고 총모자는 올의 간격을 고른 후 명주실이나 대을, 명주천 등을 한 겹 더 올리고 나서 먹칠과 옷칠을 해 갓 끈까지 달면 완성된다. (1964년 12월 24일 지정)

Gannil (Making a horsehair hat) | *Gannil* refers to the skill of *gat*-making. The *gat*, a horsehair hat, was an item of formal attire that adult men in Joseon were obliged to wear when they went out as a symbol of their nobility. The process of making a *gat* is divided into three steps: the first involves making the hat rim (*yangtae*), whereby strips of bamboo are sliced thinner than a hair and tied up on a disc-shaped plate; the second entails making the cup-shaped upper part (*chongmoja*) with the tail hair of mane of a horse. Once the rim and upper part of the hat have been made, a craftsman draws the rim by making an oval shape, and checks that the upper part is tied up evenly. Finally, in the third stage of the process (*ipja*), the separate parts are assembled and covered with silk and lacquer. The *gat* is completed once strings have been attached to it. (Designated date : 24 December 1964)



중요무형문화재 제4호 갓일 보유자
김인 Kim In

1920년생 ● 인정일 : 1985년 2월 1일 ● 기예능 : 총모자
● 포상 사항 : 1993 분다제주중앙클럽 주관 분다대상 수
상 | 1980~84 전승공예대전 제5회~제9회(5회) 입상 ● 주
요 활동 : 1985~현재 보유자 작품전 출품



김인, 총모자, 12×19cm Kim In, Chongmoja (Horsehair Headgear), 12×19cm

born in 1920 ● Accreditation date : 1 February 1985 ● Crafting talents : Chongmoja (making the cup-shaped upper part of the hat) ● Awards : 1993 Buddha Grand Prize (organized by Buddha Jeju Jungang Club) | 1980~84 Prizes in 5th~9th Traditional Crafts Competitions ● Major activities : 1985~present Presented works to exhibi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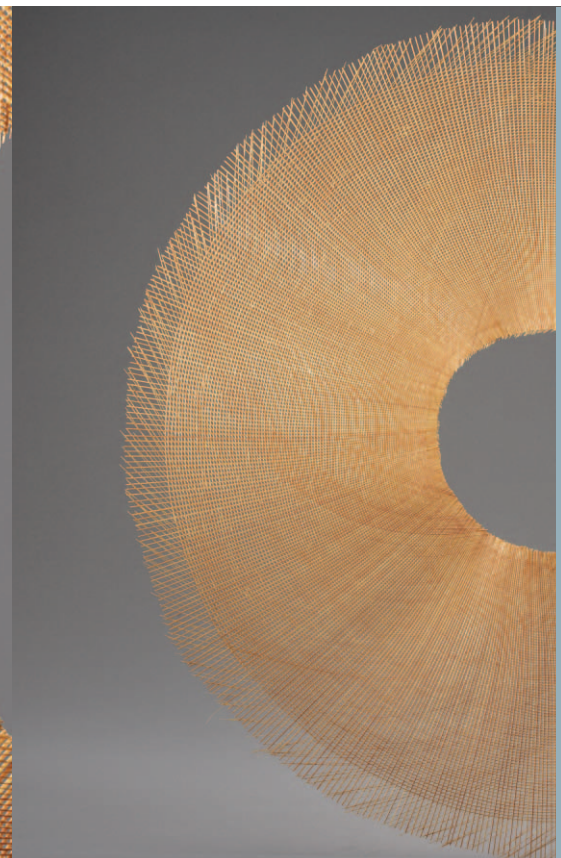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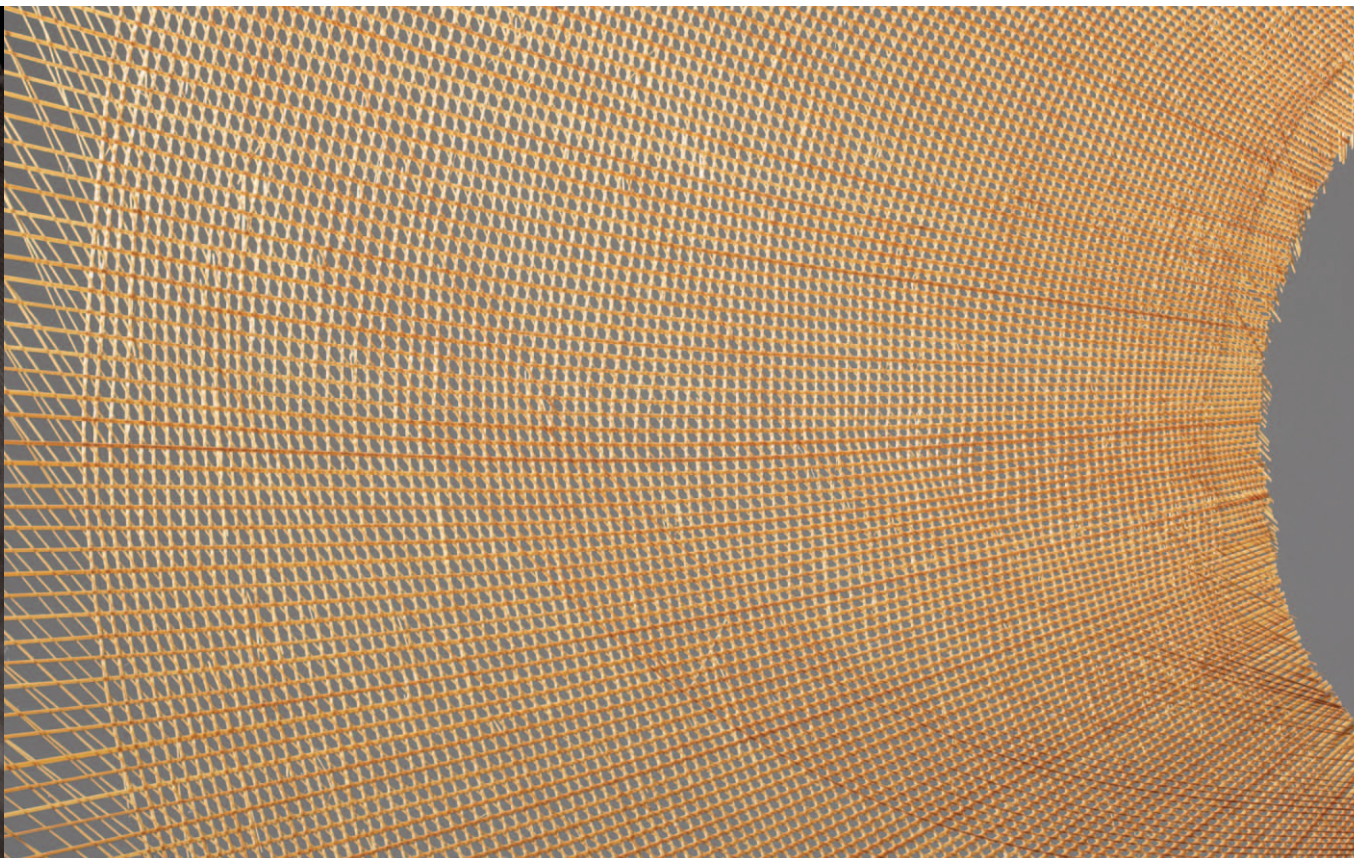
중요무형문화재 제4호 갓일 보유자
정춘모 Jeong Chun-mo

1940년생 ● 인정일 : 1991년 5월 1일 ● 기예능 : 입자
● 경력 사항 : 2000 한국공예문화진흥원 이사 | 1995
~2003 한국무형문화재기능보존협회 이사장 | 1960 입자
장 김봉주 선생, 종모자장 고재구 선생 등께 사사 ● 포상
사항 : 2001 국무총리 감사패 | 1984 제9회 전승공예대전
문화공보부 장관상 수상 | 1978 전승공예대전 은상 수상
● 주요 활동 : 1991~현재 보유자 작품전 출품 | 1984 로
마 바티칸 박물관 및 연세대학교 박물관 갓 기증 외 다수



정춘모, 통영갓, 44×13cm Jeong Chun-mo, Tongyeonggat (Horsehair Top Hat), 44×13cm

born in 1940 ● Accreditation date : 1 May 1991 ● Crafting talents : *Ipja* (assembling the hat rim and the cup-shaped upper part) ● Profile : 2000 Executive of Korean Craft Promotion Foundation | 1995~2003 Chief Director of Korean Preservation of Intangible Cultural Assets Association ● Awards : 2001 Plaque of Appreciation from Prime Minister | 1984 Prize of the Minister of Culture and Information at the 9th Traditional Crafts Competition | 1978 Silver Prize at the Traditional Crafts Competition ● Major activities : 1991~Present Presented works to exhibitions | 1984 Presented *Gat* (horsehair hat) to the Musei Vaticani of Rome and the Museum of Yonsei University



장순자, 양태, 지름 53cm, Jang Sun-ja, Yangtae (Brim of Horsehair Hat), ø 53

중요무형문화재 제4호 갓일 보유자
장순자 Jang Sun-ja

1940년생 ● 인정일 : 2000년 7월 22일 ● 기예능 : 양태
● 경력 사항 : 1962 보유자인 모친 고정생에게 전수 받음
● 포상 사항 : 1992 제주도지사 공로패 | 1985 제주도지사 감사장 | 1982~전승공예대전 양태 부문 8차례 입상 ●
주요 활동 : 2000~현재 보유자 작품전 출품 | 2000 제주도 신지식인 선정

born in 1940 ● Accreditation date : 22 July 2000 ● Crafting talents : Yangtae (making the hat rim) ●
Profile : 1962 Inherited the skill of Yangtae from her mother from 25 years old ● Awards : 1992
Plaque of Meritorious Services from the Governor of Jeju Province | 1985 Citation of Appreciation
from the Governor of Jeju Province | 1982~ Eighth Prizes in the category of Yangtae at Traditional
Crafts Competitions ● Major activities : 2000~present Presented works to exhibitions | 2000 Selected
as 'the Person of New Knowledge' of Jeju Province



중요무형문화재 제4호 갓일 보유자
박창영 Park Chang-yeong

1943년생 ● 인정일 : 2000년 7월 22일 ● 기예능 : 입자
● 경력 사항 : 1958 안수봉 선생계 사사 ● 포상 사항 :
1973~89 전승공예대전 입선, 장려상, 특별상 ● 주요 활
동 : 2004 미국 뉴욕 한국박물관에 갓 기증 | 2000~현재
보유자 작품전 출품 | 2002 제 5회 <진달래전> 출품 |
1980 국립민속박물관에 백립 기증 | 1978~현재 서울 금천
구에서 갓공방 운영



박창영, 진립, 50×26cm Park Chang-yeong, Jeolip (Military Officer's Hat), 50×26cm

born in 1943 ● Accreditation date : 22 July 2000 ● Crafting talents : *Ipja*(assembling the hat rim and the cup-shaped upper part) ● Profile : 1958 Apprenticed to Ahn Su-bong ● Awards : 1973~89 Runner-up, encouragement, and special prizes at Traditional Crafts Competitions ● Major activities : 2004 Presented *Gat* (horsehair hats) to the Korea Museum, New York | 2000~ present Presented works to exhibitions | 2002 Presented works to the 5th *Jindallae* Exhibition | 1980 Presented *Baengnip* (white cloth-made *Gat*) to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 1978~present Runs a *Gat* Studio in Geumcheon-gu, Seoul



조교

정한성, 통영갓, 36×14cm
Jeong Han-seong, *Tongyeonggat*
(Horsehair Top Hat), 36×14cm

조교

강순자, 총모자, 12×16cm
Kang Sun-ja, *Chongmoja* (Horsehair
Headgear), 12×16cm



나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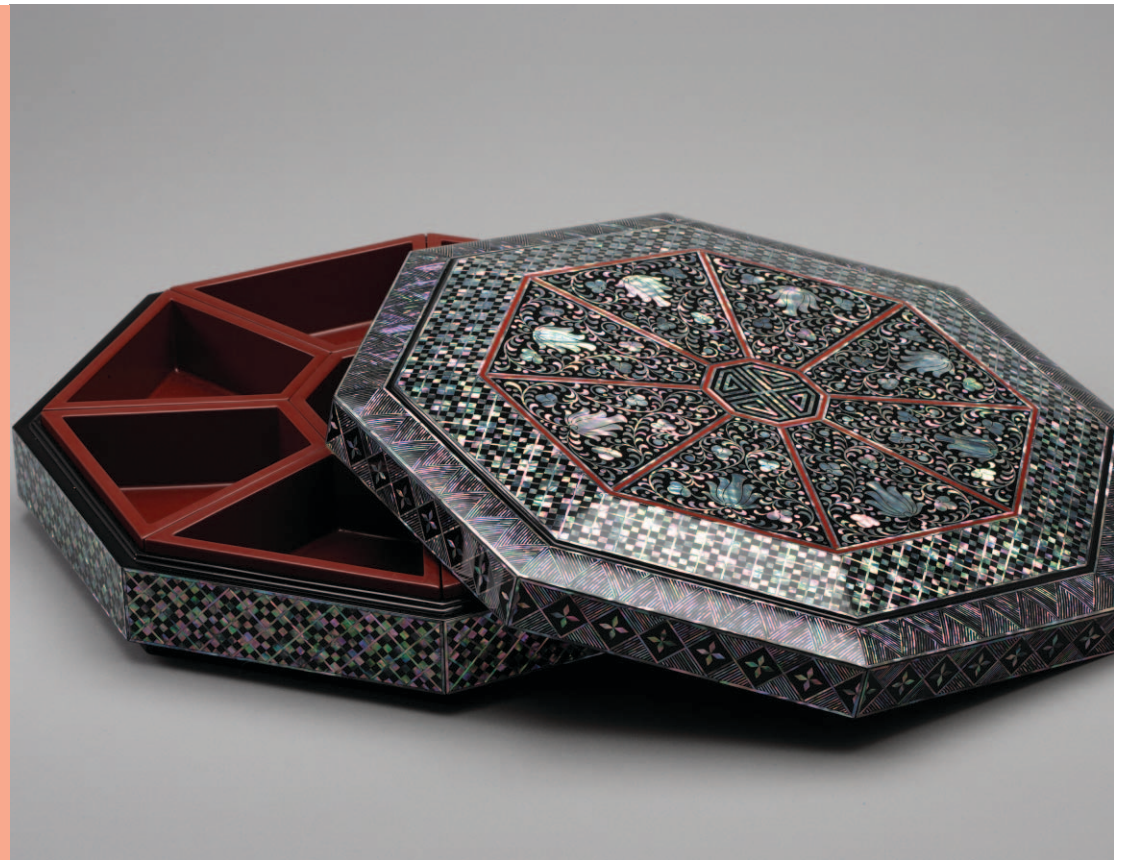
Najeonjang

제10호 나전장 | 나전장은 나무로 짠 가구나 기물 위에 무늬가 아름다운 전복이나 조개 껍질을 갈아 문양을 오려 붙이고 옷칠해서 완성하는 기능이다. 그 제작 과정을 보면 우선 나무로 기본 틀인 백골(白骨)을 짜고 그 표면을 사포로 문지르거나 틈새를 메워 고르게 만드는 일을 한다. 자개 작업은 자개를 실처럼 잘게 자른 '상사'로 기하학적 문양을 만드는 꿰음질 기법과, 자개를 문질러 얇게 만들어 국화, 대나무, 거북이 등 각종 문양을 만드는 줄음질 기법이 있다. 자개는 남해안과 제주도 근해에서 나는 것이 색이 곱고 질이 좋다. (1966년 6월 29일 지정)

Najeonjang (Production of mother-of-pearl lacquer ware) | *Najeonjang* refers to the skill of cutting luminescent shells into different shapes and dimensions, then inlaying them onto wooden objects or furniture and coating them with lacquer. An artisan puts together a *backgol* or wooden framework, and fills up the gaps or levels the surface of the *backgol* with sandpaper, before adding the mother-of-pearl. This work involves *kkeuneunjil*, or the making of geometrical designs with *sangsa*, pieces of mother-of-pearl sliced like thread, and *juleunjil*, the rubbing mother-of-pearl to thin it out. Then, a number of designs are made with the mother-of-pearl, including chrysanthemum, bamboo and turtle in particular. The mother-of-pearl produced in the southern coastal areas or on Jeju Island is famous for its beautiful color and good quality. Tongyeong in Gyeongsangnam-do, one of the southern coastal areas, is a major producer of lacquer ware with mother-of-pearl inlays. (Designated date: 29 June 1966)



송방웅, 구절판 찬합, 34×8cm Song Bang-ung, Gijepan Chanhap
(Side Dish Container with Nine Sections), 34×8cm



중요무형문화재 제10호 나전장 보유자
송방웅 Song Bang-ung

1940년생 ● 인정일 : 1990년 10월 10일 ● 기예능 : 꿇음
질 ● 경력 사항 : 2000~현재 한국칠문화협회 부회장 |
1995~현재 경상남도추천상품 QC 심사위원 역임 |
1992~1999 전승공예대전 심사위원 역임 등 ● 포상 사항
: 1985 제10회 전승공예대전 대통령상 수상 | 1984 제9회
전승공예대전 특별상 수상 | 1983 제8회 전승공예대전 국
무총리상 수상 등 ● 주요 활동 : 2001 한국전통공예특별
전(중국 공예전시관) 등 해외 전시

born in 1940 ● Accreditation date : 10 October 1990 ● Crafting talents : *Kkeuneumjil* (making
geometrical designs with *Sangsa*, the mother-of-pearl sliced like thread) ● Profile : 2000~present Vice
Chairman of Korean Lacquering Association | 1995~present A screening member for Kyong-nam
Provincial QC(Quality Certificate) | 1992~1999 A screening member for Traditional Crafts
Competition, etc. ● Awards : 1985 Presidential Prize at the 10th Traditional Crafts Competition |
1984 Special Prize at the 9th Traditional Crafts Competition | 1983 Prime Minister's Prize at the 8th
Traditional Crafts Competition, etc. ● Major activities : 2001 Presented works to overseas exhibitions
(Special Exhibition for Traditional Korean Crafts at the Crafts Exhibition Hall in China), etc.



중요무형문화재 제10호 나전장 보유자
이형만 Lee Hyeong-man

1946년생 ● 인정일 : 1996년 12월 10일 ● 기예능 : 줄음질 ● 경력 사항 : 1982 전통공예연구소 운영 | 1963 김봉룡 선생께 사사 ● 포상 사항 : 1988 제13회 전승공예대전 국무총리상 | 1991 제16회 전승공예대전 문화부장관상 ● 주요 활동 : 2004 배재대학, 삼척대학 초빙 교수 | 1996~현재 보유자 작품전 출품 | 2001 중국 운남민족박물관 아시아민족조형학회 학술 세미나 논문 발표 및 전시, 시연 | 2000 독일 하노버 엑스포 시연



이형만, 과기원, 28×21×10cm Lee Hyeong-man, Gwaggham (Fruit Vessel), 28×21×10cm

born in 1946 ● Accreditation date : 10 December 1996 ● Crafting talents : *Juleumjil* (rubbing mother-of-pearl to make it thin and then, make various designs with the mother-of-pearl, such as chrysanthemum, bamboo and turtle) ● Profile : 1982 Ran Traditional Crafts Research Institute | 1963 Apprenticed to the late Kim Bong-ryong ● Awards : 1988 Prime Minister's Prize and Culture Minister's Prize at the 13th and 16th Traditional Crafts Competition, respectively ● Major activities : 2004 Professor invited to Paichai University and Samcheok National University, and their graduate schools | 1996-present Presented works to exhibitions | 2001 Presented research papers, exhibited works and demonstrated skills at seminars for the Institute of Asian Ethno-Forms and Culture at the Minority Ethnic Museum in Yunnansheng, China | 2000 Demonstrated skills at Hanover Expo, Germany



조교

양옥도, 난초벽걸이, 32×39cm

Yang Ok-do, Orchid Tapestry, 32×39cm



한산모시짜기

Hansan mosijjagi

제14호 한산모시짜기 | 한산모시짜기는 충남 서천군 한산면에 전해 오는 모시짜기 기능이다. 모시 제작 과정은 한 해 동안 재배한 모시풀 길쭉걸을 벗겨 태모시를 만든 다음 하루쯤 물에 담가 말린 후 다시 물에 적셔 울을 하나하나 쪼갠다. 쪼갠 모시 울을 이어 실을 만들고, 실의 굵기에 따라 실을 날고 풀을 먹이고 베틀에서 짠 다음 잣물에 삶아 표백하는 과정은 다른 지역의 길쌈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한산 지역의 모시는 '밥그릇 하나에 모시 한 필이 다 들어 간다.'는 말이 생길 만큼 가늘고 곱기로 유명하다. (1967년 1월 16일 지정)

Hansan mosijjagi (Ramie cloth weaving) | *Hansan mosijjagi* refers to the weaving skills used to make ramie cloth in Hansan-myeon, Seocheon-gun in Chungcheongnam-do. The production of ramie cloth involves the cultivation and harvest of ramie, knitted ramie making, and a number of techniques such as lancing, spinning, knotting, weaving, and decolorization. The ramie plants are cut, and the fibers are removed from the stem. The fibers are soaked in water for a day and left to dry, and then soaked in water again before splicing them to make yarn. Knitted ramie involves the making of phloem fiber by paring the bark. Lancing is carried out to determine how many wraps are included in a piece depending on a yarn's thickness. An artisan weaves ramie textile on a loom after starching. Decolorization involves whitening ramie cloth by boiling it with lye. Ramie cloth in the Hansan area is so thin and fine that it is famous for its quality. There is even a saying that one roll of ramie fabric can be placed in one rice bowl. (Designated date : 16 January 1967)



중요무형문화재 제14호 한산모시짜기 보유자
방연옥 Bang Yeon-ok



방연옥, 배포시, 1필 폭 30cm White Ramie, width 30cm

1947년생 ● 인정일 : 2000년 8월 22일 ● 기예능 : 모시 짜기 ● 경력 사항 : 1980 문정옥 선생께 사사 ● 포상 사항 : 1995~1996 전승공예대전 제19회, 20회 입상 | 1990, 1993 전승공예대전 제15회, 17회 장려상 | 1982~1986 전승공예대전 제7~11회 입상 ● 주요 활동 : 2000~현재 보유자 작품전 출품 및 전수 활동 | 1982~99 전승공예대전 출품

born in 1947 ● Accreditation date : 22 August 2000 ● Crafting talents : *Mosijjagi* (the weaving skill used to make ramie cloth) ● Profile : 1980 Apprenticed to Moon Jeong-ok ● Awards : 1995~1996 Prizes at the 19th and 20th Traditional Crafts Competitions | 1990, 1993 Encouragement Prize at the 15th and 17th Traditional Crafts Competitions | 1982~1986 Prizes at the 7th-11th Traditional Crafts Competitions ● Major activities : 2000~present Presented works to exhibitions and offered transfers skills | 1982~1999 Presented works to Traditional Crafts Competi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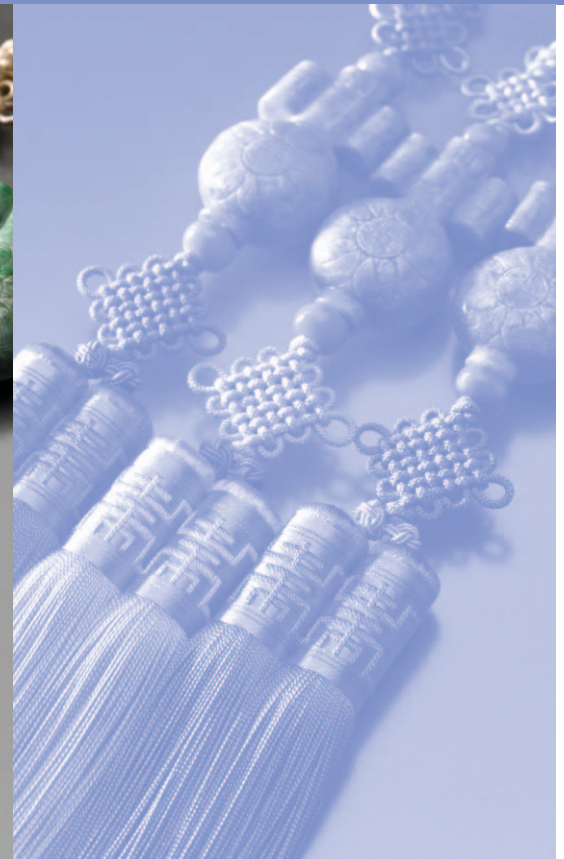


조교

박승월, 생모시, 1필 폭 30cm
Park Seung-wol, Ramie, width 30cm

조교

고분자, 생모시, 1필 폭 30cm
Go Bun-ja, Ramie, width 30cm



매듭장 Maedeupjang

제22호 매듭장 _ Maedeupjang | 매듭은 여러 가닥의 실을 꼬거나 합한 끈목으로 여러 종류의 매듭을 짓고, 술을 만드는 기능이다. 재료는 명주실을 주로 사용하며, 끈의 색깔, 굵기, 맺는 방법에 따라 형태가 다양하고 지역에 따라 그 이름도 다르다. 매듭 모양의 이름은 생쪽, 나비, 잠자리, 국화 등 우리가 쉽게 보고 사용하는 물건, 꽃, 곤충 이름에서 따왔다. 매듭은 악기와 가마 등 여러 가지 기구에 장식적으로 이용되었으며, 같은 종류의 매듭일지라도 궁중과 지역에 따라 품격이 달랐다. (1968년 12월 21일 지정)

Maedeupjang (Decorative knotting) | *Maedeup* refers to a knot, or to the skill of making various kinds of knots and the sul that is attached to the lower part of a knot. Silk thread is the major material for making knots, which vary depending on their color, thickness and the knotting method used. The name of a knot also differs according to the region. Generally, knots were named after many different things, such as the plants, flowers and insects seen in everyday life, including ginger, butterflies, dragonflies, and chrysanthemums. Knots were also attached to musical instruments and palanquins for decorative purposes. Even if knots are the same kind, where they are made or used determines the quality and the degree of elegance. (Designated date : 21 December 1968)



중요무형문화재 제22호 매듭장 보유자
김희진 Kim Hui-j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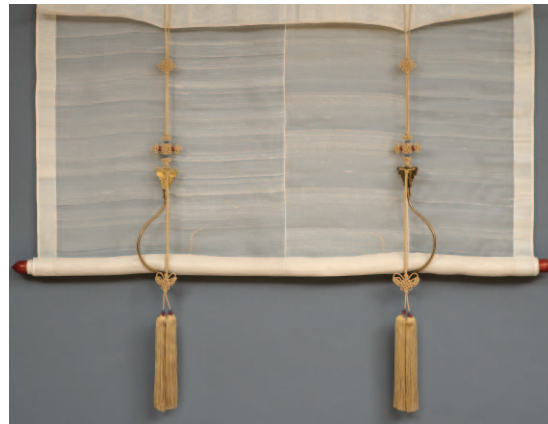


1934년생 ● 인정일 : 1976년 6월 30일 ● 기예능 : 매듭
● 경력 사항 : 1973 김희진전승공예연구소 개설, 전수 교육 실시 | 1972 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 | 1969 서라벌예대 공예과에서 전수 교육 ● 포상 사항 : 1971 제5회 동아공예대전 대상 수상 | 1966 제1회 민속공예전 문교부장관상 수상 ● 주요 활동 : 1994 이집트 국립 카이로 공예 박물관 초청 전시회 | 1986 한불수교 100주년 기념 프랑스 외무성 초청 전시회 등

김희진, 금칠보연화문대삼작노리개, 길이 34cm Kim Hui-jin, *Sanjak Norigae* (Triple-Jewel Pendant Trinket) with Gold Chilbo (enamels) and Lotus Design, length 34cm



born in 1934 ● Accreditation date : 30 June 1976 ● Crafting talents : *Maedup* (the skill of making various kinds of knots) ● Profile : 1973 Opened Kim Hui-jin Traditional Crafts Research Center and offered skill transfer education | 1972 A specialized member of Cultural Properties Committee | 1969 Offered skill transfer education at Crafts Department of Sorabol University of Arts ● Awards : 1971 Grand Prize at the 5th Donga Crafts Competition | 1966 Education Minister's Prize at the 1st Folk Crafts Competition ● Major activities : 1994 Held an exhibition at the invitation of the Cairo National Crafts Museum of Egypt | 1986 Held an exhibition marking the 100th anniversary of Korean-French Relations at the invitation of the French Ministry of Foreign Affairs, etc.



조교

정봉섭, 비취투호삼작노리개, 길이 37cm
Jeong Bong-seop, *Samjak Norigae*
(Triple-Jewel Pendant Trinket) with Jade Tuho
Jar Ornamentation, length 37cm

조교

김혜순, 옥박취삼작노리개, 길이 35cm
Kim Hye-sun, *Samjak Norigae* (Triple-
Jewel Pendant Trinket) with Jade Bat
Ornamentation, length 35cm

조교

박선경, 방장걸이유소, 130×200cm
Park Seon-gyeong, Drapery Hanger,
130×200cm



Naju saetgolnai

제28호 나주의 섯골나이 | 나주의 섯골나이는 전남 나주의 섯골 지역에 전승되는 무명을 길쌈하는 기능이다. 고려 말 문익점이 가져온 목화씨는 조선 시대에 전국적으로 재배되었으며, 무명은 우리 민족 의생활의 주재료가 되었다. 무명의 제작 과정은 목화솜을 수확하는 데서 시작한다. 목화솜에서 씨를 빼내고 솜을 부풀려 고치를 말고 물레에 돌려 무명실을 만들어낸다. 자아낸 무명실을 날뜰에 걸어 실의 굵기에 따라 날고 그 위에 풀을 먹인 후 베틀에 걸어 짜면 무명 한 필이 완성된다. (1969년 7월 4일 지정)

Naju saetgolnai (Cotton weaving) | *Naju saetgolnai* refers to cotton-weaving in Saetgol, Naju and Jeonnam. Cotton was first introduced to Korea from Yuan China by an envoy named Mun Ik-jeom during the late *Goryeo* Period. Thereafter, it was cultivated throughout the country in the *Joseon* period, becoming a major resource for clothes. Cotton manufacture involves the cultivation and harvest of the plant, cotton extraction, cocoon rolling, spinning, and weaving. Extraction involves removing the seeds from the plant and softening the cotton; rolling is carried out by rubbing the cotton on a plate; spinning involves extracting the yarn using a spinning wheel; and weaving involves inserting pieces of cotton string onto a frame, and then weaving the starched yarn to produce the finished good. (Designated date: 4 July 1969)



중요무형문화재 제28호 나주의 섯골나이 보유자
노진남 Noh Jin-nam

1936년생 ● 인정일 : 1990년 10월 10일 ● 기예능 : 무명짜기 ● 경력 사항 : 1975 나주의 섯골나이 전수생 등록 ● 포상 사항 : 1980~ 전승공예대전 3회 입상, 전승공예대전 장려상 ● 주요 활동 : 1994~1998 농업박물관에서 제작 시연 및 전시 | 1990~현재 보유자 작품전 출품 및 전수 교육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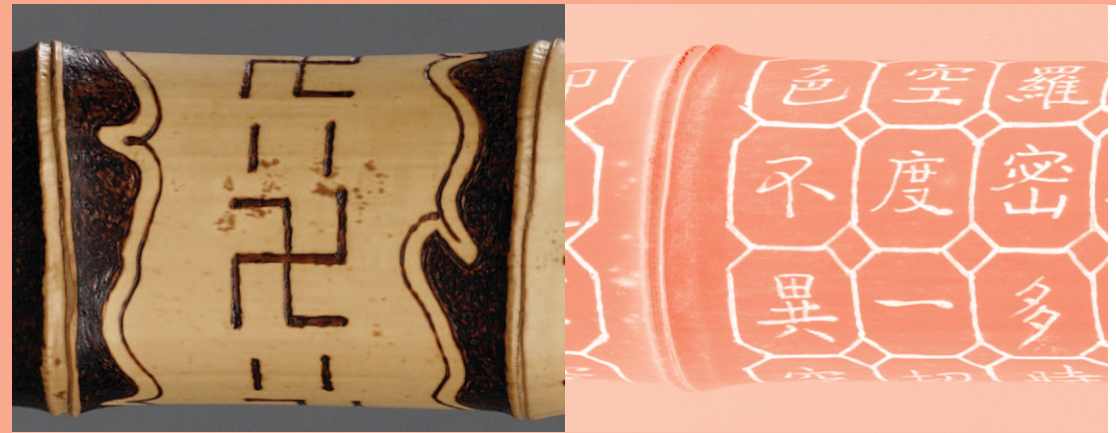
노진남, 무명, 폭 35cm No Jin-nam, Cotton, width 35cm

born in 1936 ● Accreditation date : 10 October 1990 ● Crafting talents : *Mumyeongjagi* (the skill of weaving cotton) ● Profile : 1975 Enrolled as a student for *Naju saetgolnai* (cotton-weaving skill in Saetgol, Naju, Jeonnam) Competitions | 1982~1986 Prizes at the 7th-11th Traditional Crafts Competitions ● Awards : 1980 Three Prizes at the Traditional Crafts Competition, Encouragement Prize at the Traditional Crafts Competition ● Major activities : 1994~1998 Presented the weaving skill and presented works at the Agricultural Museum | 1990~present Presented works to exhibitions and offered skill transfer education



조교

김홍남, 무명, 폭 35cm
Kim Hong-nam, Cotton, width 35cm



낙죽장

Nakjukjang

제31호 낙죽장 | 낙죽장은 불에 달군 인두로 대나무 표면을 지져서 장식적인 그림이나 글씨를 새기는 기능이다. 낙죽은 관청 소유의 기물에 관청 이름을 낙인해 다른 것들과 구별하던 것에서 시작하여 점점 표면장식으로 널리 사용하기에 이르렀다. 낙죽에 사용되는 인두는 소나무 숯불을 피운 화로에 달구어 사용하는데, 인두를 너무 달구면 대나무가 타고 너무 식으면 문양이 희미해지기 때문에 인두의 온도를 맞추어 그리는 경험과 속력이 필요하다. 이 낙죽 기법으로 화살대·침통·칼자루·병풍·담뱃대·부채·대나무 필통 등에 장식 문양을 그린다. (1969년 11월 29일 지정)

Nakjukjang (Bamboo pyrography) | *Nakjukjang* refers to the skill of carving pictures or words into a piece of bamboo by scorching it with a red-hot iron. *Nakjuk*, or bamboo pyrography, was once used by public officials as a means of putting their seal on their belongings. The process then evolved into a surface decoration technique, whereby a type of branding iron is heated in a brazier using fine tree charcoal and then pressed into the bamboo. If the iron is too hot, it burns the bamboo; if the iron is too cold, then the patterns will not be clear. As the artisans must carve figures at a certain temperature and finish the work before the red-hot iron cools off, they need considerable experience and quick hands. *Nakjuk* is used to make decorative designs or patterns on arrow shafts, acupuncture needle boxes, sword grips, folding screens, tobacco pipes, folding fans and bamboo cases for writing brushes. (Designated date : 29 November 1969)



중요무형문화재 제31호 낙죽장 보유자
김기찬 Kim Gi-chan

1955년생 ● 인정일 : 2000년 7월 22일 ● 기예능 : 낙죽
● 경력 사항 : 1983 이동연 선생께 낙죽 사사 ● 포상 사항 : 1993 전승공예대전 문화재위원장상 | 1987 전라남도 공예품경진대회 최우수상 | 1984 제9회 전승공예대전 장려상 수상 | 1982 전라남도공예품경진대회 특선 2회 ● 주요 활동 : 2000~현재 보유자 작품전 출품 및 전수 교육 활동 | 2001 뉴욕 롱아일랜드 대학 힐우드 미술관 특별전 “동방의 빛” 참가 등

김기찬, 낙죽판야심경불자, 길이 160cm, Monk's Fly Whisk with the "Heart Sutra" in Pyrography, length 160cm



born in 1955 ● Accreditation date : 22 July 2000 ● Crafting talents : *Nakjuk* (bamboo pyrography) ● Profile : 1983 Apprenticed to the late Lee Dong-yeon ● Awards : 1993 Chairman of Cultural Properties Committee Prize at the Traditional Crafts Competition | 1987 Best Prize at the South Jeolla Province's Crafts Competition | 1984 Encouragement Prize at the 9th Traditional Crafts Competition | 1982 Two Special Prizes at the South Jeolla Province's Crafts Competitions ● Major activities : 2000~present Presented works to exhibitions and offered skill transfer education | 2001 Participated in “Tradition in the Land of the Morning Calm: Treasures from the Kyonggi University Collection” at the Hillwood Art Museum of Long Island University, et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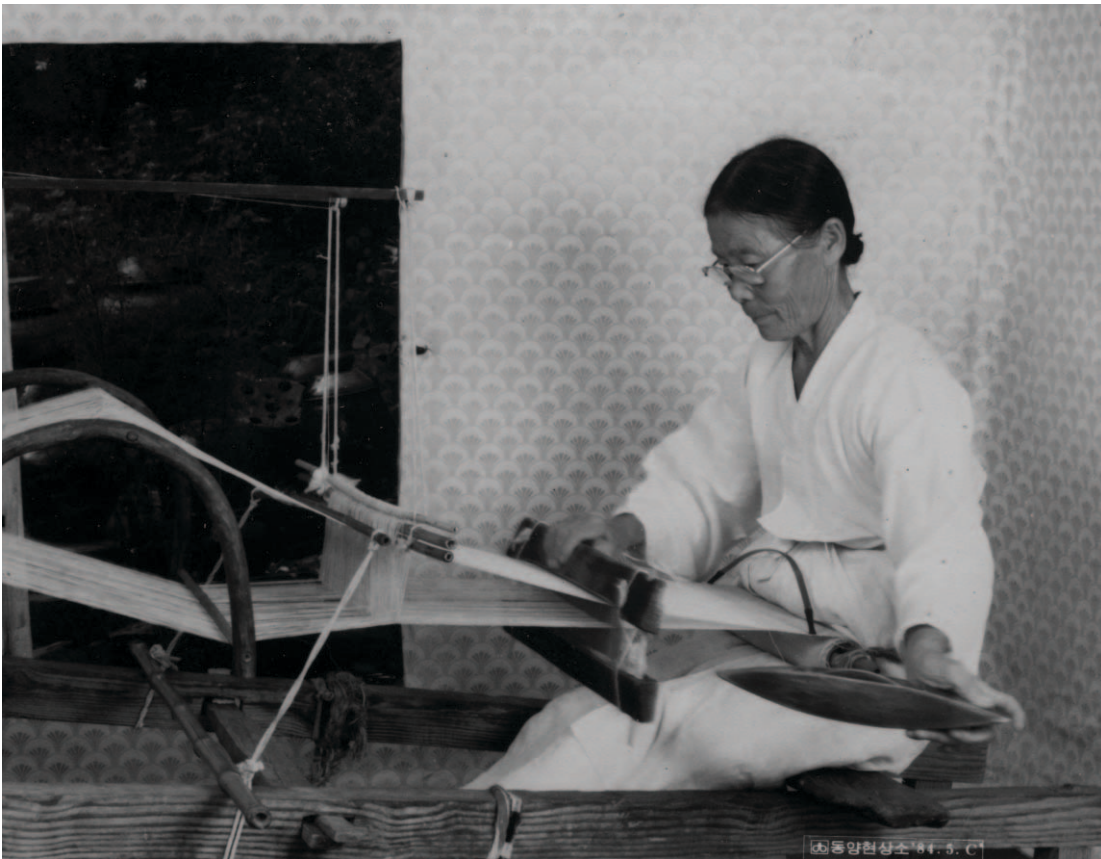


곡성의 돌실나이

Gokseong dolsilnai

제32호 곡성의 돌실나이 | 돌실나이는 전남 곡성군 석곡면에서 삼베를 짜는 기능이다. 삼베의 제작 과정은 재배한 삼베를 수확해 잎을 훑는 데서 시작된다. 이를 삼단이라고 하는데, 삼단을 찌 껍질을 벗기고 햇볕에 말린다. 가늘게 쪼갠 삼을 한 올 한 올 길게 잇는다. 그 다음 베 한 필의 길이와 몇 올이 들어갈지를 정하고, 풀 먹이기 과정을 거친 다음 베틀로 짠다. 삼베는 대마 껍질을 벗기고 조개는 기술에 의해 가늘기와 굵기가 결정된다. (1970년 7월 22일 지정)

Gokseong Dolsilnai (Hemp weaving) | *Dolsilnai*, or the weaving of hemp, is a craft form practiced in Seokgok-myeon, Gokseong-gun, Jeollanam-do. To make hemp cloth, hemp is cultivated and harvested, then the skin is stripped from the hemp, boiled, and dried in the sun. Following the splitting of hemp, pieces of hemp are threaded together. The length of one roll and the number of strings to be included in a roll is determined, and finally, it is woven on a loom after starching. (Designated date : 22 July 1970)



중요무형문화재 제32호 곡성의 돌실나이 보유자
김점순 Kim Jeom-sun

1918년생 ● 인정일 : 1970년 7월 22일 ● 기예능 : 삼베 짜기 ● 경력 사항 : 1982 한미수교 100주년 기념 미국 초청 시연 | 1975 제7회 남도문화제 초청 시연 ● 포상 사항 : 1979 제3회 곡성군민의날 본상 수상 | 1975 제7회 남도문화제 최고상 수상 | 1974 제1,2회 새농민대회 문화상 수상 ● 주요 활동 : 1970~현재 보유자 작품전 출품 및 전수 교육 활동 | 1991 농협 30주년 기념 축제 시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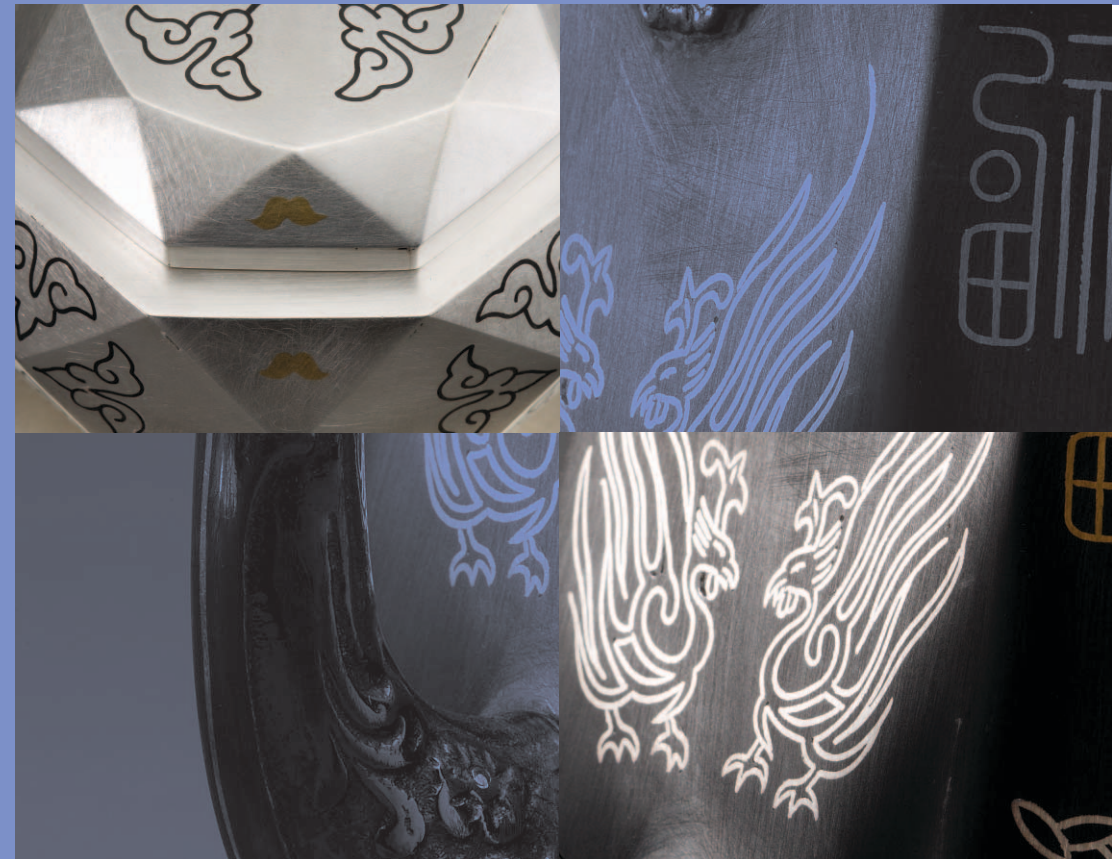
김점순, 삼베, 1필 폭 36cm, Kim Jeom-sun, Hemp, width 36cm

born in 1918 ● Accreditation date : 22 July 1970 ● Crafting talents : *Sambejjagi* (weaving of hemp cloth) ● Profile : 1982 Demonstrated skills at the invitation of the U.S.A. in celebration of the 100th anniversary of Korea-USA diplomatic ties | 1975 demonstrated skills at the 7th Namdo Cultural Festival ● Awards : 1979 Primary Prize on the 3rd Gokseong People's Day | 1975 Best Prize at the 7th Namdo Cultural Festival | 1974 Cultural Prizes at the 1st and 2nd New Farmers Competitions ● Major activities : 1970~present Presented works to exhibitions and offered skill transfer education | 1991 Demonstrated skills in celebration of the 30th anniversary of the foundation of 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 etc.



조교

양남숙, 삼베, 1필 폭 36cm
Yang Nam-suk, Hemp, width 36cm



조각장 Jogakjang

제35호 조각장 | 조각장은 금속 표면을 장식하는 기능이다. 금속제 그릇이나 기물의 표면을 쪼아 문양을 장식하는 세공 기법의 하나로 고려 시대에 크게 발달한, 우리나라 금속 공예의 대표적 장식 기법이다. 금속조각 기법 중 평각(平刻)은 일명 음각(陰刻)이라고도 하는데 평면에 여러 가지 문양을 쪼아 나타내고, 투각(透刻)은 필요 없는 부분을 쪼거나 오려 낸다. 육각(肉刻)은 금속판을 두드려 오목·볼록을 이용한 입체감을 표현하는 기법이고, 입사는 바탕 면에 흠을 파고 그 자리에 금·은·오동선 등을 넣어 문양을 나타내는 기법이다. (1970년 7월 22일 지정)

Jogakjang (Engraving metal) | *Jogakjang* or *joijang*, a major metal craft technique developed in the Goryeo Period, refers to the engraving of figures on metal bowls or other items. Among the skills required are *pyeonggak* or *eumgak* (depressed carving), *tugak*, *yukgak* (embossed carving), and *sanggam ipsa*. *Tugak* is the process of removing unnecessary parts with a chisel in order to make a decorative design, while *sanggam ipsa* is the art of scooping out a hole on the surface of a metal object and filling it in with gold, silver or bronze. (Designated date: 22 July 1970)



중요무형문화재 제35호 조각장 보유자
김철주 Kim Cheol-ju

1933년생 ● 인정일 : 1989년 12월 1일 ● 기예능 : 조각
● 경력 사항 : 1971 서라벌예대 공예과 조각 전수조교 |
1967 백하금속조각연구소에 종사 ● 포상 사항 :
1978~1986 전승공예대전 입선, 장려상 ● 주요 활동 :
1989~현재 보유자작품전 출품 및 전수 교육 활동 | 1980
각종 전통 공예 작품전 출품 | 1978~1986 전승공예대전
출품



김철주, 금은상감주발대점과 주전자, (왼쪽)10×8cm, (오른쪽)13×6cm (주전자) 20×27cm
Kim Cheol-ju, Bowl Inlaid with Gold and Silver Designs,
(left) 10×8cm, (right) 13×6cm, (pot) 20×27cm

born in 1933 ● Accreditation date : 1 December 1989 ● Crafting talents : Sculpture ● Profile : 1971
Assistant instructor at Crafts Department of Sorabol University of Arts to transfer sculpture skills |
1967 Worked at Baekha Metal Sculpture Research Institute ● Awards : 1978~1986 Runner-up and
Encouragement Prizes at Traditional Crafts Competitions | 1982~1986 Prizes at the 7th-11th
Traditional Crafts Competitions ● Major activities : 1989~present Presented works to exhibitions and
offered skill transfer education | 1980 Presented to works to various traditional crafts exhibitions |
1978~1986 Presented works to Traditional Crafts Competitions



조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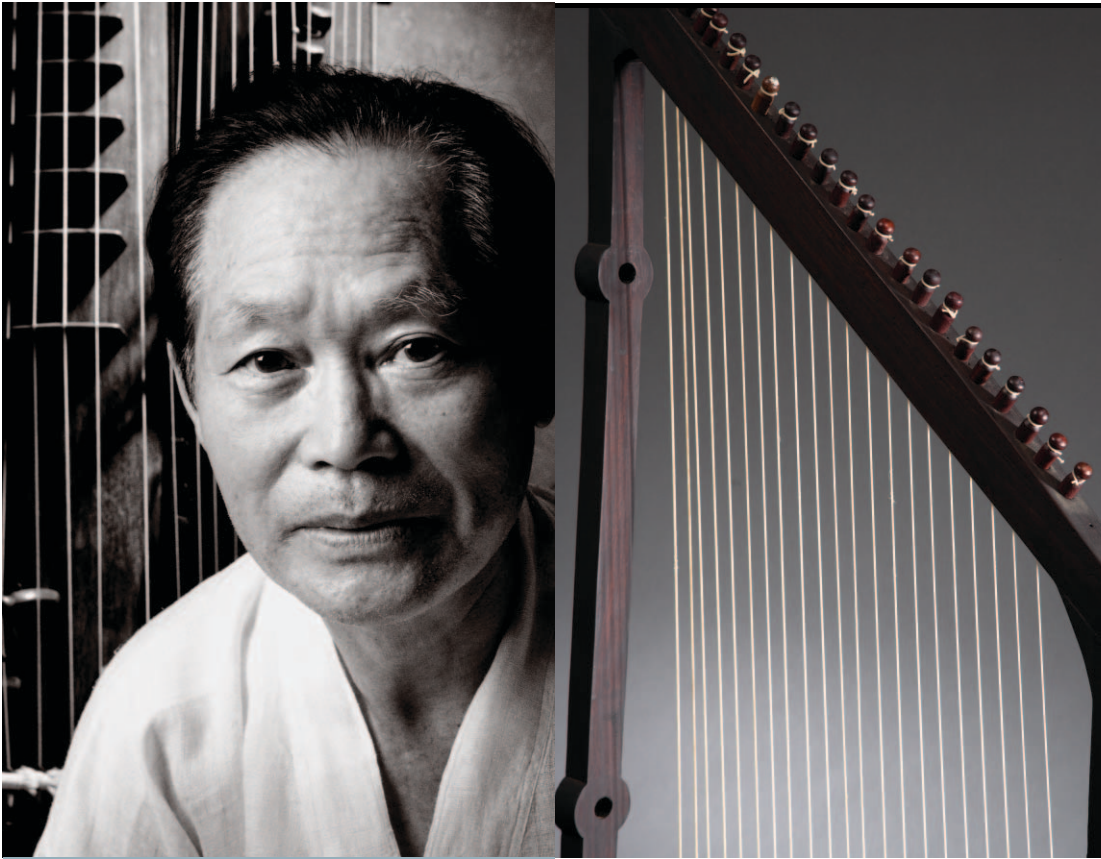
남경숙, 기(器), 11×7cm
 Nam Gyeong-suk, Vessel, 11×7cm



악기장 Akgijang

제42호 악기장 | 악기장은 한국의 전통 악기를 만드는 기능이다. 악기장은 '현악기'와 '북매우기' 기능이 각각 지정되어 있다. 현악기의 울림통은 오동나무로, 밑판은 밤나무와 소나무로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며, 세부 장식에는 대추나무나 흑단, 향나무를 흔히 이용한다. 악기에 오동나무를 쓰는 까닭은 음향이 잘 진동하고, 말라도 틈이 생기거나 쪼미 먹지 않기 때문이다. 타악기인 북에는 쇠가죽, 장고에는 개가죽을 쓴다. 북 매우기 솜씨는 가죽을 얼마나 잘 다루는가에 달려 있다. 큰 북의 경우 4-5년생 황소 가죽을 기름을 털 뺀 상태로 사용하는데, 특히 겨드랑이와 뱃가죽을 사용하면 소리가 연하면서 높게 울리는 특징이 있다. (1971년 2월 24일 지정)

Akgijang (Traditional musical instrument production) | *Akgijang* refers to the skill of making traditional Korean musical instruments, for which there are two types of technique: making stringed instruments, and making drums (*buk meugi*). The reverberation keg of a stringed instrument is made with the wood of the paulownia tree, due to its excellent capacity for oscillation and its moth-free quality. The bottom board is made of chestnut trees and pine trees, while ornamentation is usually made of jujube trees and junipers. Cowhide is used to make drums, and dog leather is used for double-headed drums. The art of drum making is highly dependent on an artisan's ability to work with leather. As for the larger drums, the leather hide of a 4 to 5-year old bull, from which the fat has not been totally extracted, is used. In particular, the leather from the armpit and belly produce a soft and high-pitched vibrating sound. (Designated date : 24 February 1971)



중요무형문화재 제42호 악기장 보유자
이영수 Lee Yeong-su

1929년생 ● 인정일 : 1991년 5월 1일 ● 기예능 : 현악기 제작 ● 경력 사항 : 1982 벽오금작사 경영 | 1946 김봉기 선생께 악기 제작 사사 ● 포상 사항 : 1991 한국문화재보호협회 감사패 | 1984 제9회 전승공예대전 장려상 | 1981 한국 국악교육회 감사패 등 ● 주요 활동 : 1994 경북궁악기 개인전 | 1994 영국 대영박물관 거문고 제작 등 | 1960~1991 국악예술고등학교, 서울시립관현악단, 국악고등학교, 일본 도쿄 대학교, 재미국악원, 흥릉세종대왕기념사업회, 연정국악원, 부산시립관현악단, 한양대박물관 등에 국악기 제작



이영수, 수공품, 58×17×118cm Lee Yeong-su, Sugonghwa (Korean Harp), 58×17×118cm

born in 1929 ● Accreditation date : 1 May 1991 ● Crafting talents : Manufacturing of string instruments ● Profile : 1982 Managed the composition of Beokogeum | 1946 Apprenticed to Kim Bung-gi regarding the making of musical instruments ● Awards : 1991 Plaque of Appreciation from Korea Foundation for the Preservation of Cultural Properties | 1984 Encouragement Prize at the 9th Traditional Crafts Competitions | 1981 Plaque of Appreciation from Korean Association for Traditional Music Education, etc. ● Major activities : 1994 Presented a solo exhibition on musical instruments at Gyeongbokgung Palace | 1994 Manufactured *Geomungo* (Korean lute) for the British Museum, etc. | 1960~1991 Manufactured traditional Korean musical instruments for Traditional Arts High School, Seoul City Orchestra, Gukak High School, Tokyo University of Japan, Korean Classical Music Institute of America, Hongneung King Sejong Memorial Project Association, Yeonjeong Korean Music Center, Busan City Orchestra, Museum of Hanyang University, etc.



중요무형문화재 제42호 악기장 보유자
고흥곤 Koh Heung-gon



1951년생 ● 인정일 : 1997년 3월 24일 ● 기예능 : 현악기 제작 ● 경력 사항 : 1975 국악기 연구원 개설 | 1970 김광주 선생계 사사 ● 포상 사항 : 2001 종로구청장 표창 | 1994 자랑스런 서울시민상 | 1990 전승공예대전 문화부장관상 수상 등 ● 주요 활동 : 1993 중화민국 타이페이 박물관 “국제전통공예대전” 참가 | 1988 세계올림픽 문화 행사 (경복궁)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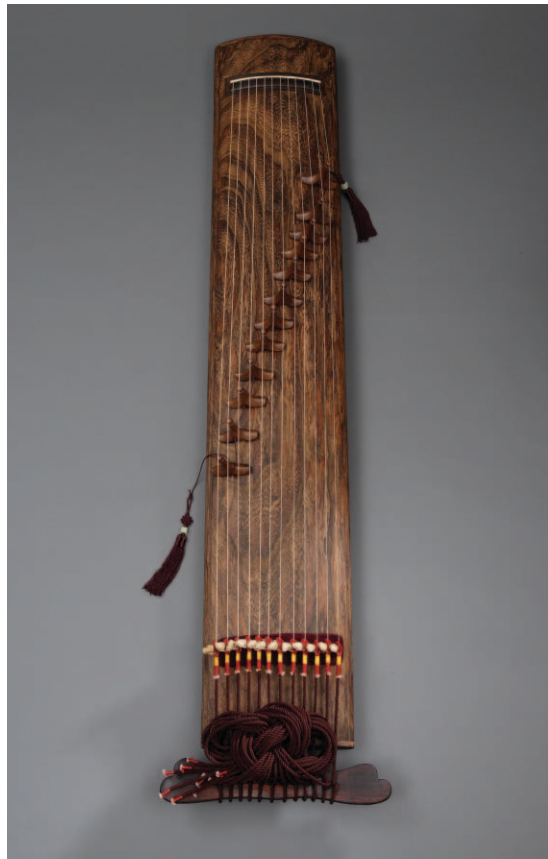


고흥곤, 산조 아쟁, 27 × 158 × 33cm
Koh Heung-gon, *Sanjo Ayang* (Seven-stringed Zither for Solo Player), 27 × 158 × 33cm

born in 1951 ● Accreditation date : 24 March 1997 ● Crafting talents : Manufacturing of string instruments ● Profile : 1975 Opened Traditional Korean Musical Instruments Research Center | 1970 Apprenticed to the late Kim Gwang-ju ● Awards : 2001 Citation from the governor of Jongno-gu Office | 1994 Proud Seoul Citizen Prize | 1990 Culture Minister's Prize at the Traditional Crafts Competition, etc. Competitions | 1982~1986 Prizes at the 7th-11th Traditional Crafts Competitions ● Major activities : 1993 Presented works to the International Traditional Crafts Exhibition at the Taipei Museum, the Republic of China | 1988 World Olympics Cultural Event (Gyeongbokgung Palace), etc.



조교
김영렬, 박, 길이 40cm
Kim Yeong-ryeol, *Bak* (Clapper), length 40cm



조교
이동윤, 정악 범금, 38×157×15cm
Yi Dong-yun, *Jeongak Beopgeum* (Lawful Zither for Rightful Music), 38×157×15cm



조교
윤신, 승무 북, 130×60×205cm
Yun Sin, Buddhist Dance Drum, 130×60×205cm



조교
윤종국, 승무 북, 130×60×205cm
Yun Jong-guk, Buddhist Dance Drum, 130×60×205cm



조교

이정기, 뱀고, 80×90×120cm

Yi Jeong-gi, Dharma Drum, 80×90×120cm



궁시장

Gungsijang

제47호 궁시장 | 궁시(弓矢)장은 활과 화살을 만드는 기능이다. 활을 만드는 사람은 궁장(弓匠), 화살을 만드는 사람은 시장(矢匠)이라 한다. 활을 만드는 재료에는 대나무, 뽕나무, 물소의 뿔, 소의 심줄이 있다. 우리나라의 활은 쇠뿔과 쇠심줄을 사용한 각궁(角弓)이란 점이 특징이며, 화살이 멀리 나가는 강궁(強弓)에 속한다. 활의 손잡이와 양끝 부분에 참나무와 뽕나무를 각각 대고, 탄력을 유지하기 위해 죽심(竹心)을 넣은 다음 그 안팎에다 쇠뿔과 쇠심줄을 붙여 준다. 화살은 대나무인 시누대를 주로 사용하는데 서해안의 바닷바람을 맞고 자란 것이 걸은 강하고 속은 물러 제작하기 좋다. (1971년 9월 13일 지정)

Gungsijang (Bow and arrow production) | *Gungsijang* refers to the making of bows and arrows. A bow maker is known as a *gungjang*, and an arrow maker as a *sijang*. The materials used to manufacture a bow include bamboo, mulberry, the horn of a water buffalo, and the muscles of a cow. A Korean bow, or *gakgung*, is made with the horn and muscle of a cow, as is the *ganggung*, a strong bow capable of shooting an arrow a considerable distance. The grip and both ends of the bow are made of black oak and mulberry. In order to maintain a bow's resilience, the bow maker inserts a central piece made of bamboo into the bow and attaches cow's horn and muscle to it with fish glue. The arrows are made with sinudae, or bamboo, on the whole. Bamboo raised in the western coastal area, where sea breezes prevail, is strong on the outside but has a soft interior, lending itself well to production. (Designated date : 13 September 1971)



중요무형문화재 제47호 궁시장 보유자
김박영 Kim Bak-yeong

1933년생 ● 인정일 : 1996년 12월 10일 ● 기예능 : 궁장
● 경력 사항 : 1965 김장환 선생께 사사 | 1959 궁시장 전수 입문 ● 포상 사항 : 제5회, 제7회 전승공예대전 입상
● 주요 활동 : 1996~현재 보유자 작품전 출품 | 1994 부천시 홍보 전시관 개인전 | 1994 육사 박물관 출품 | 1993 대만국제전통공예전, 태국국제공예대전, 대전 EXPO 등 출품, 전통 공예실 실연



김박영, 각궁, 길이 128cm Kim Bak-yeong, Gakgang (Horn Bow), length 128cm

born in 1933 ● Accreditation date : 10 December 1996 ● Crafting talents : Gungjang (bow maker) ● Profile : 1965 Apprenticed to the late Kim Jang-hwan | 1959 Began to be trained in making arrows and bows ● Awards : Prizes at the 5th and 7th Traditional Crafts Competitions ● Major activities : 1996~Present Presented works to exhibitions | 1994 Solo exhibition at the Publicity Hall of Bucheon City | 1994 Presented works to the Korean Army Museum | 1993 Presented works to the International Traditional Crafts Exhibition in the Republic of China, to Thailand International Crafts Exhibition, and to Daejeon EXPO. Demonstrated skills at the Traditional Crafts Room



중요무형문화재 제47호 궁시장 보유자
유영기 Yoo Yeong-gi

1936년생 ● 인정일 : 1996년 12월 10일 ● 기예능 : 시장
● 경력 사항 : 2000 영집궁시박물관 초대관장 ● 포상 사항 : 1991 문화가족상 (문화부장관상) | 1982 정부제1장관 감사패 | 1978~1994 전승공예대전 특별상 등 16회 입상 | 1977~1987 전국 및 경기도 민예품경진대회 10회 입상 ● 주요 활동 : 2001 영집궁시박물관 개관 특별전 | 1999 뉴질랜드의 박물관에 작품 기증, 미국 순회 전시, 우리 선조의 발명 무기 시연회 신기전 및 총통 발사 시연 등



born in 1936 ● Accreditation date : 10 December 1996 ● Crafting talents : *Sijang* (arrow maker) ● Profile : 2000 First Director of Youngjip Bows & Arrows Museum ● Awards : 1991 Cultural Family Prize (Minister of Culture) | 1982 Plaque of Appreciation from the First Minister without Portfolio | 1978~1994 16 Prizes including Special Prize at the Traditional Crafts Competition | 1977~1987 Ten Prizes at Nationwide and Gyeonggi-do Traditional Folk Crafts Competition Competitions | 1982~1986 Prizes at the 7th-11th Traditional Crafts Competitions ● Major activities : 2001 Special Exhibition on the occasion of the opening of Youngjip Bows & Arrows Museum | 1999 Presented works to a Museum in New Zealand, held circulatory exhibitions in the U.S.A., and demonstrated the shooting of weapons invented by Korean forefathers



조교

유세현, 화살액자 123×47cm
Yu Se-hyeon, Arrows in Frame, 123×47cm

조교

김종국, 유엽전, 83cm
Kim Jong-guk, *Yuyeopjeon* (Willow Leaf Arrow), 83cm

조교

박호준, 화살 액자, 123×41cm
Park Ho-jun, Arrows in Frame, 123×41cm



단청장

Dancheongjang

제48호 단청장 | 단청(丹青)은 궁궐, 사찰, 사원 등에 여러 가지 무늬와 그림을 그려 장엄하는 기능이다. 우리나라의 단청은 삼국 시대 고분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고, 불교의 수용과 함께 크게 발전했다. 단청을 하려면 우선 바탕에 청록색을 바르는 청토 바르기를 해야 한다. 이 바탕면에 도본(圖本)을 대고 분주머니를 두드리면 본에 있는 송곳 구멍으로 가루가 나와 문양이 그려진다. 여기에 청·적·황·백·흑의 오색을 칠해 완성한다. 단청은 목재의 보존성을 높이고 단점을 보완하는 표면 도장의 역할과 더불어 건물의 위엄과 신성함을 더하는 역할을 한다. (1972년 8월 1일 지정)

Dancheongjang (Ornamental painting) | *Dancheong* is a form of ornamental painting that is applied to royal palaces, temples and shrines. This form of ornamental painting originated in the Three Kingdoms period and evolved with the introduction of Buddhism. *Dancheong* involves the following process: a painter plasters blue green soil onto the surface of a building, then lays a drawing on the surface, tapping a powder bag on the drawing. As the powder falls from the small holes in the bag, designs are made on the surface. The painter then paints the building with five colors: blue, red, yellow, white and black according to the design. *Dancheong* acts as a surface coating that reinforces weak timber. It also contributes to a building's majesty and sacred air of sacredness. (Designated date : 1 August 1972)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보유자
홍점석 Hong Jeom-seok

1939년생 ● 인정일 : 1997년 3월 24일 ● 기예능 : 단청
● 경력 사항 : 1987 단청문양보존연구회 상무이사 ● 포
상 사항 : 1978 인간문화재 공예작품전시회 입선 | 1970~
불교미술공모전 불화 부문 3회 입상 ● 주요 활동 : 1968~
현재 보문동 미타사 대웅전, 여주 신록사 대웅전, 공주 계
통갑사 대웅전, 진주 충림선원 대웅전, 해인사 약수암, 미
국 하와이 대원사, 설악산 봉정암, 봉천동 백우선원 대웅
전, 삼척 천음사, 경주 금련사, 금천사, 울산 한마음선원,
지리산 대원사, 서귀포 봉림사, 부산 보덕사, 해운정사 등
단청



홍점석, 단청 문양 (용, 학), 118×73cm
Hong Jeom-seok, Dancheong Designs (Dragon and Crane), 118×73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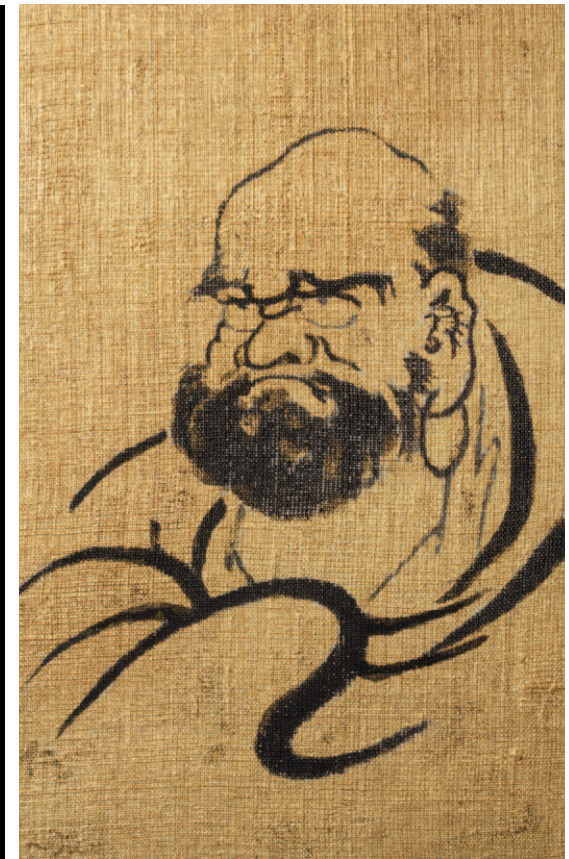
born in 1939 ● Accreditation date : 24 March 1997 ● Crafting talents : Dancheong (ornamental painting skill applied to royal palaces, temples, and shrines) ● Profile : 1987 Vice President of Dancheong Pattern Preservation Research Association ● Awards : 1978 Runner-up Prize at the Human Cultural Properties' Crafts Exhibition | 1970~ Three prizes in the category of Buddhist paintings at Buddhist Arts Competitions ● Major activities : 1968~present Offered Dancheong ornamental painting to the Main Sanctuary of Mitasa Temple of Bomun-dong, Main Sanctuary of Silloksa Temple of Yeosu, Main Sanctuary of Gyeryonggapsa Temple of Gongju, Main Sanctuary of Chungnimseonwon Temple of Jinju, Yaksuam Shrine of Haeinsa Temple, Daewonsa Temple of Hawaii, the U.S.A., Bongjeongam Shrine of Seoraksan Mountain, Main Sanctuary of Baeguseonwon of Bongcheon-dong, Cheoneumsa Temple of Samcheok, Geumryeonsa Temple of Gyeongju, Geumcheonsa Temple, Hanmaeumseonwon Temple of Ulsan, Daewonsa Temple of Jirisan Mountain, Bongnimsa Temple of Seogwipo, Bodeoksa Temple of Busan, Haeunjeongsa Temple, etc.



조교
홍창원, 영락도, 75×133cm
Hong Chang-won, Painting of Bodhisattva's
Jewelry, 75×133cm



조교
박정자, 수복 가리개, 72×193cm
Park Jeong-ja, Screen with "Su
(Longevity)" and "Bok (Fortune)" Design,
72×193cm



조교
이인섭, 달마도, 38×67cm
Yi In-seop, Portrait of Bodhidharma, 38×67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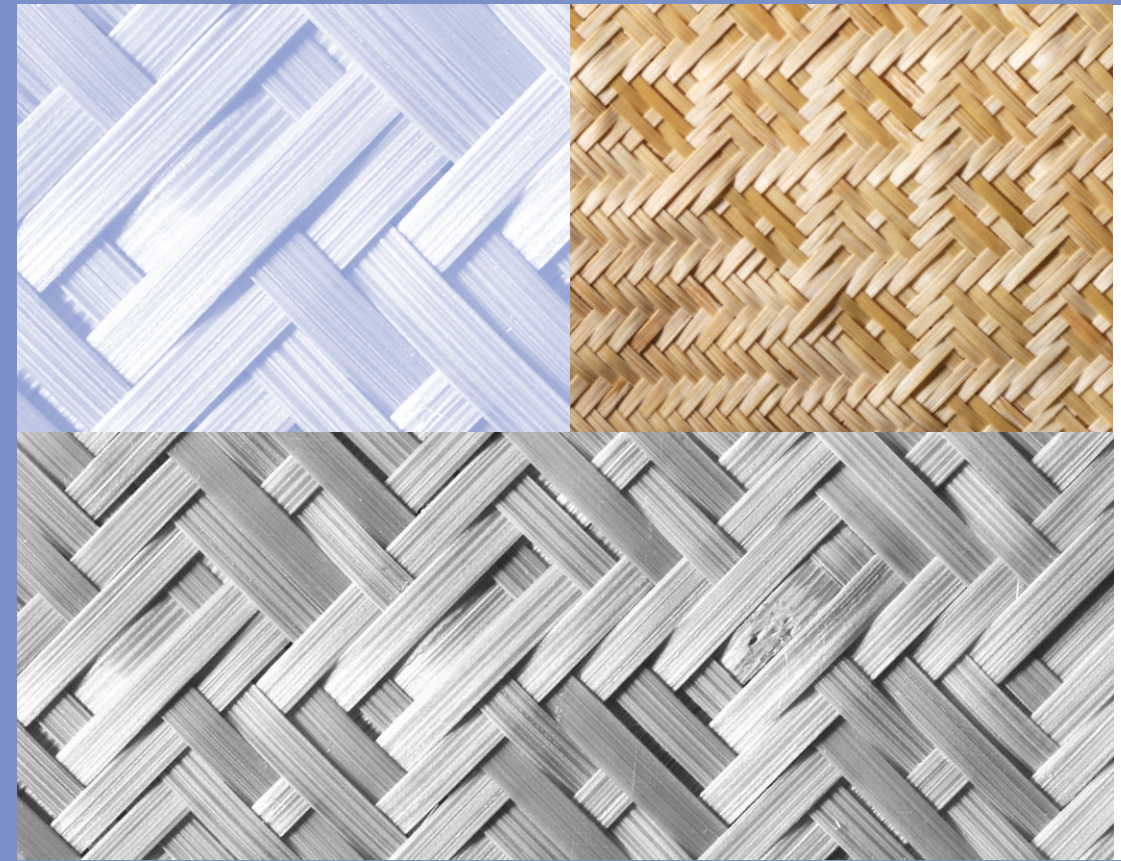
조교

김용우, 수월관음도, 65×115cm
Kim Yong-u, Water and Moon
Avalokitesvara, 65×115cm



조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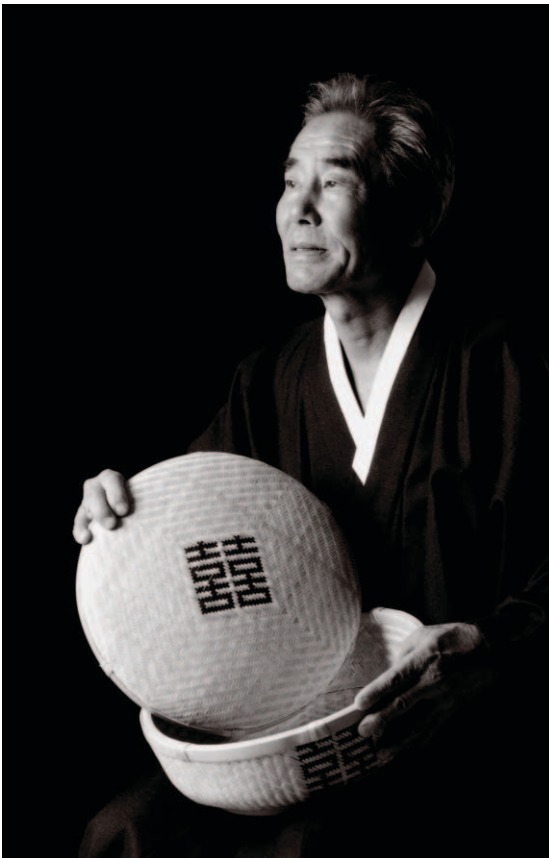
양선희, 단청, 27×90cm
Yang Seon-hui, Dancheong (Architectural
Color Patterns), 27×90cm



채상장 Chaesangja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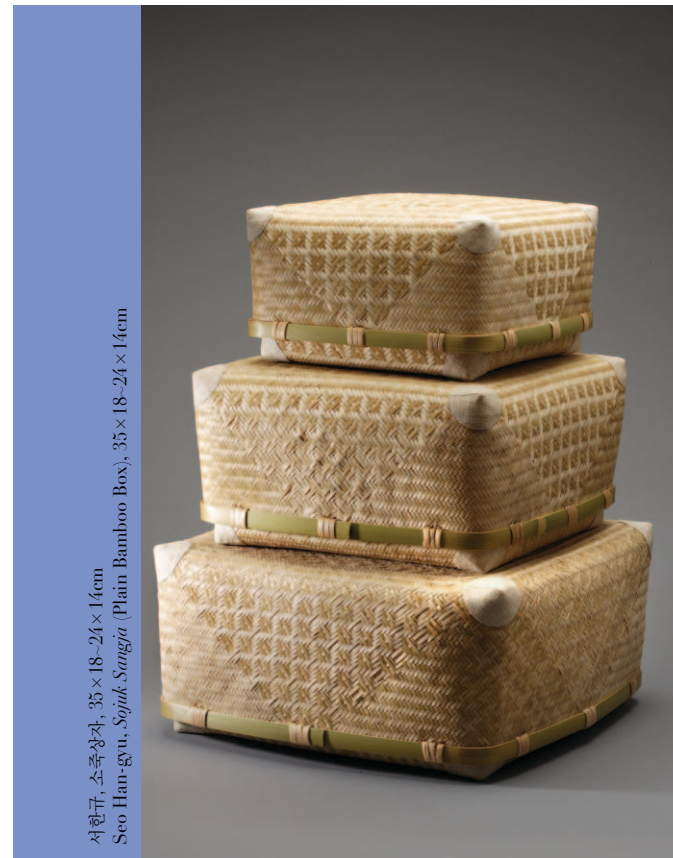
제53호 채상장 | 채상장은 얇게 저민 대나무 껍질을 여러 가지 색으로 물 들여 다양한 문양으로 고리 등을 엮는 기능이다. 채상은 궁중과 귀족층의 여성들이 즐겨 사용한 고급 공예품의 하나로서 조선 후기에는 양반 사대부뿐만 아니라 서민층의 혼수품으로 유행하였으며, 주로 옷, 장신구, 침선구, 귀중품을 담는 용기로 사용되었다. 제작 기술은 얇게 떠낸 대나무를 물에 불려 염색한 후 1~5가닥씩 엮갈아 가며 엮고 모서리와 테두리를 비단으로 감싸 완성한다. 채상의 무늬로는 길상문이나 번개, 줄무늬 등을 즐겨 사용한다. (1975년 1월 29일 지정)

Chaesangjang (Bamboo cases with colored designs) | *Chaesangjang* refers to the art of dyeing slices of bamboo skin with different colors and makes boxes by braiding them together. *Chaesang* was a luxurious craft, whose production was enjoyed by women of the nobility from ancient times onward. During the late Joseon Dynasty, common people as well as member of the *Yangban* nobility regarded these boxes as a bridal necessity, using them as containers for clothes, accessories, and needles and thread. In order to make *Chaesang*, an artisan takes off the bamboo skin first. He or she dyes the skin after peeling off the bamboo skin with the teeth and soaking it in water. After this, the artisan braids one to five strands to make a box, and finally covers the frame and the edges of the box with silk. *Chaesang* patterns usually feature thunder, stripes, and other forms that are thought to invite good luck. (Designated date : 29 January 1975)



중요무형문화재 제53호 채상장 보유자
서한규 Seo Han-gyu

1930년생 ● 인정일 : 1987년 1월 5일 ● 기예능 : 채상
● 경력 사항 : 1945 아버지로부터 죽물일 사사 ● 포상 사항 : 1982 제7회 전승공예대전 대통령상 | 1981 담양군민의날 죽공예전 금상 | 1979 전남 관광민예품경진대회 우수상 | 1977~제2회 인간문화재 공예전 특별상, 장려상 ● 주요 활동 : 1988 한·일 친선 대한민국통합전시회 후쿠오카 초청 시연 | 1985 미국 워싱턴 링컨 기념관 초청 시연 등



서한규, 소죽상자, 35×18-24×14cm
Seo Han-gyu, *Sojuk Sangja* (Plain Bamboo Box), 35×18-24×14cm



born in 1930 ● Accreditation date : 5 January 1987 ● Crafting talents : *Chaesang* (luxury craftwork used by women of noble class) ● Profile : 1945 Apprenticed to his father to learn about *Jukmul* (bamboo craftwork) ● Awards : 1982 Presidential Prize at the 7th Traditional Crafts Competitions | 1981 Gold Prize at the Bamboo Crafts Exhibition on Damyang People's Day | 1979 Superior Prize at the Jeonnam Tourist Traditional Folk Crafts Competition | 1977 Special and Encouragement Prizes at 2nd Human Cultural Properties' Exhibition ● Major activities : 1988 Demonstrated skills at the invitation of the Comprehensive Korean Exhibition for Korea-Japan Friendship in Fukuoka | 1985 Demonstrated skills at the invitation of Lincoln Memorial of Washing D.C., etc.



조교

서신정, 반질고리, 32×16cm
Seo Sin-jeong, Workbox, 32×16cm



소목장 Somokjang

제55호 소목장 | 사찰, 가옥 등 건축과 관계되는 목재 일을 하는 장인을 대목장(大木匠)이라고 하는 반면에 장과 농·문갑·탁자·소반 등 실내에서 사용하는 가구들과 그 밖의 목공품들을 제작하는 장인을 소목장(小木匠)이라고 한다. 여러 가지 목가구 가운데 문갑의 제작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문갑의 뼈대와 문틀을 만든다. 뼈대와 문틀은 연귀촉짜임을 하는데 연귀란 45도로 잘라 속을 파서 서로 맞추는 방법을 일컫는다. 다음은 호장테를 만든다. 호장테는 문짝 가장자리에 들어가는 상감 테두리로, 먹감나무 판자와 노란 은행나무 판자를 붙이고, 칠과 장식을 달아 완성한다. (1975년 1월 29일 지정)

Somokjang (Furniture making) | While *Daemokjang* refers to the skills required in the construction of buildings including temples and houses, *Somokjang* is the skill of making items of wooden furniture such as chests, dressers, desks, and stationery cases, as well as wooded craft works. A chest is made as follows: after making the framework and door frame of the chest, their edges are cut at a 45 degree angle and dug inside before assembling them. This technique of assembling the different parts of an item of furniture is known as *yeongwichokjjaim*. The artisan then makes the *hojangte*, or frame, and inserts the edges of the doors by putting persimmon and ginkgo board together, after which lacquer is added and metal ornaments are attached to it. (Designated date : 29 January 1975)



중요무형문화재 제55호 소목장 보유자
설석철 Seol Seok-cheol

1925년생 ● 인정일 : 2001년 9월 6일 ● 기예능 : 소목
● 경력 사항 : 1998~2000 인천가톨릭대 종교미술학과 겸
임 교수 | 1996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민국명장 지정 ●
포상 사항 : 1996 대통령 표창 | 1983~1995 전국공예품대
전 장려상, 특선, 입선 등 20여 회 ● 주요 활동 : 2003
한·일해협연안 시도현지사 교류회의 주최 한·일전통공
예품공동전시회(순천) 참가 | 2001~현재 광주·전남 목조
형협회전 참가 | 2000~2002 코리아 슈퍼 엑스포 한국의
명장전(일본) 등



설석철, 가계수리, 70×30×42cm Seol Seok-cheol, Gakgesuri (Wooden Cabinet), 70×30×42cm

born in 1925 ● Accreditation date : 6 September 2001 ● Crafting talents : *Somok* (making items of
wooden furniture) ● Profile : 1998~2000 Concurrently Professor at the Department of Religious Arts
of Incheon Catholic University | 1996 Designated as Korea's Maestro by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 Awards : 1996 Presidential Citation | 1983~1995 20 Prizes including
Encouragement, Special and Runner-up Prizes at the Nationwide Crafts Competition ● Major
activities : 2003 Joint Traditional Crafts Exhibition of Korea-Japan Strait Eight Coastal Cities,
Provinces and Prefectures (Suncheon) | 2001~present Presented works to Gwangju and Jeonnam
Wooden Crafts Association Exhibition | 2000~2002 Korea Super EXPO: Korean Maestros' Exhibition
(Japan), etc.



조교
 조화신, 찬장, 108×50×158cm
 Jo Hwa-sin, Pantry Chest, 108×50×158cm



조교
 이정곤, 이중 문갑, 85×35×109cm
 Yi Jeong-gon, Double-tier Stationery Chest,
 85×35×109cm



조교
 김금철, 경대, 27×35×25cm
 Kim Geum-cheol, Mirror Stand, 27×35×25cm



장도장 Jangdojang

제60호 장도장 | 장도장은 장도를 만드는 기능이다. 장도는 몸에 지니는 자그마한 칼로 호신용 또는 장신구로 쓰였다. 장도 중에서 몸에 차는 장도를 패도(佩刀)라 하고, 주머니 속에 넣는 것을 낭도(囊刀)라고 한다. 장도는 모양과 재료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다. 칼집이 사각형이면 사모장도, 팔각이면 모쟁이장도라 부르고, 재료에 따라 금장도, 은장도, 백옥장도 등으로도 부른다. 조선 후기부터는 장신구로 사용되면서 더욱 복잡하고 화려하게 발달했다. 전라남도 광양 지방의 장도는 역사가 깊고 섬세한 공예미로 이름나 있다. (1978년 2월 23일 지정)

Jangdojang (Making Ornamental knife) | *Jangdojang* is the skill of making *jangdo*, a short knife used for protection or decoration. Of the various kinds of *jangdo*, the one carried on the body is referred to as a *paedo*, while the one kept in the pocket is a *nangdo*. In addition to these two, there are many other types of knife that vary according to their shape and material. For instance, *samojangdo* are sheathed in a square case, *mojaebijangdo* in an octagonal case. In terms of the materials used, there are gold, silver and white gem *jangdo*. During the late Joseon period, knife making became more sophisticated and complicated as *jangdo* came to be regarded as a luxury pendant accessory for women. The *jangdo* made in Gwangyang, Jeollanam-do are famous for their long history and sophistication. (Designated date : 23 February 1978)



중요무형문화재 제60호 장도장 보유자
박용기 Park Yong-gi

1931년생 ● 인정일 : 1978년 2월 23일 ● 기예능 : 장도
● 경력 사항 : 현재 광양 장도박물관, 전수관 관장 | 1945 장익성 선생계 사사 ● 포상 사항 : 1973 인간문화재 공예전 장려상 ● 주요 활동 : 1978~현재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작품전 출품 | 1991 캘리포니아 파사데나 센터 전시 | 1990 일본 한국공예전람회 출품 | 1989 한국전통보석장신구특별전 출품

박용기, 백옥은장첨자도, 길이 17cm Park Yong-gi, *Jangdo* (Ornamental Knife) with White Jade and Silver Ormentation, length 17cm



born in 1931 ● Accreditation date : 23 February 1978 ● Crafting talents : *Jangdo* (short knife used for protection or decoration) ● Profile : Currently, Director of Skill Transfer Center of Gwangyang Jangdo Museum | 1945 Apprenticed to Jang Ik-seong ● Awards : 1973 Encouragement Prize at the Human Cultural Properties' Crafts Exhibition ● Major activities : 1978~present Presented works to exhibitions of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license holders | 1991 Exhibition at the Pasadena Center, California, the U.S.A. | 1990 Presented works to Korean Crafts Exhibition in Japan | 1989 Presented works to Traditional Korean Jewelry and Ornaments Special Exhibition



중요무형문화재 제60호 장도장 보유자
한병문 Han Byeong-mun

1939년생 ● 인정일 : 1993년 7월 5일 ● 기예능 : 낙죽장도 ● 경력 사항 : 현재 전남북무형문화재기능보존협회 회장 등 ● 포상 사항 : 1991 동아공예대전 대상 | 1991 제16회 전승공예대전 문화부장관상 | 1989 제14회 전승공예대전 입선 및 장려상 | 1987 제16회 공예품경진대회 우수상 및 특상 ● 주요 활동 : 2003 중요무형문화재 장도장 공개 행사 | 2003 호남무형문화재공예작품 및 사진 전시 등

한병문, 낙죽장도, 길이 24cm Han Byeong-mun, Nakjuk Jangdo (Ornamental Knife with Pyrograph Design), length 24cm



born in 1939 ● Accreditation date : 5 July 1993 ● Crafting talents : Nakjuk jangdo (short knife with bamboo pyrography) ● Profile : Currently, Chairman of Jeollado Preservation of Intangible Cultural Assets Association, etc. ● Awards : 1991 Grand Prize at the Donga Crafts Competition | 1991 Culture Minister's Prize at the 16th Traditional Crafts Competition | 1989 Runner-up and Encouragement Prizes at the 14th Traditional Crafts Competition | 1987 Superior and Special Prizes at the 16th Crafts Competition ● Major activities : 2003 Open Event of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Jangdojang | 2003 Honam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Craftworks and Photos Exhibition, et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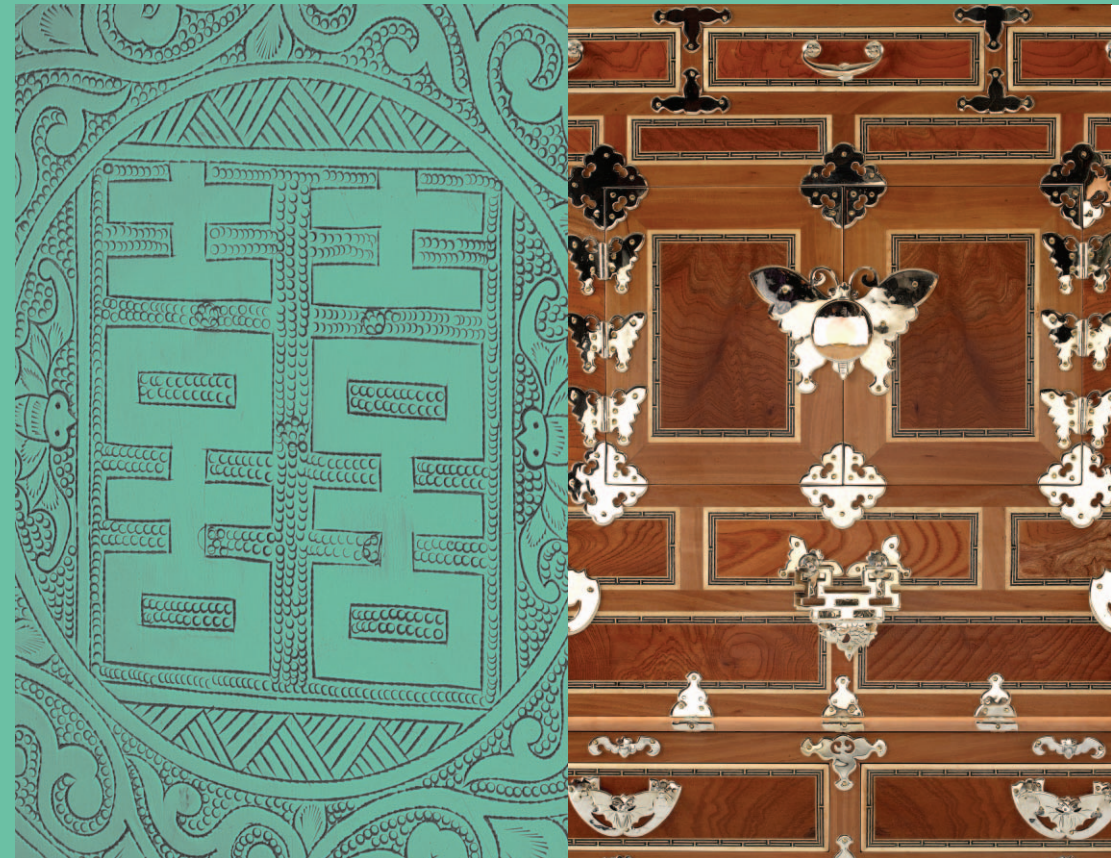


조교

박종군, 금은낙죽장도, 길이 44cm
Park Jong-gun, Decorative Knife Decorated
with Gold, Silver and Pyrography, length
44cm

조교

한상봉, 낙죽지휘검, 길이 50cm
Han Sang-bong, Sword Decorated with
Pyrography, length 50cm



두석장 Duseokjang

제64호 두석장 | 두석장(豆錫匠)은 구리와 주석을 합금한 황동(놋쇠) 장식을 만드는 기능이다. 목가구의 결합 부분을 보강하거나 여단을 수 있는 자물쇠 등의 금속제 장식을 장식(裝錫)이라고 한다. 장식의 재료로는 황동과 백동을 사용하며, 보다 화려하게 꾸미고자 할 때에는 백동을 쓴다. 주석이나 백동을 넣어 가열해 녹이고 이것을 망치로 두들겨 0.5mm 두께의 판철로 늘이고 면을 반듯하게 다듬는다. 여기에 분을 따라 작도와 정으로 오리고 줄로 다듬고 활비비와 정으로 문양을 새긴 뒤 사기 분말을 문힌 천으로 문질러 광택을 내 완성한다. (1980년 11월 17일 지정)

Duseokjang (Making brass ornaments) | *Duseokjang* refers to the skill of making brass ornaments, while *jangseok* refers to metal ornaments such as the locks fixed on wooden furniture to strengthen the joints. Brass and nickel are the major materials used in the manufacture of *jangseok*, although nickel is more often used for luxurious ornaments. As regards the manufacturing process, tin or nickel is put in a ceramic barrel and heated to melting point, and then poured onto the surface of a molded plate, before being cooled to form the initial shape. It is then hammered into a thin sheet of about 5-mm in thickness. A design is drawn on the prepared sheet, and the sheet is cut with a chisel and trimmed with a file in accordance with the chosen design. Designs are carved into the sheet with a chisel and gimlet. Finally, the ornament is polished to an excellent finish by buffing with a textile sheet sprinkled with ceramic powder. (Designated date: 17 November 198)



중요무형문화재 제64호 두석장 보유자
박문열 Park Mun-yeol

1950년생 ● 인정일 : 2000년 7월 22일 ● 기예능 : 두석
● 경력 사항 : 1997 한국산업인력공단 기능 전승자 선정 | 1968 윤회복 선생께 사사 ● 포상 사항 : 2001 국무총리 표창 | 1994 서울정도 600년 '자랑스러운 시민상' | 1993 제23회 전승공예대전 특별상 | 1998 제18회 전승공예대전 문화체육부장관상 ● 주요 활동 : 2002 안동 봉정사 대웅전 등자 쇠장석 보수, 영광 불갑사 대웅전 장식 보수 | 2000~2001 단양 구인사 대조사전 장식 제작



박문열, 황동촛대, 27×96cm Park Mun-yeol, Brass Candlestick, 27×96cm

born in 1950 ● Accreditation date : 22 July 2000 ● Crafting talents : Duseok (making brass ornaments) ● Profile : 1997 Selected as skill transferor by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 1968 Apprenticed to Yun Hui-bok ● Awards : 2001 Citation of Prime Minister | 1994 600-year-Seoul Proud Citizen Prize, celebrating Seoul in the 600-year history | 1998 Culture and Sports Minister's Prize at the 18th Traditional Crafts Competition | 1993 Special Prize at the 23rd Traditional Crafts Competition ● Major activities : 2002 Repaired the splice plate at the Main Sanctuary of Bongjeongsa Temple of Andong, Repaired wares at the Main Sanctuary of Bulgapsa Temple of Yeonggwang | 2000~2001 Manufactured wares for the Daejosajeon Hall of Guinsa Temple of Danyang



중요무형문화재 제64호 두석장 보유자
김극천 Kim Geuk-cheon

1951년생 ● 인정일 : 2000년 7월 22일 ● 기예능 : 두석
● 경력 사항 : 현재 통영무형문화재 보존협회 이사 | 1970
김덕룡 선생계 사사 ● 포상 사항 : 1982 전승공예대전 입
선 ● 주요 활동 : 2000~현재 보유자 작품전 출품 | 일본 나
고야 박물관 두석장 전시 | 1984 전승공예대전 출품 | 1982
전승공예대전 출품



김극천, 회차문머리장, 71×36×74cm
Kim Geuk-cheon, Bedside Chest with "Hui (Joy)" Design, 71×36×74cm

born in 1951 ● Accreditation date : 22 July 2000 ● Crafting talents : Duseok (making brass ornaments) ● Profile : Currently, executive of Tongyeong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Preservation Association | 1970 Apprenticed to the late Kim Deok-ryong ● Awards : 1982 Runner-up Prize at the Traditional Crafts Competition ● Major activities : 2000~present Presented works to exhibitions [Exhibited Duseokjang (brass ornaments) at Nagoya Museum of Japan | 1984 Presented works to the Traditional Crafts Competition | 1982 Presented works to the Traditional Crafts Competition



백동연죽장



Baekdong yeonjukjang

제65호 백동연죽장 | 연죽(煙竹)은 담뱃대를 말하며, 백동연죽장은 백동으로 담뱃대를 만드는 기능이다. 담뱃대는 담배를 피우는 도구다. 그와 동시에 조선 시대에는 양반들의 권위를 나타내는 장신구의 역할도 하여 상류 계층일수록 담뱃대의 길이를 길게 하곤 했다. 담뱃대의 구조는 입에 물고 연기를 빨아들이는 물부리와 담배를 담아 태우는 대꼬바리, 그리고 이것을 연결하는 대나무인 설대,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특히 대꼬바리는 직접 열을 받는 부분으로 구조상 파손되기 쉬운 구리, 놋쇠, 백동과 같은 금속으로 만들며 간혹 사기로 제작하는 경우도 있었다. (1980년 11월 17일 지정)

Baekdong yeonjukjang (Production of nickel smoking pipes) | *Baekdong yeonjuk* refers to the art of making nickel smoking pipes, or *yeonjuk*. A pipe was not only an instrument with which to smoke tobacco but also an accessory of the nobility to show their social status. Essentially, the higher one's social status, the longer the pipe. The pipe consists of three parts, namely the *mulburi*, which is the part that is put in the mouth to inhale smoke, the *daekkobari*, in which tobacco is stuffed for lighting, and the *daenamuseoldae*, a piece for connecting the other two parts. The *daekkobari* is usually made of metals such as copper, bronze or nickel because they absorb heat and are not easily broken. Ceramic pipes are seldom seen, and are indeed very rare. (Designated date : 17 November 1980)



중요무형문화재 제65호 백동연죽장 보유자
황영보 Hwang Yeong-bo

1932년생 ● 인정일 : 1993년 7월 5일 ● 기예능 : 백동연죽 제작 ● 경력 사항 : 1945 부친계 연죽일 사사 ● 포상 사항 : 1992 제17회 전승공예대전 장려상 | 1986 전북공예품경진대회 입선 | 1984 전북공예품경진대회 특선 | 1983~ 전승공예대전 3회 입상 등 ● 주요 활동 : 2002 필리핀 마닐라 베이뷰 파크 호텔 전시 | 2001 공개 행사 백동연죽전품

황영보, 대왕죽, 길이 80cm
Yeong-bo, Daewangjuk (King-size Bamboo Smoking pipe), length 80cm



born in 1932 ● Accreditation date : 5 July 1993 ● Crafting talents : Making of *Baekdong yeonjuk* (nickel smoking pipe) ● Profile : 1945 Apprenticed to his father regarding the making of *Yeonjuk* (smoking pipe) ● Awards : 1992 Encouragement Prize at the 17th Traditional Crafts Competition | 1986 Runner-up Prize at Jeonbuk Crafts Competition | 1984 Special Prize at Jeonbuk Crafts Competition | 1983 Three Prizes at the 8th Traditional Crafting Competition, etc. ● Major activities : 2002 exhibition in Bayview Park Hotel in Manila, the Philippines | 2001 Open event of *Baekdong yeonjuk* Exhibition



조교

황기조, 오동상감송학죽, 길이 79cm
Hwang Gi-jo, Black Copper Smoking Pipe
Inlaid with Pine and Crane Design, length
79cm

조교

추용근, 오동상감연죽담뱃대, 길이 39~91cm
Chu Yong-geun, Black Copper Smoking Pipes
with Inlaid Design, length 39~91cm



망건장 Manggeonjang

제66호 망건장 | 망건장은 망건을 만드는 기능이다. 망건은 갓을 쓰기 전에 머리카락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말총으로 엮어 만든 일종의 머리띠이다. 망건은 윗부분을 졸라매는 당(살춤), 아랫부분을 졸라매는 편자(선단), 그물처럼 얽혀 이마 부분을 감싸는 앞, 뒤통수를 싸매는 뒤로 구성된다. 이 밖에 계급을 표시하거나 장식하기 위해 관자와 풍잠을 메달기도 한다. 망건의 재료로는 말의 꼬리털이나 사람의 머리카락을 사용한다. 만드는 과정은 편자짜기에 앞, 뒤뜨기가 이어지며, 당을 걸고 망건을 삶아 부드럽게 한 다음 염색을 하고 조립해 완성한다. (1980년 11월 17일 지정)

Manggeonjang (Headband making) | *Manggeonjang* refers to the craft of making *manggeon*, a type of headband made with horsehair that was originally used to prevent one's hair from falling down. A *manggeon* is composed of a *dang* or *salchum*, which fastens the upper part, a *pyeonja* or *seondan* which fastens the sitting part, an *ap* to cover the forehead, and a *dwi* for fastening it at the back. Additionally, a *gwanya*, or small ring and a *pungjam*, or half-moon-shaped forehead ornament, were attached for decoration or for the indication of social status. The tail hair of a horse or human hair was used as material for the headband. Production began with the weaving of the *pyeonja*, followed by the weaving of the *ap* and *dwi*, the connecting of the *dang*, steaming and dyeing, and finally, the sewing together of all the constituent parts. (Designated Date : 17 November 1980)



중요무형문화재 제66호 망건장 보유자
이수여 Lee Su-yeo

1923년생 ● 인정일 : 1987년 1월 5일 ● 기예능 : 망건
● 경력 사항 : 1980 문정옥 선생께 사사 ● 포상 사항 :
1986 제11회 전승공예대전 입선 | 1980 전승공예대전 장
려상 ● 주요 활동 : 1987~현재 보유자 작품전 출품, 전통
공예 제작 과정 시연, 제주도 탐라문화제 참가 | 1986 제11
회 전승공예대전 출품 | 1980 제5회 전승공예대전 출품



이수여, 망건, 58×10cm Lee Su-yeo, Manggeon (Horsehair Head Band), 58×10cm

born in 1923 ● Accreditation date : 5 January 1987 ● Crafting talents : Manggeon (headband made
with horsehair) ● Awards : 1986 Runner-up Prize at the 11th Traditional Crafts Competition | 1980
Encouragement Prize at the Traditional Crafts Competition ● Major activities : 1987~Present
Presented works to exhibitions, demonstrated the process of making traditional crafts, and
participated in Jeju-do Tamna Cultural Festival | 1986 Presented works to the 11th Traditional Crafts
Competition | 1980 Presented works to the 5th Traditional Crafts Compet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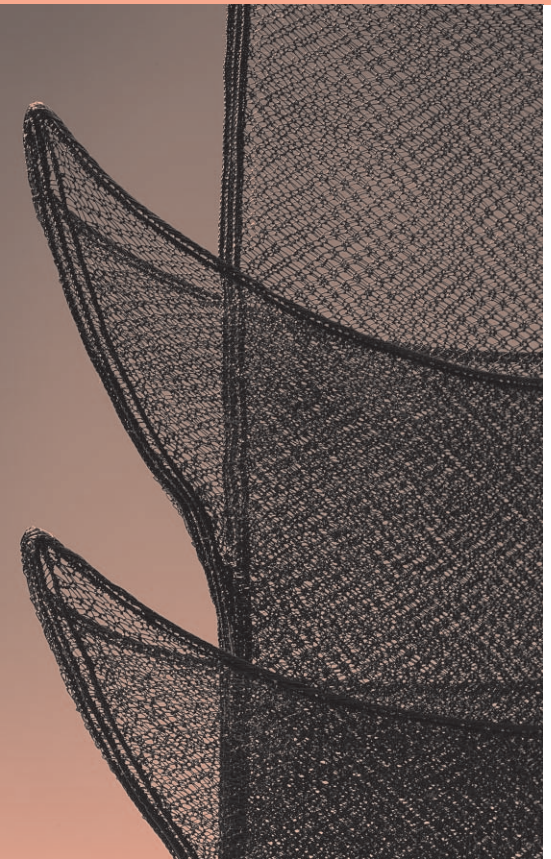


조교

강전향, 망건, 58×10cm
Kang Jeon-hyang, *Manggeon* (Horsehair Head Band), 58×10cm

조교

양진숙, 망건, 58×10cm
Yang Jin-suk, *Manggeon* (Horsehair Head Band), 58×10cm



탕건장 Tanggeonjang

제67호 탕건장 | 탕건장은 탕건을 만드는 기능이다. 탕건은 망건과 같이 남자들이 갓을 쓸 때 받쳐 쓰는 모자의 일종이다. 갓이 외출할 때 의관을 정제하는 데 필요한 것이라면 탕건은 집에서 간편하게 착용하는 것으로 “감투”라고도 한다. 벼슬에 오르는 것을 일컫는 “감투 쓴다”는 표현도 여기에서 유래했다. 탕건의 재료는 말총이나 쇠꼬리 털을 사용한다. 그 가운데에서도 제주도 조랑말의 말총이 가장 가늘고 질기며 부드럽고 매끈해 최고로 꼽혀, 탕건은 제주도에 가장 많이 만들어졌다. 탕건을 만들 때에는 탕건골에다 대고 절어 나가며, 저는 방법에 따라 홑탕건과 겹탕건, 무늬를 넣은 바둑탕건으로 구분된다. (1980년 11월 17일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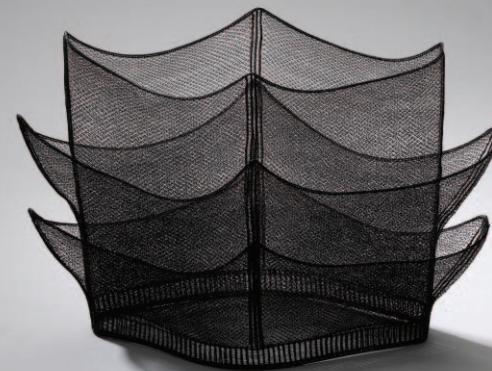
Tanggeonjang (Hat making) | *Tanggeonjang* refers to the craft of making *tanggeon*, a type of hat to be put on before the *gat*, and worn by men with formal attire for going out. *Tanggeonjang* refers to a master craftsman of *tanggeon*. *Gamtu* are usually made of a horse or cow's tail hair. Jeju Island was a major manufacturing area, since the quality of Jeju ponies' tail hair, which was fine but durable as well as soft and smooth, was regarded as the best. The hat is also known as a *gamtu*, which was worn when a man remained at home. The expression “Putting on a *gamtu*” refers to the attainment of a position in government. There are three types of *tanggeon*: *hottanggeon* (single folded hat), *gyeoptanggeon* (double folded hat) and *baduk tanggon* (cross-patterned hat). (Designated date : 17 November 19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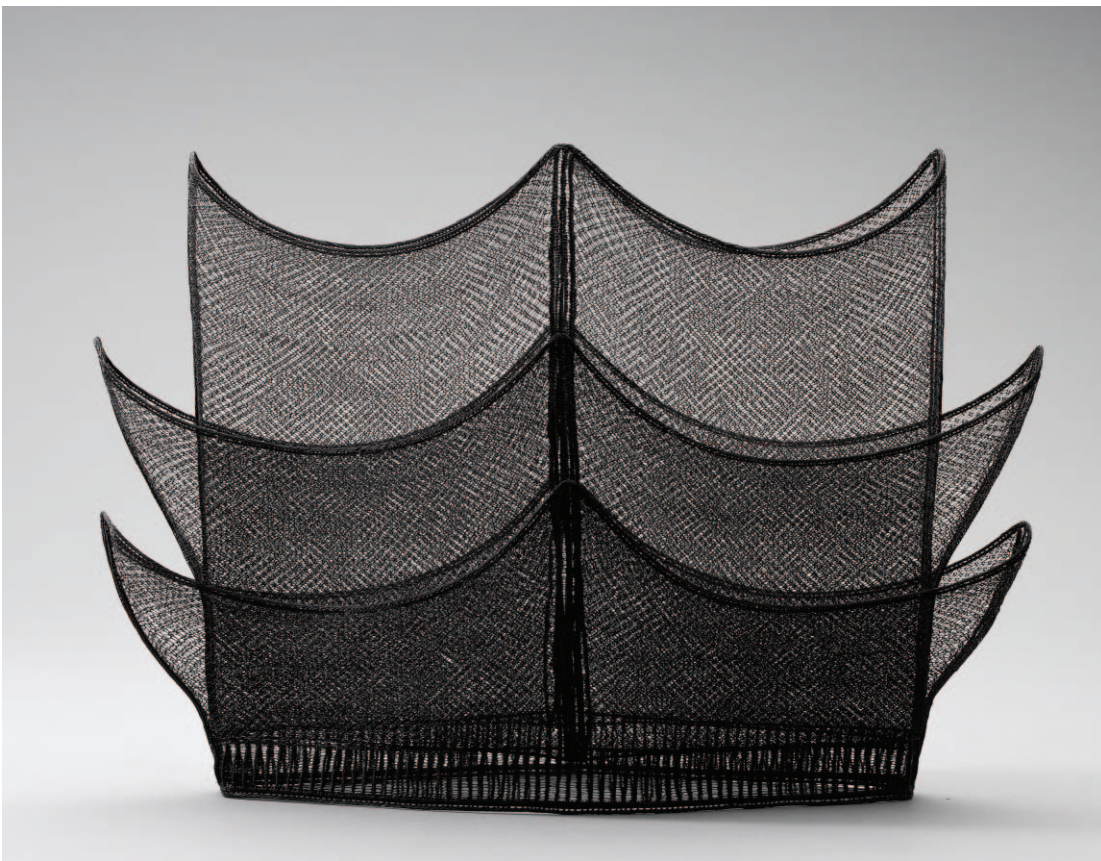
중요무형문화재 제67호 탕건장 보유자
김공춘 Kim Gong-chun

1919년생 ● 인정일 : 1980년 11월 17일 ● 기예능 : 탕건
● 경력 사항 : 1925 김수운 선생계 사사 ● 포상 사항 :
1982 한미수교 100주년 한국전승공예출품 감사패 | 1980
제5회 전승공예대전 입상 | 1975 제3회 육영수여사배 입
상 ● 주요 활동 : 1980~현재 보유자 작품전 출품

김공춘, 탕건, 21×17cm Kim Gong-chun, *Tanggeon* (Horsehair Indoor Hat), 21×17cm
김공춘, 정자판, 27×25cm Kim Gong-chun, *Jeongjagwan* (Scholar's Headgear), 27×25cm



born in 1919 ● Accreditation date : 17 November 1980 ● Crafting talents : *Tanggeon* (man's hat to be put on before the gat) ● Profile : 1925 Apprenticed to Kim Su-yun ● Awards : 1982 Plaque of Appreciation for works presented to Korea-USA 100th Anniversary of Diplomatic Ties Traditional Korean Crafts Exhibition | 1980 Prize at the 5th Traditional Crafts Competition | 1975 Prize at the 3rd Lady Yuk Yeong-su's Cup Competition ● Major activities : 1980~present Presented works to exhibitions



조교

김혜정, 정자관, 27×25cm
Kim Hye-jeong, *Jeongjagwan* (Scholar's
Headgear), 27×25cm



대목장 Daemokjang

제74호 대목장 | 대목장은 궁궐, 사찰, 군영 설 등 건축물을 짓는 일의 전 과정과 관련된 기능으로 도편수를 지칭하기도 한다. 외장·드잡이·석장·미장이·단청장 등과 함께 집의 완성까지 모든 책임을 지므로 오늘날의 건축가라고 할 수 있다. 대목장은 그 기술이 엄격히 전승되기 때문에 기문(技門)을 형성하게 된다. 기문은 기술로서 한 가문을 이루는 것을 일컫는데, 기문에서 대목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1982년 6월 1일 지정)

Daemokjang (Traditional wooden architecture) | *Daemokjang* refers to all of the work involved in building a house, while a *dopyeonsu* is a builder of palaces, temples and military barracks. In cooperation with other master craftsmen such as tilers, stone carvers, and painters, he is responsible for completing the construction of a house. Because the techniques behind *daemokjang* are transmitted according to strict regulations, a *ginun*, or entire family formed around a particular technique, is created. The role of the *daemokjang* in a particular *ginun* is very important. (Designated date : 1 June 1982)



유기장 Yugijang

제77호 유기장 | 유기장은 솟쇠로 각종 기물을 만드는 기능이다. 유기 종류는 제작 기법에 따라 방자와 주물, 반방자가 있다. 질이 가장 좋은 것으로 알려진 방자유기는 녹인 쇳물로 바둑알 같이 둥근 솟쇠덩어리를 만든 후 여러 명이 망치로 쳐 그릇의 형태로 만든 것이다. 방자로는 징이나 쟁파리, 식기 등을 만든다. 주물유기는 일명 '통쇠'라고 부르는데 쇳물을 틀에 부어 만드는 기법으로 안성유기가 가장 유명해 '안성맛춤'이란 말이 생겨날 정도이다. 반방자유기는 주물 기법과 방자 기법을 함께 사용하는 기술이다. (1983년 6월 1일 지정)

Yugijang (Brass wares making) | *Yugijang* refers to the art of making various types of brass ware, or the technician possessing the necessary skills. Depending on the manufacturing methods used, brass wares are divided into *bangja*, cast iron, and semi-*bangja*, of which *bangja* brass ware is of the highest quality. Brass wares are made as follows: a lump of brass is made from melted iron and then pounded into the shape of the vessel required by several smiths wielding hammers. *Bangja* is used for gongs, *kkaenggwari*, and tableware. Cast-iron brass ware is known as *tungsoe*, and is made by pouring melted iron into a frame. Semi-*bangja* brass ware is made by combining the methods used to make half cast-iron and half *bangja*. (Designated date : 1 June 1983)



중요무형문화재 제77호 유기장 보유자
이봉주 Lee Bong-ju

1926년생 ● 인정일 : 1983년 6월 1일 ● 기예능 : 방자
● 경력 사항 : 1999 조달청 문화 상품 조달물자 지정, 오사카 문화원에 제기·반상기 기증 | 1993 개인전 개최, 전시관 개장, 국립중앙박물관 개관 전시용 작품 기증 | 1993 특대징 제작 | 1991 『납청양대(방짜유기)』 저술 | 1988~95 사단법인 전통공예기능보존협회 이사장 | 1957 방자유기공장 설립 등 ● 주요 활동 : 2002 교토 전통공예 전시 《한국전통문화의 향기》전 등



이봉주, 대종교 제기, 26×20-30×19cm Lee Bong-ju, Daejonggyo Ritual Vessels, 26×20-30×19cm

born in 1926 ● Accreditation date : 1 June 1983 ● Crafting talents : *Bangja* (cast iron) ● Profile : 1999 His works designated as cultural products for Public Procurement Service, and presented ritual vessels and tableware to Osaka Culture Center | 1993 Held a solo show, opened an Exhibition Hall, and donated works for the opening of National Museum of Korea | 1993 Manufactured extra-large gongs | 1991 Wrote a book on crafting brassware | 1988~95 Chief Director of Traditional Crafts Skills Preservation Association | 1957 Established a brassware factory, etc. ● Major activities : 2002 Traditional “*Korean Culture Fragrance*” Exhibition for Kyoto Traditional Crafts Exhibition, etc.



중요무형문화재 제77호 유기장 보유자
한상춘 Han Sang-chun

1948년생 ● 인정일 : 1997년 3월 24일 ● 기예능 : 반방자 ● 포상 사항 : 1995 제20회 전승공예대전 입선 | 1992 제17회 전승공예대전 입선 | 1987 제12회 전승공예대전 입선 | 1985 제10회 전승공예대전 한국문화예술진흥원장상 | 1984 제9회 전승공예대전 장려상(한국문화예술진흥원장상) 등 ● 주요 활동 : 1997~현재 전남 무형문화재협회, 보성다향제 등에 작품 출품



한상춘, 제기, 20×27-7×5cm Han Sang-chun, Ritual Vessels, 20×27-7×5cm

born in 1948 ● Accreditation date : 24 March 1997 ● Crafting talents : Semi-*bangja* (the making of brassware by half cast iron and half *bangja* method) ● Awards : 1995 Runner-up Prize at the 20th Traditional Crafts Competition | 1992 Runner-up Prize at the 17th Traditional Crafts Competition | 1987 Runner-up Prize at 12th Traditional Crafts Competition | 1985 Korean Culture & Arts Foundation President's Prize at the 10th Traditional Crafts Competition | 1984 Encouragement Prize (Korean Culture & Arts Foundation President's Prize) at the 9th Traditional Crafts Competition, etc. ● Major activities : 1997~present Presented works to Jeonnam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Association | 1997~present Presented works to Boseong Dahyang Tea Festival, etc.



조교

이형근, 운라, 92×155cm
Yi Hyeong-geun, *Ulla* (Gongs), 92×155cm



조교

김수영, 제기, 7×4~23×7cm
Kim Su-yeong, *Ritual Vessels*, 7×4~23×7cm



입사장 Ipsajang

제78호 입사장 | 입사(入絲)란 금속 표면에 홈을 파고 금선(金線)이나 은선(銀線)을 끼워 넣어 장식하는 상감입사 기법을 말한다. 입사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금속 표면에 정 끝으로 가는 홈을 파고 그 안에 은선을 박아 넣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금속 바탕의 표면을 넓게 쪼고 그 위에 얇은 금판, 은판이나 선을 놓고 망치로 쳐서 붙이는 방법으로 조선 중기 이후에 나타나는 제작 기법이다. 입사에 이용되는 문양은 빗살무늬, 아(亞)자 무늬 등 기하학 무늬와 함께 조선 중기 이후부터는 사군자류의 회화적 문양을 새기기도 하였다. (1983년 6월 1일 지정)

Ipsajang (Silver wire inlaying) | *Ipsa* refers to a decorative technique used in metal craft whereby a thin groove is cut into the surface of the metal, into which a string of gold or silver thread is inserted. In general, two different techniques are used. The most traditional method, handed down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since the Goryeo period, consists of engraving a thin groove into the metal's surface using a chisel, and then inserting a silver thread. The other method, passed down since the mid Joseon era, consists of making a broad incision in the metal's surface with a chisel, and then fixing plates or threads of gold and silver onto it and hammering them. Geometric patterns such as the teeth of a comb are generally used for *ipsa*, and pictorial patterns such as the "four gracious plants" (plum, orchid, chrysanthemum and bamboo) have been engraved since the mid Joseon era. (Designated date : 1 June 1983)



중요무형문화재 제78호 입사장 보유자
홍정실 Hong Jeong-sil

1947년생 ● 인정일 : 1996년 3월 11일 ● 기예능 : 입사
● 경력 사항 : 2002~현재 전라북도 문화재위원회 위원 |
2000~현재 한국교육개발원 학점인정 심의위원회 위원 |
1998 대한민국 명장 심사위원 | 1995~현재 노동부 한국산
업인력관리공단 기능전승 전문위원 등 | 1985~ 현재 원광
대학교 미술대학 금속공예과 교수 ● 주요 활동 : 1983~
초대 개인전 9회 | 1982~국내외 초대 그룹전 100여 회 등

홍정실, 향그릇과 향함, (그릇) 10×7cm, (함) 25×11cm
Hong Jeong-sil, Incense Dish and Case, (case) 10×7cm (dish) 25×11cm



born in 1947 ● Accreditation date : 11 March 1996 ● Crafting talents : Ipsa (silver wire inlaying) ●
Profile : 2002~present A member of Cultural Properties Committee of North Jeolla Province |
2000~present A member of Credit Accreditation Screening Committee of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 1998 A member of Korean Maestros Screening Committee | 1995~present A
member of Skills Transfer Committee of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under the
auspices of the Ministry of Labor, etc. | 1985~present Professor at the Department of Metal Arts,
College of Fine Arts, Wonkwang University ● Major activities : 1983 Held nine invited solo
exhibitions | 1982 Held 100 times of domestic and overseas group exhibitions, etc.



조교

승경란, 은입사함, 30×20×15cm
Seung Gyeong-ran, Case Inlaid with Silver
Design, 30×20×15cm



자수장 Jasujang

제80호 자수장 | 자수장은 여러 색깔의 실을 바늘에 꿰어 바탕이 되는 천에 무늬를 수놓는 기능이다. 고려 시대에는 일반 백성의 의복에까지 자수 장식이 성행하였다. 조선 시대에 들어서는 궁수(宮繡 : 궁중에서 수방 나인이 정교하게 만든 자수)와 민수(民繡 : 민간에서 일반적으로 만든 수)로 크게 구분되는 뚜렷한 특징을 보이면서 발전하였다. 자수 기법에는 돛자리의 표면처럼 촘촘하게 엮는 자릿수, 땀새가 장단으로 교차되게 수놓는 자련수, 수면을 수평·수직·경사 방향으로 메워 가는 평수(平繡), 선을 잇는 이음수와 징검수, 매듭수, 사슬수 등이 있다. (1984년 10월 15일 지정)

Jasujang (Embroidery) | *Jasujang* refers to the art of creating a design on a piece of base fabric using needles and threads of various colors. During the Goryeo Dynasty, it was even used to decorate common people's clothes. Throughout the Joseon Dynasty, it was greatly developed as two distinct types: *gungsu*, a style of embroidery that was made by a chief master of the palace; and *minsu*, a type of embroidery that was made by the common people. Embroidery techniques are divided into *jarisu*, where fabric is plaited closely like a mat, *jaryeonsu*, involving crossed long and short stitches, *pyeongsu*, in which the fabric's surface is embroidered in a horizontal, vertical, and declined direction, and *ieumsu*, which consists of connecting lines, as well as *jinggeomsu*, *maedeupsu*, and *saseolsu*. (Designated date : 15 October 1984)



중요무형문화재 제80호 자수장 보유자
한상수 Han Sang-su

1935년생 ● 인정일 : 1984년 10월 15일 ● 기예능 : 자수
● 경력 사항 : 2001 대구섬유축제 자수기능대회 심사위원
장 | 1998 한국전통공예전 심사위원 | 1970~한국자수협회
이사 등 ● 포상 사항 : 1981 전승공예전 대통령상 수상 |
1979 인간문화재공예전 문공부장관상 등 ● 주요 활동 :
2003 《한상수 자수한평생》전 | 2002 미국 뉴욕 문화원 갤
러리, 교토 전통 공예 전시 등

한장수, 자수심장경10폭병풍, 47×216cm Han Sang-su, Ten-panel Folding Screen Embroidered with *Sippjangsaeng* (Ten Longevity Symbols) Design, 47×216cm



여기서부터 ~!

born in 1935 ● Accreditation date : 15 October 1984 ● Crafting talents : *Jasu* (embroidery) ● Profile : 2001 Chairman of Screening Committee for Daegu ● Textile Festival : Embroidery Skill Competition | 1998 A member of Screening Committee of Korean Traditional Crafts Competition | 1970 Executive of Korean Embroidery Association, etc. ● Awards : 1981 Presidential Prize at the Traditional Crafts Competition | 1979 Culture and Information Minister's Prize at the Human Cultural Properties Crafts Exhibition, etc. ● Major activities : 2003 Han Sang-su's Lifelong Embroidery Exhibition | 2002 Gallery of U.S. New York Culture Center, Kyoto Traditional Crafts Exhibition, etc.



중요무형문화재 제80호 자수장 보유자
최유현 Choi Yu-hyeon

1936년생 ● 인정일 : 1996년 12월 10일 ● 기예능 : 자수
● 경력 사항 : 1991 부산시 문화예술진흥위원 | 1966~2003 한국기능올림픽 자수 부문 심사위원, 심사장 등 ● 포상 사항 : 1990 부산시 문화상 수상 | 1989 성지상 문화교육대상 수상 | 1988 제13회 전승공예대전 대통령상 등 ● 주요 활동 : 1968~90 국내전 10회 | 1979~88 미국 뉴욕, LA, 일본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특별전 등

최유현, 이평도, 60×132cm
Choi Yu-hyeon, *Eomyeongdo* (Embroidery with Fishes and Weights), 60×132cm



born in 1936 ● Accreditation date : 10 December 1996 ● Crafting talents : *Jasu* (embroidery) ● Profile : 1991 A member of Busan Culture and Arts Promotion Committee | 1966~2003 A member and Chairman of Embroidery Screening Committee at Korean Skill Olympics, etc. ● Awards : 1990 Culture Prize of Busan | 1989 Sung Ji-sang Culture and Education Grand Prize | 1988 Presidential Prize at the 13th Traditional Crafts Competition, etc. ● Major activities : 1968~90 Ten times of domestic exhibitions | 1979~88 Special exhibitions in New York and Los Angeles, U.S.A.; Tokyo, Osaka, and Fukuoka, Japan, etc.



조교

김태자, 분경도병풍, 42×140cm
Kim Tae-ja, Folding Screen with Miniascape,
42×140cm



명주짜기

Myeongjujjagi

제87호 명주짜기 | 명주짜기는 명주를 짜는 기능이다. 명주는 누에고치에서 풀어낸 견사(絹紗)로 만든 직물로 일반적으로 '비단'이라고 하지만 실의 종류와 무늬에 따라 천의 종류도 다양하다. 명주는 뽕나무를 재배하고 누에를 치는 일부부터 시작된다. 누에고치를 끓인 물에 넣고 실 끝을 풀어 명주실을 만든다. 명주실을 날고 베메기로 날실에 풀을 먹여 도투마리에 감아 베틀에 올려 잉아실을 걸고 날실 끝을 말코에 매면 명주짜기 준비가 끝난다. 이제 베틀에 앉아 베틀신을 신고 앞뒤로 밀고 당기고 북 속의 씨실을 넣어 바디로 치면서 명주를 짠다. (1988년 4월 1일 지정)

Myeongjujjagi (Silk weaving) | *Myeongjujjagi* refers to the craft of weaving silk, while *myeongju* refers to a textile made from the silk thread acquired from silkworm cocoons. In general, the fabric made with silk thread is known as *bidan* in Korea. However, silk fabrics vary according to the types of silk threads, designs and methods used. *Myeongjujjagi* originated with the planting of mulberry trees and the rearing of silkworms. Silkworms are placed into boiling water and the thread is then extracted from them to make silk string. Preparation for *myeongjujjagi* is ready once the silk thread has been starched and rolled and threaded onto the warp beam of a loom. (Designated date : 1 April 1988)



조교

이규중, 명주, 1필 폭 36cm
Lee Gyu-jong, Silk, width 36cm



바디장 Badijang

제88호 바디장 | 베틀의 한 부분인 바디를 만드는 기능을 바디장이라고 한다. 바디는 대나무 껍질로 만드는데, 3~4년이 지난 대나무가 껍질이 단단하고 두터워 재료로 적합하다. 제작 과정은 바딤살 만드는 과정, 기등살(일명 날대) 만드는 과정, 마구리를 끼우는 과정, 그리고 갓을 붙이는 과정 등으로 나뉜다. 바디의 종류는 모시베, 명주베, 무명베, 삼베 등 옷감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같은 모시 베를 짜는 바디라 할지라도 바탕 울의 가늘고 굵기에 따라 9세에서부터 18세까지 모두 다르다. (1988년 8월 1일 지정)

Badijang (Loom for weaving hemp cloth) | *Badijang* refers to the art of making *badi*. *Badi*, the part of a loom that serves to weave hemp cloth, is made from the bark of a bamboo tree. Three to four-year old bamboo is suitable as a raw material because it is solid and thick. The manufacturing procedure is divided into: making a *badisal*, making a *gidungsal* (*naldae*), fitting the end pieces and attaching a *gat*. The types of *badi* differ according to the types of hemp cloth woven on them, such as ramie fabric hemp cloth and silk hemp cloth. When used to weave hemp cloth, a *badi* may have between nine and 18 strings depending on the thickness of the hemp. (Designated date : 1 August 1988)



침선장 Chimseonjang

제89호 침선장 | 바느질로 옷과 장신구 등을 만드는 기능을 침선장이라 한다. 침선에 필요한 용구로는 옷감, 바늘, 실, 실패, 골무, 가위, 자, 인두, 인두판 등이며, 옷감으로는 주로 비단, 무명, 모시, 마 등이 쓰인다. 실은 무명실을 많이 사용하며, 옷감의 재질, 색상, 두께 등에 따라 달라진다. 바느질 방법은 흠질, 박음질, 감침질, 상침질, 휘감치기, 사뜨기, 공그르기 등으로 옷의 부분에 따라 바느질법이 다양하다. 또 계절에 따라 여름에는 홀으로 솔기를 가늘게 바느질하고, 봄·가을에는 겹으로 바느질하며, 겨울에는 솜을 넣어 따뜻한 옷을 만든다. (1988년 8월 1일 지정)

Chimseonjang (Making clothes and ornaments) | *Chimseonjang* refers to the making of cloth and ornaments by needlework. The tools used in chimseon include cloth, a needle, thread, a spool, a thimble, scissors, a ruler, and a small heart-shaped iron with a long handle and its plate. Cloths such as silk, cotton, ramie fabric, and hemp are the most common materials, while cotton thread is mainly used and changed in accordance with the material, color and thickness of the cloth. The sewing techniques include basic hemming, broad stitching, back stitching, saddle stitching, round stitching, grooving, sewing, and hemming. Different sewing techniques were required for different parts of a cloth. Moreover, only one layer was sewn in summer, while two layers were sewn in spring and fall, and cotton was inserted into the cloth. (Designated date : 1 August 1988)



조교

구혜자, 치적의, 96×160cm

Gu Hye-ja, *Chijeogwui* (Red Pheasant Robe for Queen and the Crown Princess), 96×160cm



제와장 Jewajang

제91호 제와장 | 기와를 만드는 기능을 제와장이라 한다. 기와는 건축물의 지붕에 씌우는 건축 부재로 빗물이나 습기가 새어들거나 목재의 부식을 막는 동시에 건물의 경관을 돋보이게 하는 기능을 한다. 기와를 만드는 공정은 우선 찰진 진흙으로 된 점토를 물과 반죽하여 나무로 만든 틀에 넣는다. 틀의 외부에 마포나 무명천을 깔고 반죽한 진흙을 다져 점토 판 위에다 씌워 방망이 같은 판으로 두들겨 충분히 건조시킨다. 건조된 기와를 가마에서 1000도 이상의 높은 온도로 구워 완성한다. (1988년 8월 1일 지정)

Jewajang (Making earthenware roof tiles) | *Jewajang* refers to the art of making *giwa* or roofing tiles. Roofing tiles are used to cover over the roof of a structure in order to prevent rain from penetrating the building and the wood beneath the roof from eroding. At the same time, they offer an attractive appearance and enhance the decoration of the structure wonderfully. *Giwa* is made in the following manner: clay composed of mud and water is kneaded and poured it into a wooden frame; hemp or cotton cloth is spread over the outside of the frame, and the clay is left to harden, spread over a clay plate and beaten with a bat. It is then left to dry for some time, before baking it in a furnace at over 1000 degrees after cutting. (Designated date : 1 August 1988)



중요무형문화재 제91호 제와장 보유자
한형준 Han Hyeong-jun



1929년생 ● 인정일 : 1988년 8월 1일 ● 기예능 : 기와 제작 ● 경력 사항 : 1988~현재 보유자 작품전 출품 | 1946 전남 장흥의 안양토제와 공장장 | 1945 최길수 선생 계 제와일 전수 받음 | 1943 전남 보성군 보성읍 용문리 소재 제와장 근무 | 1940 전남 보성에서 기와일 시작



한형준, 기와, (왼쪽 암키와) 15×34cm (가운데 수키와) 24×40×21cm (오른쪽 암키와) 25×34cm
Han Hyeong-jun, Roof Tile, (left) 15×34cm (center) 24×40×21cm (right) 25×34cm

born in 1929 ● Accreditation date : 1 August 1988 ● Crafting talents : Making earthenware roof tiles ● Profile : 1988-present Presented works to exhibitions | 1946 Head of Anyang Earthenware Roof Tiles Factory in Jangheung, South Jeolla Province | 1945 Inherited the skill of making of roof tiles from the late Choi Gil-su | 1943 Worked at the roof tile making factory in Yongmun-ri, Boseong-eup, South Jeolla Province | 1940 Began the work of making roof tiles in Boseong, South Jeolla Province



전통장 Jeontongjang

제93호 전통장| 전통(箭筒)은 전쟁을 하거나 사냥을 할 때 화살을 담아두고 다니는 화살통으로 전통장이란 화살통을 만드는 기능을 말한다. 전통은 재료에 따라 대나무로 만든 죽전통, 종이로 만든 지전통, 오동나무로 만든 목전통, 상어 가죽으로 만든 교피전통 등이 있으며, 표면을 조각하거나 나전으로 장식한 화려한 것도 있다. 전통의 재료는 주로 2년 이상 된 맑은 녹색의 왕대나무를 쓰며, 그늘진 곳에서 2년 이상 보관했다가 사용한다. 내부의 마디를 제거하고 껍질에 문양 조각과 칠을 해 완성한다. (1989년 6월 15일 지정)

Jeontongjang (Making quivers) | A *jeontong* is a cylindrical quiver used for carrying arrows during battle or hunting. *Jeontongjang* refers to the skill of making such cases. Many different types of arrow case are made depending on the materials used, which include bamboo, paper, paulownia, and shark skin. The splendid decorations on the cases are made either by engraving or by applying mother-of-pearl. Large bamboo shoots over two-years old whose color is bright green are mainly used to make *jeontong*. The bamboo is stored for two years in a shaded area before craftsmen remove the inner gnarls, engrave patterns on its surface, and then paint it. (Designated date : 15 June 1989)



중요무형문화재 제93호 전통장 보유자
김동학 Kim Dong-hak



김동학, 족호랑이십장생문진동, 10×90cm Kim Dong-hak, Bamboo Jeontong (quivers) with Tiger and Sipjangaeng (Ten Longevity Symbols) design, 10×90cm



1931년생 ● 인정일 : 1989년 6월 15일 ● 기예능 : 전통장 ● 경력 사항 : 현재 한국무형문화재기능보존협회 이사장 | 1985 한국미협회원, 경북월성지부공예분과위원장 역임 | 1950 부친 김용묵에게서 전통 제작 기능 전수 등 ● 포상 사항 : 1987 제12회 전승공예대전 문공부 장관상 | 1983 제8회 전승공예대전 문공부 장관상 | 1982 제7회 전승공예전 장려상 등 ● 주요 활동 : 보유자 작품전 출품

born in 1931 ● Accreditation date : 15 June 1989 ● Crafting talents : Jeontongjang (making quivers) ● Profile : Currently, Chief Director of Korean Preservation of Intangible Cultural Assets Association | 1985 A Member of Korean Arts Association, Chairman of Crafts Division of Gyeongbuk Wolseong Chapter | 1950 Inherited the skill of making quivers from his father Kim Yong-muk, etc. ● Awards : 1987 Culture and Information Minister's Prize at the 12th Traditional Crafts Competition | 1983 Culture and Information Minister's Prize at the 8th Traditional Crafts Competition | 1982 Encouragement Prize at the 7th Traditional Crafts Competition, etc. ● Major activities : Presented works to exhibitions



옹기장 Onggija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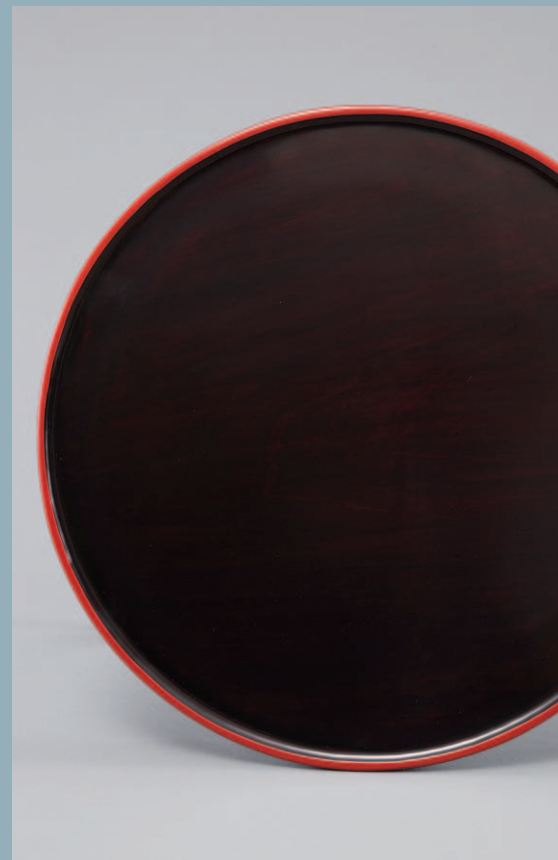
제96호 옹기장 | 옹기장은 독과 항아리 등을 만드는 기능을 말한다. 옹기의 성형 방법은 반죽한 점토를 길게 늘여 둥글게 쌓아 올리는 윤적법(輪積法)과 점토를 넓은 판으로 만들어 쌓아 올리는 권상법(卷上法)이 있다. 성형이 완성된 그릇은 그늘과 햇볕을 오가며 말리고 유약을 바른다. 유약이 마르기 전 몸통에 난초나 풀무늬를 그려내기도 한다. 한가마 분량의 날그릇이 모아지면 가마에 쌓고 불을 때 완성한다. (1990년 5월 8일 지정)

Onggijang (Making earthenware pottery) | *Onggijang* refers to the art of making pots and jars. Two methods are used to make *onggi: yunjeok*, whereby long strips of kneaded clay are arranged in layers to form a vessel; and *gwonsang*, by which the clay is shaped to make plates. After forming the clay, the vessels are alternately dried in a shady spot and a sunny place. Then, enamel is applied to the vessels and an orchid or grass pattern drawn on them before the enamel dries. Lastly, the vessels are baked in a kiln. (Designated date : 8 May 1990)



조교

이학수, 앵병, 21×45cm
Yi Hak-su, *Aengbyeong* (Brown Stoneware Bottle),
21×45cm



소반장 Sobanjang

제99호 소반장 | 소반장이란 소반을 만드는 기능이다. 소반이란 음식을 담은 그릇을 받치는 작은 상을 말한다. 소반의 종류는 지역·형태·용도에 따라 다양하며, 크게 해주반, 나주반, 통영반, 충주반, 강원반 등으로 구분된다. 해주반은 다리 부분에 투각 장식을 한 것이 특징이며, 나주반은 다리 중간을 가로 지른 대를 끼운 것이 특징이다. 통영반은 운각(雲脚) 장식 위주의 소반이다. 또한 다리 형태에 따라 경상도는 죽절형(竹節形: 대나무마디 모양), 전라도는 호족형(虎足形: 호랑이발 모양), 강원도·경기도는 구족형(狗足形: 개발 모양)으로 특징 지워진다. (1992년 11월 10일 지정)

Sobanjang (Portable dining tables) | *Sobanjang* refers to the craft of making soban, or miniature dinner tables. The many different types of soban vary according to their origin, shape and use. In terms of their origin, they are divided into the following categories: *Haejuban*, *Najuban*, *Tongyeongban*, *Chungjuban*, and *Gangwonban*. *Haejuban* displays decorative features that are made by making holes in, and gouging, the wooden legs, while *Najuban* is characterized by wooden rods that dovetail into legs, and *Tongyeongban* is distinguished by the cloud-shaped decorations carved into the legs. As regards the actual form of the table legs, those made in Gyeongsang-do exhibit bamboo-knot shapes, those made in Jeolla-do are shaped like tiger feet, and those made in Gangwon-do and Gyeonggi-do are shaped like the paws of a dog. (Designated Date : 10 November 1992)



중요무형문화재 제99호 소반장 보유자
이인세 Lee In-se

1928년생 ● 인정일 : 1992년 11월 10일 ● 기예능 : 소반 제작 ● 경력 사항 : 일본 칠공협회 회원, 한국무형문화재 기능보존협회 회원 ● 포상 사항 : 1990 제15회 전승공예대전 국무총리상 | 1989 제14회 전승공예대전 특별상 | 1988 제13회 전승공예대전 장려상 등 ● 주요 활동 : 1992~현재 보유자 작품전 출품 | 2002 교토 전통 공예 전시 《한국전통문화의 향기》전 출품 | 1980~1990 전승공예대전 출품

이인세, 구족반, 53×34cm Lee In-se, Gijokban (Portable Dining Table with Legs shaped like the paws of a dog), 53×34cm



born in 1928 ● Accreditation date : 10 November 1992 ● Crafting talents : Making of *Soban* (Portable Dining table) ● Profile : A member of Lacquering Association of Japan, a member of Korean Preservation of Intangible Cultural Assets Association ● Awards : 1990 Prime Minister's Prize at the 15th Traditional Crafts Competition | 1989 Special Prize at the 14th Traditional Crafts Competition | 1988 Encouragement Prize at the 13th Traditional Crafts Competition, etc. ● Major activities : 1992~present Presented works to exhibitions | 2002 Presented works to "Traditional Korean Culture Fragrance" Exhibition for Kyoto Traditional Crafts Exhibition, etc. | 1980~1990 Presented works to Traditional Crafts Competitions



옥장 Okjang

제100호 옥장 | 옥으로 여러 가지 기물이나 장신구를 제작하는 기능을 옥장이라 한다. 옥은 금·은과 함께 동양 문화권을 대표하는 보석이며, 사회 신분을 나타내는 장신구로도 이용되었다. 희고 부드러운 옥의 성질은 바로 끈기와 온유, 은은함, 인내 등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한국인의 정서와 맞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제작 과정을 살펴보면 채석—디자인—절단—성형—세부 조각(구멍뚫기, 홈파기 등)—광택의 과정을 거쳐 완성된다. 각 공정에 따라 절단 공구인 쇠톱, 구멍을 뚫는 활비비, 연마기인 갈이 틀 등의 여러 가지 도구가 사용된다. (1996년 2월 1일 지정)

Okjang (Jade craftsmanship) | *Okjang* refers to the art of making vessels and ornaments with jade. Along with gold and silver, jade is one of the most popular gems in Asia and was typically used to make ornaments that represented the wearer's social status. The white and soft nature of jade also represents the virtues of perseverance and patience, as well as metaphor. As such, it corresponds well with the typical sentiments of the Korean people. The manufacture of jade ornaments involves a complex process which includes stone cutting, design, cutting, forming, detail carving (boring holes and grooves), and polishing. Many tools, such as the hwalbibbi, an iron saw for boring holes, and the gariteul, a grinder, are used in this process. (Designated date : 1 February 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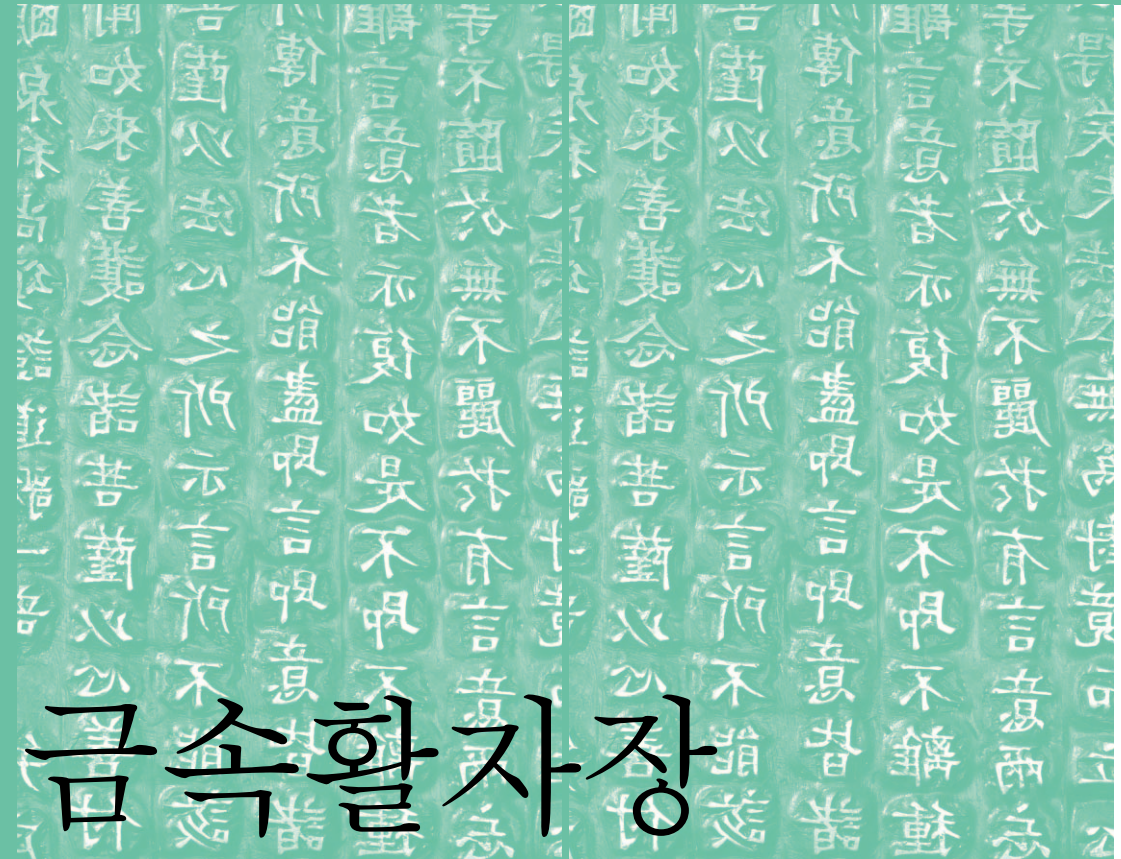
중요무형문화재 제100호 옥장 보유자
장주원 Jang Ju-won

1937년생 ● 인정일 : 1996년 2월 1일 ● 기예능 : 옥장
● 경력 사항 : 2000 한국전통문화학교 장학회 이사, 전승
공예대전 운영위원장 | 1999 동아인재대학 명예학장, 경기
대 석좌교수 | 한국중요무형문화재총연합회 이사장 등 ●
포상 사항 : 1988 성육문화상 예술대상 수상 | 1986 세계
대학총장회의 평화문화상 수상 등 ● 주요 활동 : 2001 미
국 롱아일랜드 대학교 힐우드 미술관 전시 | 2001 한국전
통공예특별전 중국 공예전시관 등

장주원, 백옥매화다리기, 6×4-20×12cm | 장주원, 백옥매화다리기, 6×4-20×12cm
(Apricot Tree) Motif, 6×4-20×12cm



born in 1937 ● Accreditation date : 1 February 1996 ● Crafting talents : *Okjang* (jade
craftsmanship) ● Profile : 2000 Executive of the Korean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scholarship association), Chairman of Steering Committee of Traditional Crafts Competition | 1999
Honorary President of Dong-A College, Chair-Professor at Kyonggi University, Chief Director of
Korean Federation of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Associations, etc. ● Awards : 1988
Arts Grand Prize of Seongok Culture Awards | 1986 Peace and Culture Prize from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University Presidents, etc. ● Major activities : 2001 Participated in an exhibition at
the Hillwood Art Museum of Long Island University, New York | 2001 Special Exhibition for
Traditional Korean Crafts at the Crafts Exhibition Hall in China, etc.



금속활자장

Geumsok hwaljajang

조교

장석, 연적과 인주함, (앞) 9×7×4cm (뒤) 10×6×6cm

Jang Seok, Water Dropper and Seal Ink Case, (front) 9×7×4cm (back) 10×6×6cm

제101호 금속활자장 | 금속활자장은 금속 주조 기술을 이용해 인쇄용 활자를 제작하는 기능이다. 금속활자 인쇄 기술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고려 시대에 창안된 것이다. 금속 활자 제작 과정은 글자본 만들기, 원형 만들기, 주조 작업, 마무리 작업 등 크게 4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 주조 기법에 따라 활자 하나하나를 밀랍으로 만드는 밀랍 주조 기법과 주물 모래로 틀을 만드는 주물사 주조 기법이 있다. 금속활자는 여러 가지 기술이 결합된 것으로 우리나라 전통 공예 기술의 우수성과 과학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종목이다. (1996년 2월 1일 지정)

Geumsok hwaljajang (Movable metal type) | *Geumsok hwaljajang* refers to the techniques used to make the metal types required for the printing and publication of books. The world's oldest metal types were invented in Korea during the Goryeo Dynasty. Metal types were produced using the casting method, a process divided into four parts: arranging the basic letter style, making a prototype, making castings, and finishing. This traditional industrial art displays the cultural excellence of the Korean people. (Designated date : 1 February 1996)



중요무형문화재 제101호 금속활자장 보유자
오국진 Oh Guk-jin

1944년생 ● 인정일 : 1996년 2월 1일 ● 기예능 : 금속활자 제작 ● 경력 사항 : 1996 한국서가협회 초대작가 | 1984 충북미술대전 초대작가 ● 포상 사항 : 1994 '석가탑다라니경' 간행 연대 규명 | 1993 '계미자', '경자자', '갑인자' 복원 (청주 고인쇄 박물관 전시) | 1993 한글 최초 금속활자 '월인천강지곡' 복원 및 구주법 규명 | 1992 석가탑 '무구정광대다라니경' 복원



오국진, 증도가(남명친화상증도가), 80×51cm
O Guk-jin, "Eulogies of Priest Nammyeongcheon on the Ode of Meditation", 80×51cm

born in 1944 ● Accreditation date : 1 February 1996 ● Crafting talents : Making of *Geumsok hwalja* (movable metal type) ● Profile : 1996 Artist invited by Korean Seoga Calligraphy Association | 1984 Artist invited to Chungbuk Fine Arts Exhibition ● Awards : 1988 Olympic Craftsman Culture Prize ● Major activities : 1994 Defined the publication year of the Dharani Scripture of Seokga Pagoda | 1993 Restored *Gyemija*, *Gyeongjaja*, and *Gapinja* movable types (exhibited at Cheongju Early Printing Museum) | 1993 Restored Wolincheongangjigok, the first book to be printed in Korean alphabet metal types, and defined method | 1992 Restored the Mugujeonggwang Daedharani Scripture of Seokga Pagoda



조교

임인호,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 54×27cm
 Im In-ho, "Anthology of Zen Teachings by Great Buddhist Priests", 54×27cm



배첩장 Baecheopjang

제102호 배첩장 | 배첩장이란 글씨나 그림에 종이, 비단 등을 붙여 족자·액자·병풍 등을 만들어 아름다움은 물론 실용성, 보존성을 높이는 전통적인 서화 처리법을 말한다. 배첩장은 조선 전기 국가 기관인 도화서 소속으로 궁중의 서화 처리를 맡았다. 배첩은 액자, 병풍, 족자, 표지나 속지가 손상된 고서를 처리하는 장정(裝幀) 및 고서화 처리로 나눌 수 있다. 족자의 작업 과정은 초배, 재배, 삼배로 3번의 배접지를 붙이고 건조시킨 뒤 축목(軸木)과 반달목을 부착하여 완성한다. (1996년 3월 11일 지정)

Baecheopjang (Preserving a painting or calligraphy) | *Baecheopjang* refers to the art of *baecheop*, a technique of preserving a painting or calligraphic work by adhering a sheet of paper or silk to its back to make it into a scroll, frame or folding screen. The technique enhances the beauty and practical quality of a work as well as preserving it. The production technique itself varies in accordance with the five distinct types of work to which it is being applied: frames, folding screens, scrolls, cover designing and antique document processing. The manufacturing process for hanging pictures is as follows: Attach folding paper three times (*chobae*, *jaebae*, and *sambae*) and put on *chukmok* and *bandalmok* after drying it. (Designated date : 11 March 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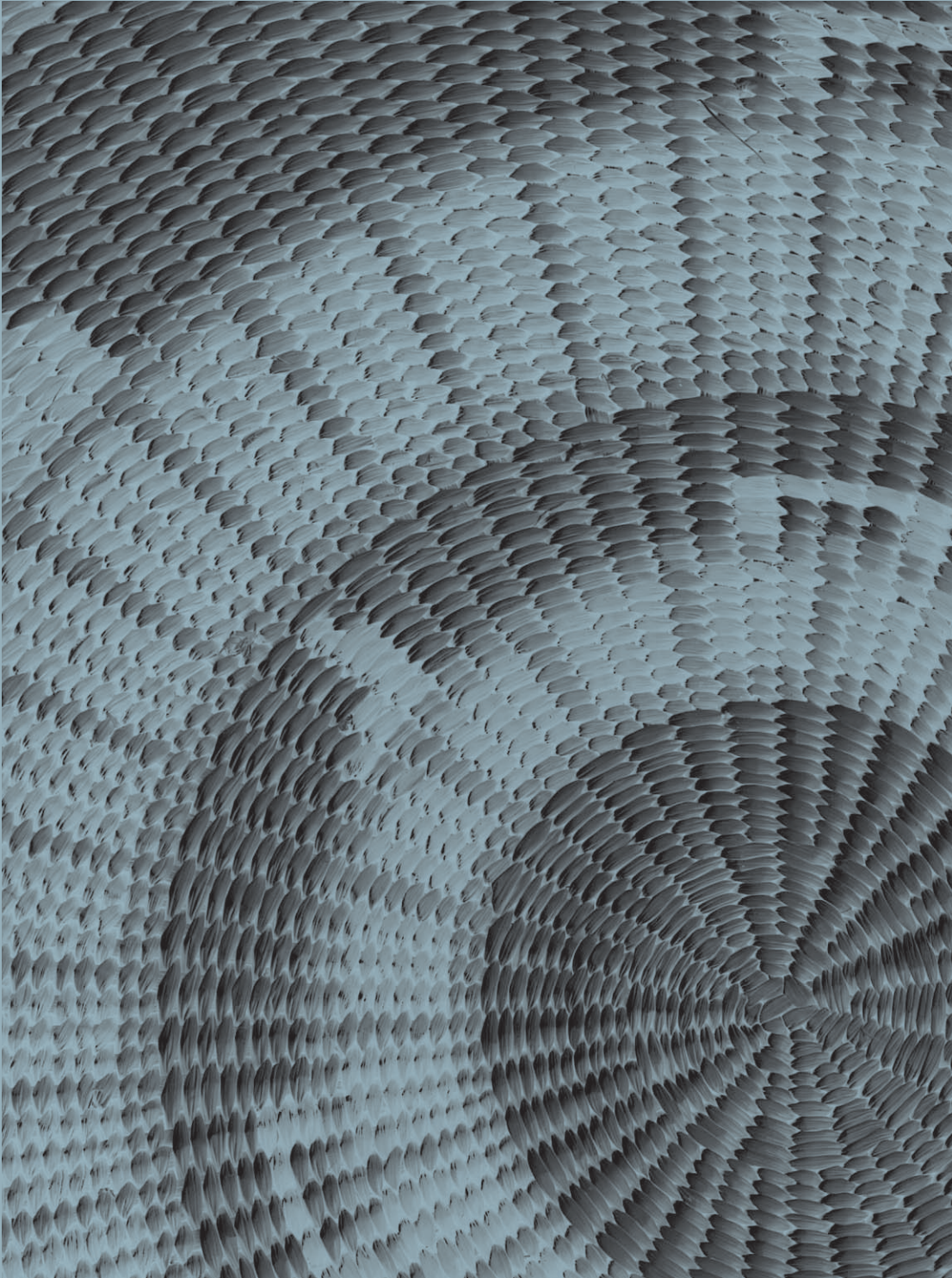
중요무형문화재 제102호 배첩장 보유자
김표영 Kim Pyo-yeong

1925년생 ● 인정일 : 1996년 3월 11일 ● 기예능 : 배첩
● 경력 사항 : 현재 국가 지정 주요 문화재의 보수 보존 처
리 | 1938 청주 윤병세표구사에 입사 ● 주요 활동 :
1996~현재 보유자작품전 출품



김표영, 난초도 록자, 49×145cm Kim Pyo-yeong, Scroll with Orchid Painting, 49×145cm

born in 1925 ● Accreditation date : 11 March 1996 ● Crafting talents : *Baecheop* (preserving paintings and calligraphy) ● Profile : Currently, performs the treatment of repairing and preserving the nation's important designated cultural properties | 1938 Joined Cheongju Yoon Byeong-se Picture Mounting Firm ● Major activities : 1996~present Presented works to exhibitions



완초장 Wanchojang

제103호 완초장 | 완초장이란 왕골로 돛자리, 방석, 합 등 여러 가지 생활 용품을 만드는 기능이다. 왕골은 논 또는 습지에서 자라는 1~2년생 풀로 키는 60~200cm에 이르며 완초, 용수초, 식용초라고도 한다. 제작방법으로는 날줄이 겉으로 드러나 보이게 성글게 짜는 방법과 날줄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촘촘히 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왕골은 특별한 도구 없이도 다양한 기물을 제작할 수 있는 좋은 소재이며, 생활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친근한 소재였으며, 조선 시대에는 외국과의 교역품으로 채택될 만큼 귀한 공예품이었다. (1996년 5월 1일 지정)

Wanchojang (Sedge work) | *Wanchojang* refers to the craft of making receptacles with sedge, a rush-like plant with a one- or two-year life span that is grown in rice paddies and swampy ground. It grows to between 60~200mm in height and is called *wancho*, *yongsucho*, and *seokryongcho*. Two methods are used: weaving closely and sparsely. It was easy to get sedge at that time and, in addition, the products made with sedge were important items for trade with foreign countries. (Designated date : 1 May 1996)



중요무형문화재 제103호 완초장 보유자
이상재 Lee Sang-jae



1943년생 ● 인정일 : 1996년 5월 1일 ● 기예능 : 완초장
● 경력 사항 : 1999~2003 인천시경진대회, 강화공예품경진대회, 화문석디자인 공모전 등의 각종 심사위원 ● 포상 사항 : 1995 제25회 전국공예품경진대회 장려상 | 1994 제24회 전국공예품경진대회 특선, 제24회 경기도공예품경진대회 특선 등 ● 주요 활동 : 1996~현재 보유자 작품전 출품 및 전수 교육 활동 | 1995 제25회 인천공예품경진대회 출품 등

이상재, 대광주라(거북무늬함), 28×10cm Lee Sang-jae, Daegwangjura (Bamboo Chest with Tortoiseshell Design), 28×10cm



born in 1943 ● Accreditation date : 1 May 1996 ● Crafting talents : Wanchojang (sedge work) ● Profile : 1999~2003 A screening member in Incheon City Competition, Ganghwa Crafts Competition, Floral Design Competition, etc. ● Awards : 1995 Encouragement Prize at the 25th Nationwide Crafts Competition | 1994 Special Prize at 24th Nationwide Crafts Competition | 1994 Special Prize at the 24th Gyeonggi-do Crafts Competition, etc. ● Major activities : 1996~present Presented works to exhibitions and offered skill transfer education | 1995 Presented works to the 25th Incheon Crafts Competition, etc.



조교

양인숙, 단합, 21×9.5cm
Yang In-suk, Rush Woven Basket with Lid, 21
×9.5cm

조교

유선옥, 팔각단합, 19×9cm
Yu Seon-ok, Octagonal Rush Woven Basket
with Lid, 19×9cm



사기장 Sagijang

제105호 사기장 | 사기장은 도자기를 만드는 기능이다. 도자기는 구워내는 온도에 따라 토기(土器), 도기(陶器), 자기(瓷器)로 나뉜다. 사기장은 조선 시대 사옹원(司饔院)에서 사기를 제작하는 장인들을 일컫던 말에서 유래하였다. 사기를 제작하려면 우선 모래흙(사토)에 물을 넣어 이물질 제거하는 수비 과정을 거친다. 수비 과정을 거친 순수한 흙을 '질'이라고 하는데 이것으로 그릇의 형태를 만드는 물레 작업을 한다. 성형한 그릇을 잘 건조한 다음 가마에 넣고 초벌 구이한 뒤 유약을 발라 다시 굽는 재벌구이를 거쳐 완성한다. (1996년 7월 1일 지정)

Sagijang (Ceramic art) | *Sagijang* refers to the art of making *sagi* or porcelain goods. Ceramic wares may be classified as earthenware, chinaware, and porcelain according to the temperature at which the pottery is baked. A *sagi* is the container in which white soil is mixed and then baked at a high temperature. After baking, an item of ceramic ware is enameled and then baked again. (Designated date : 1 July 1996)



중요무형문화재 제105호 사기장 보유자
김정옥 Kim Jeong-ok

1942년생 ● 인정일 : 1996년 7월 1일 ● 기예능 : 민속 사기 제작 ● 경력 사항 : 2002~현재 대한민국 무형문화재 보존협회 부이사장 | 2002 대한민국기능경기대회 심사위원, 전승공예대전 심사위원 등 | 1999 경북대학 명예교수 등 ● 포상 사항 : 2002 민족예술대상 수상 | 1991 도예 부문 명장 선정 등 ● 주요 활동 : 2001 공개 행사 '민속사기전' 조선일보 미술관, 미국 롱아일랜드 대학 힐우드 미술관 《동방의 빛》 전시회 참가 등



김정옥, 백자 달항아리, 19(입지름)×40(높이)cm
Kim Jeong-ok, White Porcelain Moon Jar, 19(top)×40(height)cm

born in 1942 ● Accreditation date : 1 July 1996 ● Crafting talents : Making of *Minsoksagi* (traditional folk ceramics) ● Profile : 2002~present Vice Chief Director of KPICAA | 2002 A screening member for Korean Skills Competition, Traditional Crafts Competition, etc. | 1999 Honorary Professor at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etc. ● Awards : 2002 National Arts Grand Prize | 1991 Selected as a maestro in the ceramics category, etc. ● Major activities : 2001 Open-event Traditional Folk Ceramics Exhibition at Chosun Ilbo's Art Museum, Participated in the Exhibition of "Tradition in the Land of the Morning Calm: Treasures from the Kyonggi University Collection" at the Hillwood Museum of Long Island University in the U.S.A., etc.



각자장 Gakjajang

제106호 각자장 | 각자장은 나무판에 글자나 그림을 새기는 기능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오래된 목판본은 신라 경덕왕 10년(751)에 만든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다. 목판 인쇄에 사용되는 책판은 대추나무, 배나무, 가래나무, 박달나무, 자작나무 등이다. 대추나무는 단단하고 벌레가 잘 먹지 않으며, 배나무는 연하고 칼질하기가 쉽고 매끈하다. 각자를 제작하려면 먼저 나무결을 삭히는 연판(鍊板) 과정을 거치는데 바닷물에 수년 동안 담가 진을 빼 삭히는 것이다. 그 다음 그늘에서 말린 뒤 글자나 그림을 새기는 것이다. (1996년 11월 1일 지정)

Gakjajang (Calligraphic engraving) | *Gakjajang* refers to the skill of engraving letter or pictures onto wood plates. The oldest wood plate to have been discovered so far is the *Mugujeonggwang daedaranigyeong*, which was made in the 10th year of the reign of King Gyeongduk of Silla(751). The bookplates used for wood plate printing are made from jujube, pear, wild walnut, birch, and white birch trees. In terms of their specific qualities, jujube in particular is solid and not susceptible to eating by worms, while pear trees are soft, smooth and easy to carve. During the manufacturing process, the trees are immersed in seawater for several years, the resin is removed, and the wood is dried in a shaded place before any *gakja* carving is carried out. (Designated date : 1 November 1996)



중요무형문화재 제106호 각자장 보유자
오옥진 Oh Ok-jin

1935년생 ● 인정일 : 1996년 11월 1일 ● 기예능 : 각자
● 경력 사항 : 1978~오옥진 서각연구실 개설 | 1970 신학
균 선생께 사사 ● 포상 사항 : 1985 한글학회 공로 표창 |
1980 국민훈장 석류장 | 1958 해군참모총장상 수상 | 1953
대통령상 ● 주요 활동 : 2003 《철재오옥진각서전》 등

오옥진, 무릉도원(武陵桃源), 70×61cm Oh Ok-jin, letters for "Mureung Peach Blossom Paradise",
70×61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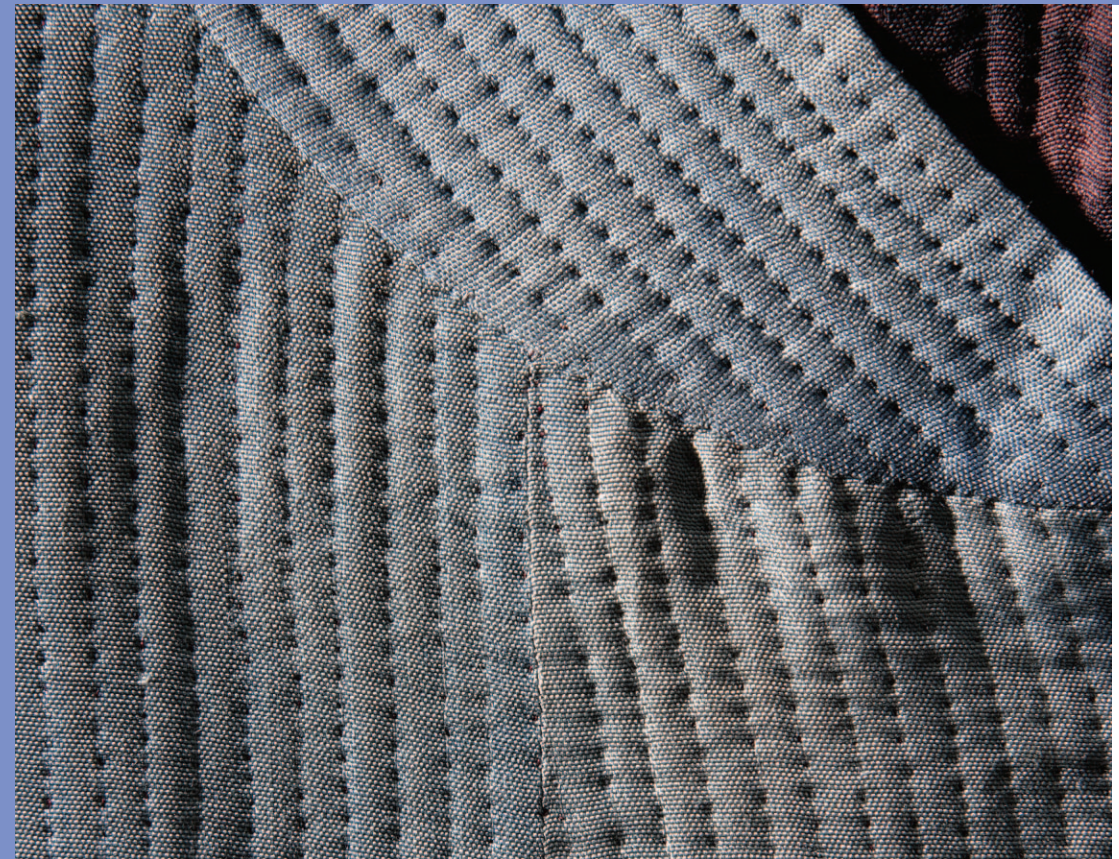


born in 1935 ● Accreditation date : 1 November 1996 ● Crafting talents : Gakja (calligraphic
engraving) ● Profile : 1978 Opened Oh Ok-jin Calligraphic Engraving Research Center | 1970
Apprenticed to Shin Hak-gyun ● Awards : 1985 Citation of Meritorious Services from Hangeul
Hakhoe | 1980 National Merit Medal (Seokryujang) | 1958 Navy Chief of Staff's Prize | 1953
Presidential Prize ● Major activities : 2003 Cheoljae Oh Ok-jin Engraving Calligraphy Exhibition, etc



조교

김각한, 구(龜), 80×51cm
Kim Gak-han, a letter for "Turtle", 80×51cm



누비장 Nubijang

제107호 누비장 | 누비장은 누비옷을 만드는 기능이다. 누비는 옷감의 보온과 보장을 위해 겹감과 안감 사이에 솜, 털, 종이 등을 넣거나 또는 아무것도 넣지 않고 흠질해 지은 옷을 말한다. 누비는 승려들이 해진 옷을 기워서 입던 납의(衲衣)에서 유래하였으며 방한과 내구성, 실용성이 뛰어나 크게 발달한 바느질법이다. 누비는 누비 간격이나 바느질 땀수에 따라 세누비, 잔누비, 중누비 등으로 나뉘며, 형태에 따라 오목누비, 볼록누비, 납작누비로 구분된다. 전통 손누비는 정교함과 예술성이 뛰어나며 완성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1996년 12월 10일 지정)

Nubijang (Quilting) | *Nubijang* is the skill of attaching the inner and outer layers of a cloth together by stitching them at regular intervals with the insertion of a material in between the layers, including cotton, fur or paper padding. *Nubi* originated from *nabui*, monk's stitched old cloth, and highly renowned for its durability and practicability. *Nubi* is divided into *senubi*, *jannubi*, and *jungnubi* according to gap of *nubi* or stitching number, and *omoknubi*, *bolroknubi*, and *napjaknubi* according to type. Traditional *sonnubi* is an excellent craft that requires much time and work to complete. (Designated date : 10 December 1996)



중요무형문화재 제107호 누비장 보유자
김해자 Kim Hae-ja

1953년생 ● 인정일 : 1996년 12월 10일 ● 기예능 : 누비
● 경력 사항 : 2000 대구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한복디자인 연구 과정 외래강사 | 1999 성균관대학교 궁중복식연구원 지도 교수 | 1998 부산대학교 사회교육원 외래강사 등
● 포상 사항 : 1992 제17회 전승공예대전 국무총리상 ●
주요 활동 : 2003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기획 전시 | 2002 일본 NHK 초대전 | 2000 공평아트센터 개인전



born in 1953 ● Accreditation date : 10 December 1996 ● Crafting talents : *Nubi* (quilting) ● Profile : 2000 External instructor at Korean Dress Research Course, Graduate School of Industrial Information, Daegu University | 1999 Professor for Korea Royal Costume Research Institute, Sungkyunkwan University | 1998 External instructor at Social Education Center, Pusan National University, etc ● Awards : 1992 Prime Minister's Prize at the 17th Traditional Crafts Competition ● Major activities : 2003 Programmed exhibition for Gyeongju World Culture EXPO | 2002 Exhibition at the invitation of NHK of Japan | 2000 Solo exhibition at Gongpyeong Art Center



목조각장

Mokjogakjang

제108호 목조각장 | 목조각장은 목재를 소재로 각종 기물을 조각하는 기능이다. 목조각의 재료로는 결이 아름답고 견실한 오동나무, 소나무, 전나무, 은행나무, 느티나무, 회화나무 등이 많이 사용된다. 목조각의 제작과정은 먼저 잘 건조된 목재 위에 밑그림을 그린 뒤 목재의 필요 없는 부분을 쳐내는데 이것을 '건목'이라고 한다. 건목으로 대충의 형태가 드러나면 속심을 걷어내는데 이것은 건조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갈라짐을 방지하고, 종교적으로는 복장품을 넣을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세부 조각을 한 뒤 옷칠과 채색하여 완성한다. (1996년 12월 31일 지정)

Mokjogakjang (Wood sculpture) | *Mokjogakjang* refers to the skill of engraving on wood with various utensils. Favored woodcarving materials include the paulownia, pine, fir, ginkgo, zelkova, and locust trees, all of which have beautiful grains. The manufacturing process is as follows: first, a rough sketch is drawn on the wood and any unnecessary parts are removed. This practice is known as *geotmok*. When the wood get its rough form, remove the heart. This is done to prevent splitting during the process of drying and prepare space for wooden material. After engraving the details, the wood is painted with lacquer and completed. (Designated date : 31 December 1996)



중요무형문화재 제108호 목조각장 보유자
박찬수 Park Chan-su

1949년생 ● 인정일 : 1996년 12월 31일 ● 기예능 : 목조각 ● 경력 사항 : 2003 포천중문의과대학 대체의학대학원 외래교수 | 2003 목아전통예술학교 설립 | 2000~현재 한국 박물관협회 이사 등 ● 포상 사항 : 2002 만해상 수상-만해사상실천선양회 | 2001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수상 등 | 1989 제 14회 전승공예대전 대통령상 수상 ● 주요 활동 : 2003 일본 나고야 야외민속박물관 《목아 박찬수 특별전》 등



박찬수, 기북이동자, 26×20×50cm Park Chan-su, "Tortoise and Child", 26×20×50cm

born in 1949 ● Accreditation date : 31 December 1996 ● Crafting talents : Mokjogak (wooden sculpture) ● Profile : 2003 External Professor at Graduate School of Alternative Medicine, Pocheon Jungmun Medical College | 2003 Established Moka Traditional Arts School | 2000~present Executive of the Korean Museum Association, etc. ● Awards : 2002 Manhae Prize (Manhae Thought Practice Promotion Association) | 2001 Korean Culture and Arts Prize, etc | 1989 Presidential Prize at the 14th Traditional Crafts Competition ● Major activities : 2003 Moka Park Chan-su Special Exhibition at Nagoya Outdoor Folk Museum of Japan, etc.



화각장 Hwagakjang

제109호 화각장 | 화각(華角)이란 쇠뿔을 얇게 갈아 투명하게 만든 판을 말하며, 이러한 화각을 이용해 공예품을 만드는 기능을 화각장이라 한다. 화각 공예는 재료가 귀하고 공정이 까다로워 나전칠기와 함께 주로 귀족이나 왕실의 애장품에 주로 이용되었다. 화각 공예는 쇠뿔을 종이처럼 얇게 한 다음 뒷면에 안료로 문양을 그리고 채색하여 여러 가지 기물의 표면에 붙이고 옷칠을 해 완성한다. 화각 공예는 장·문갑 등과 같은 가구류와 예물함이나 만진고리 등의 생활용품 제작에 이용된 전통 공예 기술이다. (1996년 12월 31일 지정)

Hwagakjang (Ox horn inlaying) | *Hwagakjang* refers to the craft of making objects with *hwagak*, a transparent plate made by grinding ox horn. *Hwagak* works were favored by noblemen and the palace together with *najeonchilgi* because the material's rarity and the difficulty of processing it contributed to its value. An ox horn vessel would be crafted as thin as paper, and a pattern drawn on the back of it. Such items were also colored and painted with lacquer. *Hwagak* is a traditional craft technique used for furniture such as wardrobes and chests. (Designated date : 31 December 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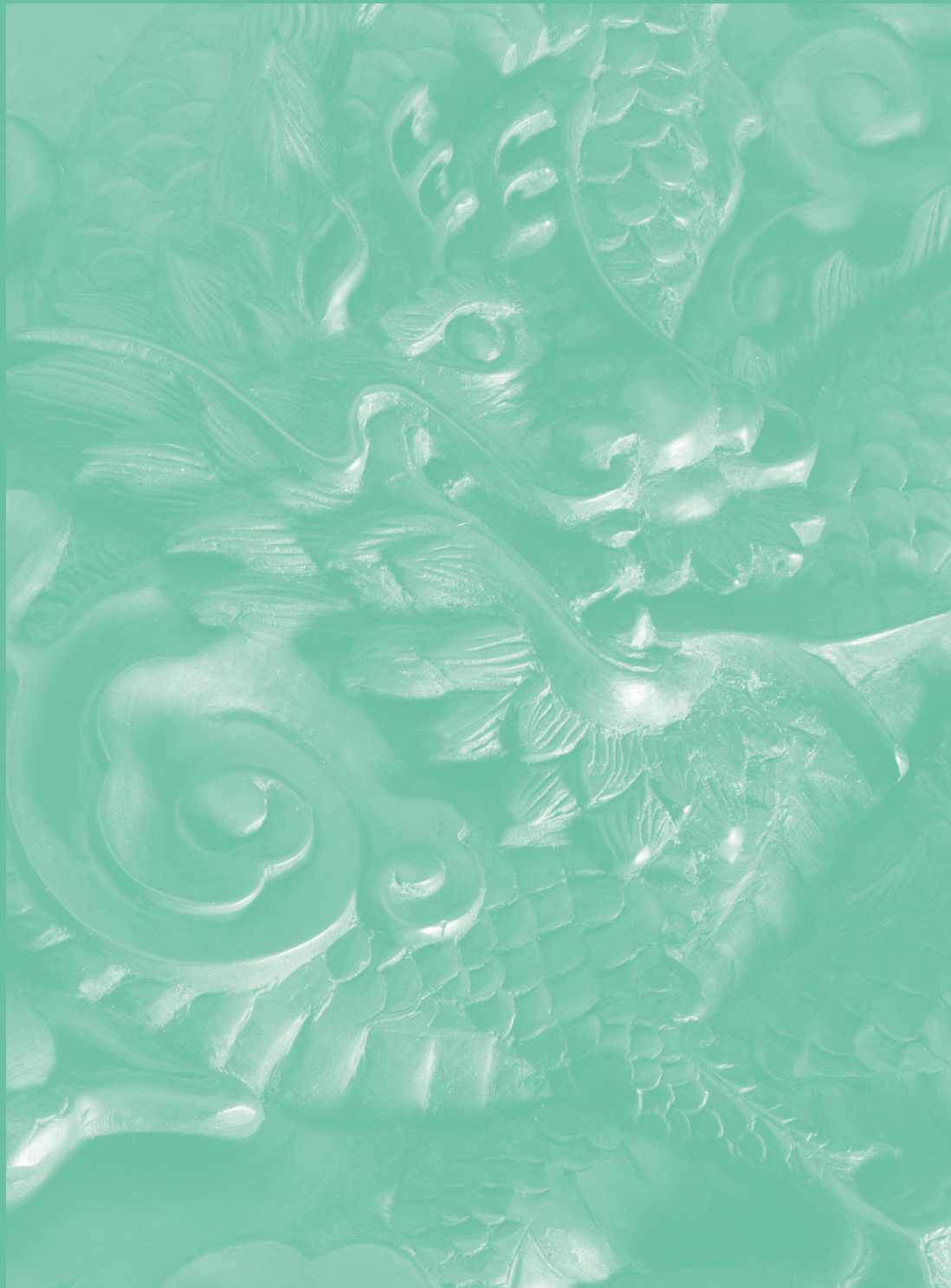
중요무형문화재 제109호 화각장 보유자
이재만 Lee Jae-man

1953년생 ● 인정일 : 1996년 12월 31일 ● 기예능 : 화각
● 경력 사항 : 1994 한국전통공예건축학교 화각반 강사 |
1993 일본 다카시마야 한국전통공예대전 출품 등 ● 포상
사항 : 1996 제21회 전승공예대전 문화체육부장관상 수상
| 1993 제18회 전승공예대전 문화체육부장관상 수상 등
● 주요 활동 : 2002 교토 전통공예 전시 《한국전통문화의
향기》전 출품 | 2001 《한국전통공예특별전》 중국 공예전
시관 | 1997 IPU 서울 총회 기념전



이재만, 화각문갑, 81×36×33cm
Lee Jae-man, Stationary Chest with Ox-horn Design, 81×36×33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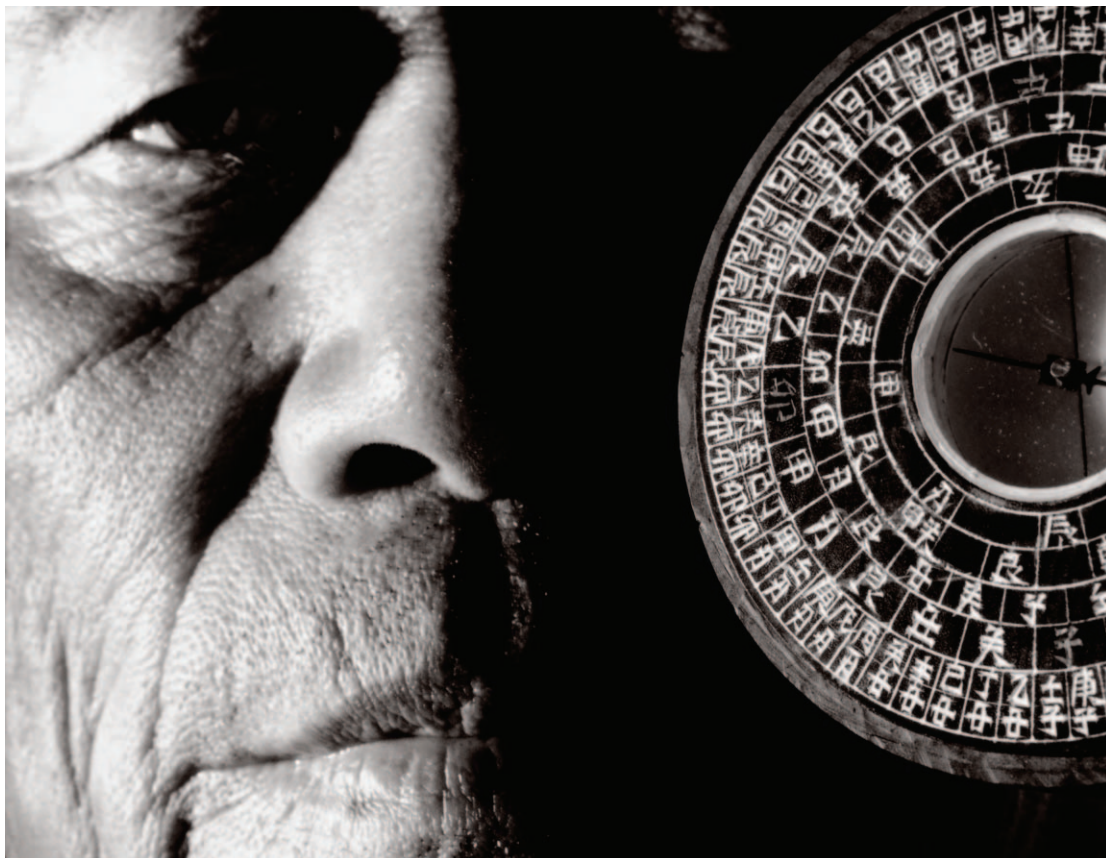
born in 1953 ● Accreditation date : 31 December 1996 ● Crafting talents : *Hwagak* (ox horn inlaying) ● Profile : 1994 Instructor at the *Hwagak* Class of Korean Traditional Handcraft School | 1993 Presented works to Korean Traditional Crafts Exhibition in Takashimaya, Japan, etc. ● Awards : 1996 Culture and Sports Minister's Prize at the Traditional Crafts Competition | 1993 Culture and Sports Minister's Prize at the Traditional Crafts Competition ● Major activities : 2002 Presented works to Traditional Korean Culture Fragrance Exhibition for Kyoto Traditional Crafts Exhibition | 2001 Special Exhibition for Traditional Korean Crafts at the Crafts Exhibition Hall in China | 1997 IPU Seoul General Assembly Celebration Exhibition



윤도장 Yundojang

제110호 윤도장 | 윤도(輪圖)는 풍수, 천문을 알아보거나 여행과 관련해 사용되는 도구로 이것을 만드는 기능을 윤도장이라 한다. 윤도는 단단한 대추나무를 2~3년 동안 말려 적당하게 자르고 가운데 중심점에서 바깥쪽으로 동심원을 그린 뒤 칸을 나눈다. 침은 쇠바늘을 달구어 망치로 펴고, 자력이 타지 않도록 유기를 끼워 고정시킨다. 분금한 칸에 24방위를 각자하며, 여기에 음양·오행·팔괘·십간·십이지를 표시하여 완성한다. (1996년 12월 31일 지정)

Yundojang (making Compasses) | *Yundojang* refers to the art of making compass needles with a circular representation of twenty-four directions inscribed upon it. They were made by drying solid jujube wood for 2-3 years and then cutting it appropriately. Concentric circles were drawn from the middle point outwards, and the wood was then divided into sections. The needle was made by heating a piece of iron and hammering it. Cover the needle with brassware and fix it on the wood. The 24 directions were drawn upon it in divided sections and mark *eumyang* (Yin and Yang), *ohaeng* (five basic elements), *palgwae* (divination signs), *sipgan* (ten celestial items), and *sibiji*. (Designated date : 31 December 1996)



중요무형문화재 제110호 윤도장 보유자
김종대 Kim Jong-dae

1934년생 ● 인정일 : 1996년 12월 31일 ● 기예능 : 윤도 제작 ● 경력 사항 : 1979 독립공방 운영 | 1960 김정의 선생께 사사 ● 포상 사항 : 2003 작품 공개 및 전시 | 1996~현재 보유자 작품전 출품



김종대, 패철, 22×10cm Kim Jong-dae, *Paechel* (Geomantic Compass), 22 × 10cm
김종대, 기부패철 Kim Jong-dae, Turtle-shaped Geomantic Compass

born in 1934 ● Accreditation date : 31 December 1996 ● Crafting talents : Making of *Yundo* (compasses) ● Profile : 1979 Operated an independent crafting studio | 1960 Apprenticed to the late Kim Jeong-ui ● Awards : 1963 Gold Prize at the Nationwide Crafts Competition ● Major activities : 2003 Exhibited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Yundojang* (Compasses) | 1996~present Presented works to exhibitions





주철장 Jucheoljang

제112호 주철장 | 주철장이란 쇠를 녹여 각종 기물을 만드는 기능을 말한다. 우리나라 금속 공예의 주요한 기술인 주조 기술은 불교 문화와 함께 크게 발달하였고 그 가운데 범종 제작이 그 주류를 이룬다. 우리나라 범종은 세부 장식이 정교하고 소리가 웅장한 것이 특징이며, 전통적인 범종 제작 방식은 밀랍 주조 기법이다. 먼저 밀랍으로 종의 모형을 만들고 그 위에 활석과 점토 등을 혼합해 만든 주물사를 일정한 두께로 바른 뒤 그늘에서 말린다. 그 다음 열을 가해 내부의 밀랍을 녹여내고 밀랍이 제거된 외형과 내형을 결합한 빈 공간에 쇠물을 부어하여 제작한다. (2001년 3월 12일 지정)

Jucheoljang (Making cast iron) | *Jucheoljang* refers to the manufacture of various types of vessel by melting iron. The main metal casting technique used in Korea was developed together with Buddhist culture when the manufacture of temple bells was common. The major characteristics of Korean temple bells lie in their exquisite decorative detail and their magnificent resonant tone. The most traditional manufacturing technique is the wax-molding method, whereby the form of a bell was made with wax and coated with a consistent layer of *jumulsa*, a mixture of talc and clay. The mold would then be left to dry in the shade. Thereafter, the mold was heated so that the wax inside it would melt, whereupon melted iron was poured into the space between the outer and inner frames to make the actual bell. (Designated date : 12 March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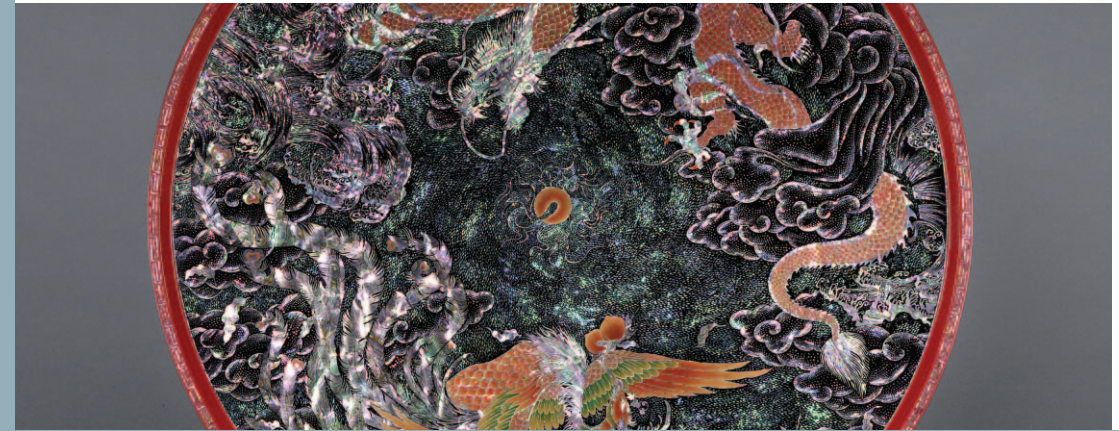
중요무형문화재 제112호 주철장 보유자
원광식 Won Gwang-sik

1942년생 ● 인정일 : 2001년 3월 12일 ● 기예능 : 종 제 작 ● 경력 사항 : 2000 대한민국 명장 지정 | 1993 한국민 속예술연구원 위원장 역임 등 | 1976 한국범종연구회 발족 ● 포상 사항 : 2000 노동부 장관 표창 ● 주요 활동 : 2002~현재 진천 종 박물관 건립 | 2001~현재 보유자 작품 전 출품 | 1999 임진각 평화의 종(5600관) 제작 등



원광식, 운수사-종, 110×50×140cm Won Gwang-sik, Unsusa Temple Bell, 110×50×140cm

born in 1942 ● Accreditation date : 12 March 2001 ● Crafting talents : Manufacturing of *Jong* (bell) ● Profile : 2000 Designated as a Korean Maestro | 1993 Chairman of Korean Folk Arts Research Center, etc. | 1976 Launched Korean Buddhist Research Association ● Awards : 2000 Labor Minister's Citation ● Major activities : 2002~present Established Jincheon Bell Museum | 2001~present Presented works to exhibitions | 1999 Manufactured Imjingak Bell of Peace (weighing 5600 gwan), etc.



칠 장 Chiljang

제113호 칠장 | 칠장은 옷나무에서 채취한 생옷 속의 이물질들을 제거하여 옷의 투명도와 광택을 높이고 정제하는 기능을 말한다. 생옷 속에는 수분, 나뭇잎, 벌레 등이 들어 있어 사용할 수 없으므로 정제 과정을 거쳐야만 사용할 수 있다. 먼저 생옷에 숨을 잘게 찢어 넣고 하루가 지나면 숨이 칠을 흡수하는데 이것을 짜면 이물질은 숨 속에 남고 순수한 칠만 얻게 된다. 생칠을 철판 위에 붓고 태양열에 수분이 증발하도록 칠주걱으로 계속 저어 준다. 이렇게 이물질을 제거한 칠을 '정제칠' 이라고 하며 이 과정을 거쳐 비로소 칠은 투명하고 광택이 난다. (2001년 3월 12일 지정)

Chiljang (Lacquer work) | *Chiljang* refers to the work required to remove foreign materials from live lacquer, improving its clarity and polish, and purifying it. Live lacquer contains moisture, leaves, and insects, and can only be used after such a process of purification. First, a small bud of cotton is inserted into the lacquer, absorbing the lacquer after one day. By squeezing the cotton, the foreign material is removed and a pure lacquer is obtained. If lacquer is placed on an iron plate and stirred with an iron spoon, any unwanted moisture will evaporate in the sunlight. The transparent, polished lacquer from which all undesirable materials have been removed is known as *jeongjechil*. (Designated date : 12 March 2001)



중요무형문화재 제113호 칠장 보유자
정수화 Jeong Su-hwa

1954년생 ● 인정일 : 2001년 3월 12일 ● 기예능 : 정제
● 경력 사항 : 현재 중요무형문화재기능보존협회 이사, 서울시칠기조합감사, 한국울칠문화원자문위원, 한국공예예술가협회고문, 대한민국 명장 등 ● 포상 사항 : 2003 대통령 산업포장, 서울시장 표창 | 1995 대통령 표창 등 ● 주요 활동 : 1998~2002 대한민국 명장전 출품(이탈리아, 일본 등) | 2002 프랑스 생제르맹앙레 초대전 | 2001 독일 코블렌츠 공예박람회 참가 등

정수화, 용봉문호족반, 81×31cm Jeong Su-hwa, Yongbongmun Hojokban (Portable Dining Table with Phoenix-and-Dragon Design and Tiger Legs), 81×31cm



born in 1954 ● Accreditation date : 12 March 2001 ● Crafting talents : Jeongje (polishing and purifying lacquer) ● Profile : Currently, Executive of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Skill Preservation Association, Auditor of Seoul Lacquering Cooperative, Member of Advisory Council for Korean Lacquering Culture Center, Advisor to Korea Crafts Artist Association, Korean Maestro, etc. ● Awards : 2003 Presidential Citation of Industry, Citation of Seoul Mayor | 1995 Presidential Citation, etc. ● Major activities : 1998~2002 Presented works to Korean Maestro Exhibitions (Italy, Japan, etc.) | 2002 Invited to the French Saint-Germain-En-Laye Exhibition | 2001 Crafts Exhibition at Koblenz Crafts Fair in Germany, et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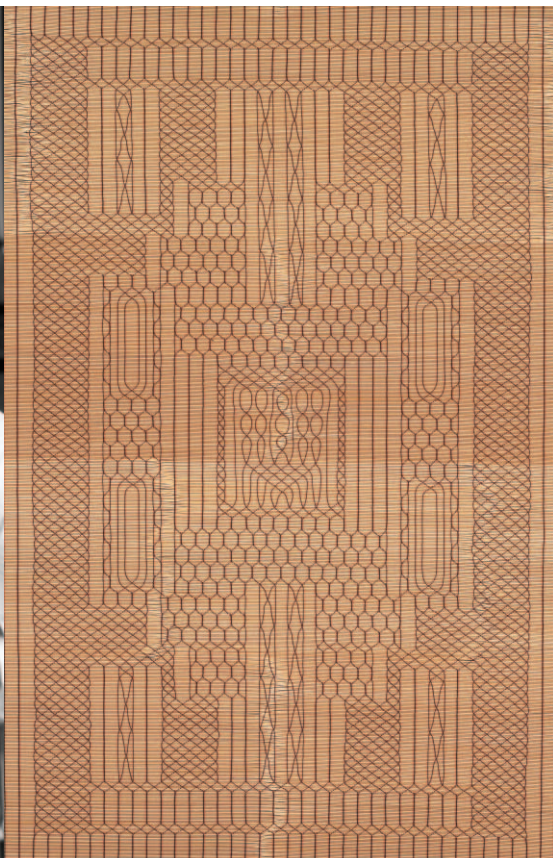


엮장

Yeomja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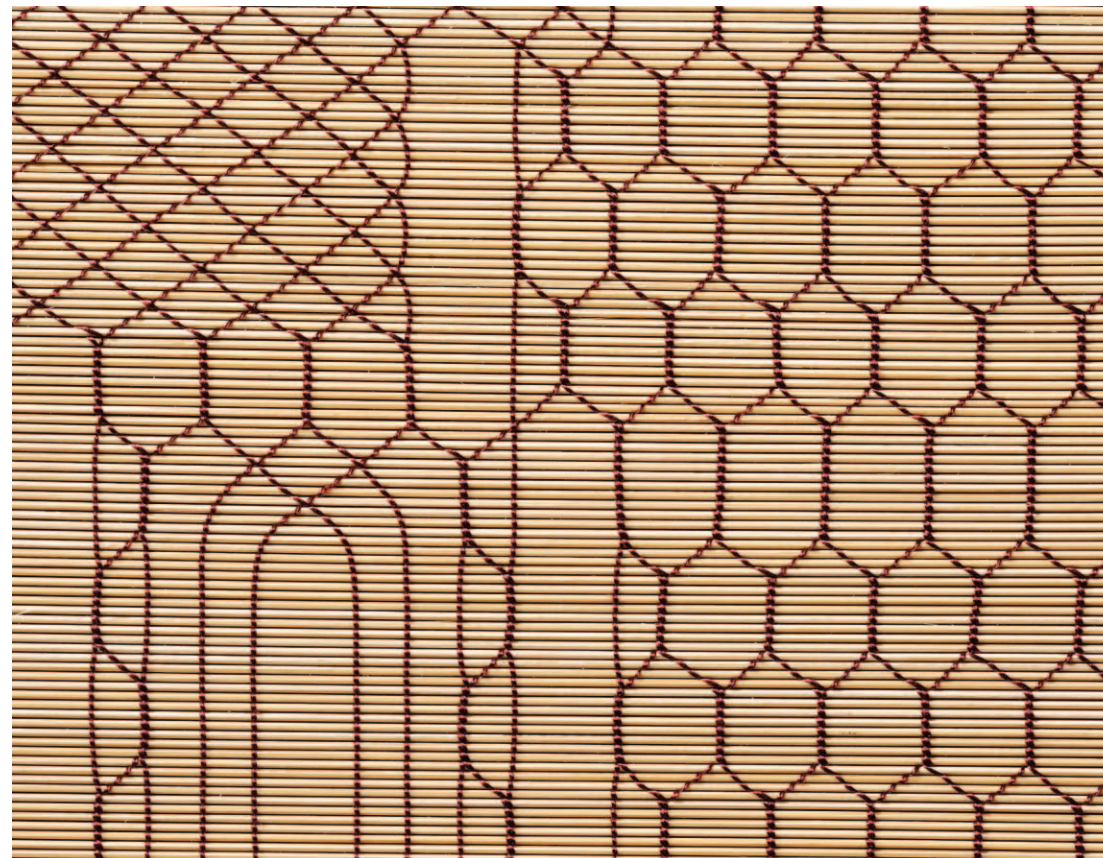
제114호 엮장 | 엮장(簾匠)이란 발을 만드는 기능을 말한다. 전통 가옥인 한옥에서 발은 필수품이다. 발은 여름철에 강한 햇볕을 막아 주며 밖에서 안을 들여다 볼 수 없도록 하는 기능도 한다. 발의 재료로는 대나무, 갈대, 거름 등이 사용된다. 시누대는 음력 11~12월 사이에 채취하는데 3년생이 가장 좋은 것으로 알려진다. 2개월간 햇볕과 이슬을 맞히기를 반복한 시누대로 발을 엮는데 보통 만 번 이상의 손이 가야 할 만큼 발 제작에는 많은 시간과 정성이 필요하다. (2001년 6월 27일 지정)

Yeomjang (Making bamboo blinds) | *Yeomjang* refers to the skill of making *bal*, a traditional blind, and an essential and popular article used in traditional Korean houses. *Bal* prevented the rays of the sun from entering a house in summer and also provided a necessary degree of privacy from prying eyes. The materials used to make *bal* include bamboo, reed, and *gyeoreup*. *Sinudae* is acquired in November and December, with 3-year-old material regarded as the best. *Bal* are made using *sinudae* that have been left out in the sunlight and dew for 2 months. (Designated date : 27 June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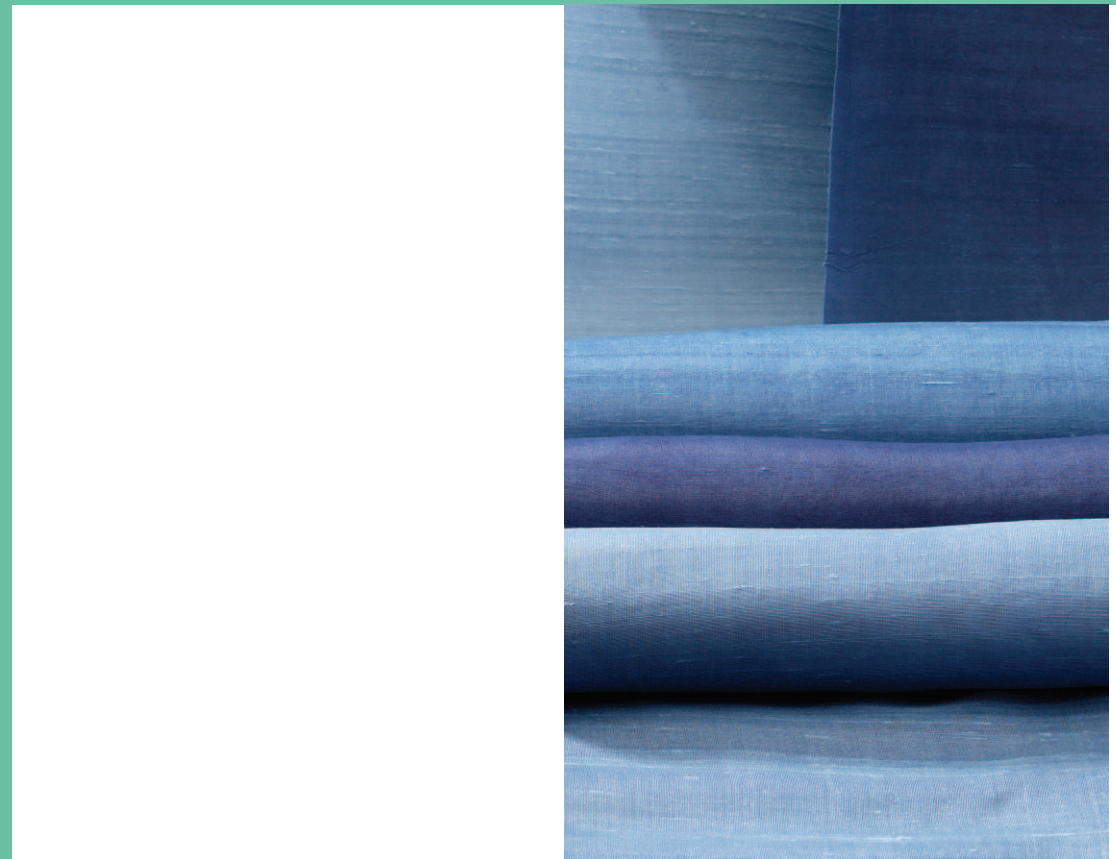
중요무형문화재 제114호 염장 보유자
조대용 Cho Dae-yong

1950년생 ● 인정일 : 2001년 6월 27일 ● 기예능 : 대밭 제작 ● 포상 사항 : 2003 행정자치부장관상 | 1995 제20회 전승공예대전 대통령상 | 1990 제15회 전승공예대전 문화부장관상 | 1983 제8회 전승공예대전 특별상 등 ● 주요 활동 : 2003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제작 시연 | 2002 교토 전통공예 전시 《한국전통문화의 향기》전



조대용 · 통형대밭, 130×180cm · Cho Dae-yong, Tongyeong Bamboo Screen, 130×180cm

born in 1950 ● Accreditation date : 27 June 2001 ● Crafting talents : Making of *Daebal* (Bamboo Screen) ● Awards : 2003 Home Minister's Prize | 1995 Presidential Prize at the 20th Traditional Crafts Competition | 1990 Culture Minister's Prize at the 15th Traditional Crafts Competition | 1983 Special Prize at the 8th Traditional Crafts Competition, etc. ● Major activities : 2003 Demonstrated skills at Summer Universiade Daegu | 2002 "Traditional Korean Culture Fragrance" Exhibition for Kyoto Traditional Crafts Exhibition



염색장 Yeomsaekjang

제115호 염색장 | 염색장이란 천연 염료로 옷감을 염색하는 기능을 말하며, 현재 전남 나주 지역에 전하는 쪽 염색이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7-8월 여름에 벤 쪽잎과 굴껍질을 태워 얻은 석회 가루를 섞어 삭힌 다음 침전물을 얻는데 이를 잣물과 섞어 아랫목에서 한 달여 묵혀 염액이 완성되면, 여기에 천을 담가 꺼낸 다음 흐르는 물에 행구면 쪽빛을 얻게 된다. 쪽염은 천을 염액에 넣을 때는 짙은 녹색이지만 천을 물 밖으로 꺼내면 공기 중의 산소와 결합해 고운 쪽빛으로 변하는 까다로운 기술이다. (2001년 9월 6일 지정)

Yeomsaekjang (Dyeing) | *Yeomsaekjang*, the art of dyeing cloth with colors obtained from the indigo plant, has been designated as an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The working process of *jjokyomsaek* used in Naju is as follows. First, 60~70cm of an indigo plant is cut at the beginning of August, placed in a jar, and left to decay. After two days, lime is added to the indigo solution, a deposit of coloring matter settles down, and *chimjeonjjok* is formed. Caustic soda is then mixed with the indigo solution and fermented for seven to ten days. After that, the coloring matter and lime are separated. This procedure, referred to as 'making *jjokmul*'. (Designated date : 6 September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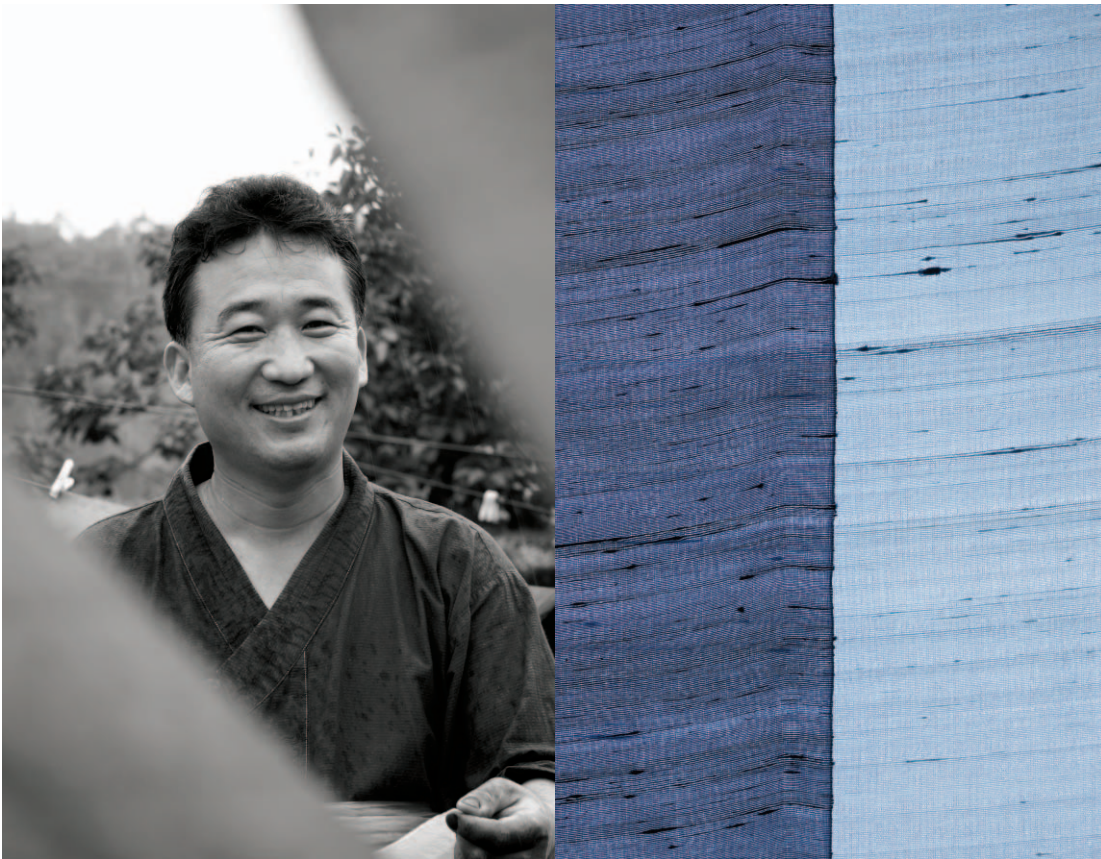
중요무형문화재 제115호 염색장 보유자
윤병운 Yun Byeong-un

1921년생 ● 인정일 : 2001년 9월 6일 ● 기예능 : 쪽염색
 ● 경력 사항 : 1995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유기능전승자 선정
 ● 포상 사항 : 1994 제24회 전승공예대전 입상 ● 주
 요 활동 : 2001~현재 보유자 작품전 출품 | 2002 천연 염
 색 축제 《천연염색 패션쇼-빛깔》전 출품 | 2002 남도 천
 연 염색 《고운 빛깔》전



윤병운, 쪽염색금사, 길이 110cm Yun Byeong-yun, Gold and Indigo Fabric, length 110cm

born in 1921 ● Accreditation date : 6 September 2001 ● Crafting talents : *Jjok* dyeing ● Profile :
 1995 Selected as a traditional skill transferer by the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 Awards : 1994 Runner-up Prize at the 24th Traditional Crafts Competition ● Major activities :
 2001~present Presented works to exhibitions | 2002 Presented works to Natural Dyeing Fashion Show
 | 2002 Namdo Natural Dyeing “*Beautiful Color*” Exhib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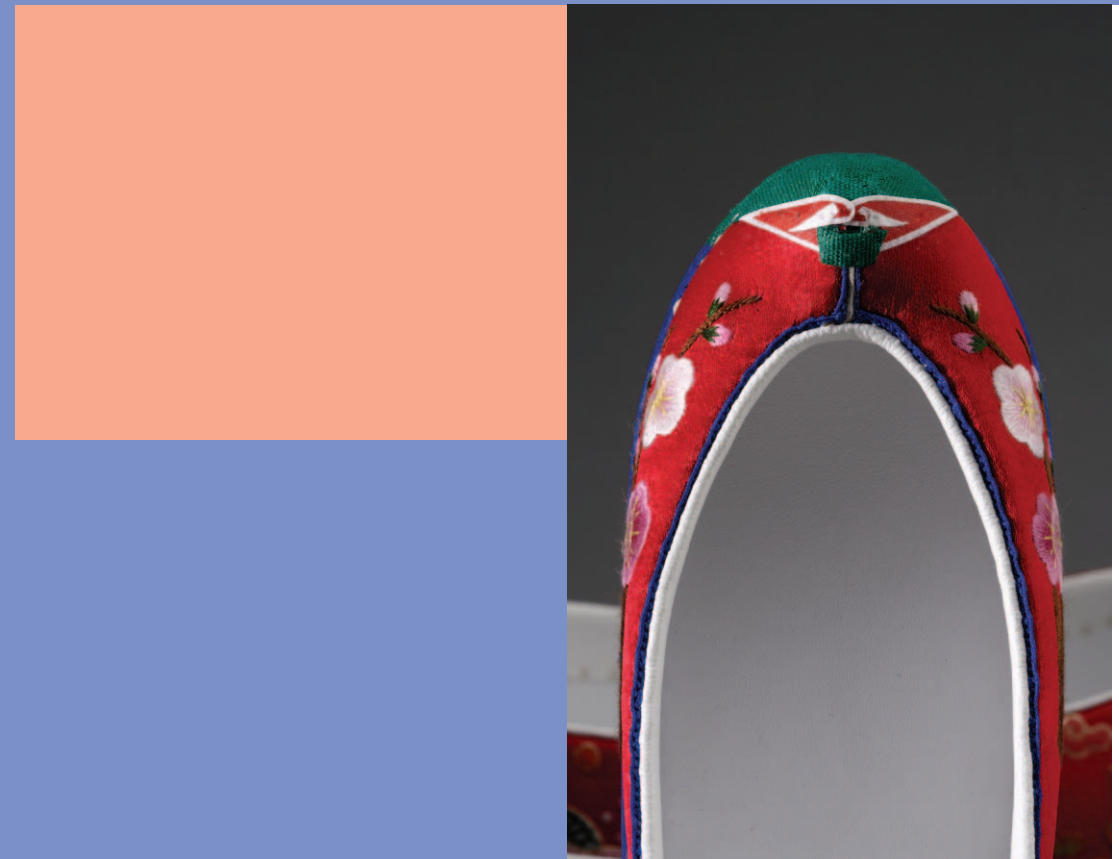
중요무형문화재 제115호 염색장 보유자
정관채 Jeong Gwan-chae

1959년생 ● 인정일 : 2001년 9월 6일 ● 기예능 : 쪽염색
● 경력 사항 : 2004 한국전통문화학교 초빙교수 | 2001
국제천연염색연구협회 한국학회 이사 | 1999~현재 아시아
민족조형문화연구소 한국학회 이사 등 ● 포상 사항 :
2000 모범공무원 표창 | 1999 교육부장관 표창 ● 주요 활
동 : 2002 대구 에뉴얼 천연 염색 초대전 | 2001 국제 색채
학 한국학회 전시회, 국제천연염색 교류전, 국제천연염색
학술대회 시연회, 일본 규슈 염색연구소 초청강사 등



정관채 쪽염색 원단, 폭 37cm Jeong Gwan-chae, *Jjok*-dyed Indigo Fabric, width 37cm

born in 1959 ● Accreditation date : 6 September 2001 ● Crafting talents : *Jjok* dyeing ● Profile :
2004 Professor invited to the Korean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 2001 Executive of
Korean Society of International Natural Dyeing Research Association | 1999~present Executive of
Korean Society of The Institute of Asian Ethno-Forms and Culture, etc. ● Awards : 2000 Exemplary
Public Servant Citation | 1999 Education Minister's Citation ● Major activities : 2002 Invited to
Daegu Annual Natural Dyeing Exhibition | 2001 Korean Society for International Science of Color
Exhibition, International Natural Dyeing Exchange Exhibition, Demonstration at the Symposium for
International Natural Dyeing, Instructor at Kushu Dyeing Research Institute of Japan, etc.



화혜장 Hwahyejang

제116호 화혜장 | 화혜장이란 전통 신을 만드는 기능으로 신목이 있는 장화 형태의 ‘화(靴)’와 신목이 없는 고무신 형태의 ‘혜(鞋)’를 제작하는 기술을 겸비한 것이다. 혜의 제작 과정을 살펴보면 여러 겹의 광목이나 모시를 붙인 백비 위에 공단을 붙여 신을(발등을 감싸는 부분)을 준비하고 소가죽으로 신 밑창을 만든 뒤 신을과 밑창을 맞바느질하여 연결한다. 이때 중심이 틀어져 신코가 비뚤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나무로 된 신골을 박아 신의 형태를 잡아 주면서 완성한다. (2004년 2월 20일 지정)

Hwahyejang (Shoes making) | *Hwahyejang* refers to the skill of cobbling, the making of traditional shoes. It originated from *Hwajang* who made *hwa*, shoes that cover whole feet and the lower part of legs and *Hyejang*, who made *hye*, ordinary shoes. To make *hye*, satin is attached over *baekbi* fixed by cotton cloth or ramie fabric, and the *sinul* (part covering the top of the foot.) is then prepared. The bottom piece, made from cowhide, is sewn to the *sinul*. The frontal part of shoes should not be crooked and *sinkkol* (shoes frame) made by wood is used to form shoes. (Designated date : 20 February 2004)



중요무형문화재 제116호 화해장 보유자
황해봉 Hwang Hae-bong

1952년생 ● 인정일 : 2004년 2월 20일 ● 기예능 :혜 제 작 ● 경력 사항 : 1999 송파구 문화재위원 | 1968 화장 기 능 입문 ● 포상 사항 : 1994 자랑스런 서울 시민상 수상 | 1983 서울올림픽 전통공예품 경진대회 입상 | 1981~1999 전승공예대전 입선(82, 83, 84, 86, 87, 90, 92, 94), 장려 상(81, 85, 88, 93, 98), 특별상(97), 대통령상(99) 수상 등 ● 주요 활동 : 1998 제2회 한복의날 기념 문화관광부 초청 시연회 | 1995 《한국복식 이천년》전 초청 시연회

황해봉, 수혜, 길이 27cm Hwang Hae-bong, *Suhye* (Embroidered Shoes), length 27cm
황해봉, 돌쟁이 남너혜, 각각 길이 16cm Hwang Hae-bong, Shoes for the First Birthday, each 16cm



born in 1952 ● Accreditation date : 20 February 2004 ● Crafting talents : *Hye* (shoe making) ● Profile : 1999 Member of Songpa-gu Cultural Properties Committee | 1968 Began to be trained in Hwajang (boots making) skills ● Awards : 1994 Proud Seoul Citizen Prize | 1983 A prize at Traditional Crafts Seoul Olympics | 1981~1999 Runner-up Prizes at Traditional Crafts Competitions (82, 83, 84, 86, 87, 90, 92, 94), Encouragement Prizes (81, 85, 88, 93, 98), Special Prize (97), Presidential Prize (99), etc. ● Major activities : 1998 Demonstrated skills at the invitation of the Ministry of Culture and Information on the 2nd Korean Dress' Day | 1995 Demonstrated skills at the invitation of "Korean Costume 2,000 Years" Exhibition



한지장

Hanjijang

제117호 한지장 | 한지장(韓紙匠)이란 전통 한지를 제작하는 기능이다. 한지는 닥나무와 황촉규(黃蜀葵)를 주재료 하여 고도의 숙련된 기술과 장인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완성된다. 닥나무를 베고, 찌고, 삶고, 말리고, 벗기고, 다시 삶고, 두들기고, 고르게 썬고, 뜨고, 말리는 아흔 아홉 번의 손질을 거친 후 마지막 사람이 백 번째로 만든다 하여 옛사람들은 한지를 “백지(百紙)”라 부르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의 한지는 고려 시대부터 그 명성이 높아 중국인들도 제일 좋은 종이를 ‘고려지(高麗紙)’라 불렀고, 송나라 손목(孫穆)은 『계림유사(鷄林類事)』에서 고려의 닥종이는 빛이 희고 윤이 나서 사랑스러울 정도라고 극찬하였다. (2005년 9월 23일 지정)

Hanjijang (Making of Korean Mulberry Paper) | *Hanjijang* refers to the art of making *hanji* (Korean paper) or to a person skilled in making it. The paper is made with two main materials, paper mulberry and sunset hibiscus. In the past *hanji* was also known as *baekji* (“hundred paper”) because its manufacture involved a time-consuming process of one hundred stages that included cutting, steaming, boiling, drying, barking, and pounding Korean mulberry to produce the pulp and then the paper, before sending it to the market. Records show that *hanji* was highly esteemed among the Chinese as early as the Goryeo period. Chinese consumers regarded *goryeoji* (“Korean paper”) as the best quality paper, and a Sung envoy to Goryeo named Sun Mu lavished praise on the paper in his book, *Jilin Leishi* (“Korea in General Categories”), declaring Korean mulberry paper to be so white and glossy that everyone was fascinated by it. (Designated date : 23 September 2005)



중요무형문화재 제117호 한지장 보유자
류행영 Ryu Haeng-yeong

1932년생 ● 인정일 : 2005년 9월 23일 ● 기예능 : 한지 제조 ● 경력 사항 : 2005 전주대 경영대학원 한지문화산업학과 객원교수 | 2004 노동부 지정 기능전승자 선정(한지 제작 및 가공 분야) | 1951 김갑중 선생으로부터 전통한지 제조 기술 사사 ● 주요 활동 : 2005 프랑크푸르트 북페어 주빈국 초청 전통 한지 시연 | 2001 핀란드 헬싱키 공과대학, 예술대학 등에서 전통 한지 시연 | 1997 충북대학교 특강 및 시연회 | 1995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제조 시연 | 1993 한솔제지 전통한지 재현 자문



류행영, 전통 염색 한지, 97×64cm Ryu Haeng-yeong, Traditionally-dyed Hanji (Korean paper), 97×64cm

born in 1932 ● **Accreditation date** : 23 September 2005 ● **Crafting talents** : Hanji (Korean paper) ● **Profile** : 2005 Guest Professor at Department of Korean Paper Culture Industry, Jeonju University | 2004 Designated as a skill transferer (in the category of making and processing Korean paper) | 1951 Apprenticed to Kim Jong-gap to learn about the skill of making traditional Korean paper ● **Major activities** : 2005 Demonstrated the skill of making traditional paper at the invitation of Frankfurt Book Fair, Germany | 2001 demonstrated the skill at Helsinki University of Technology, University of Art and Design Helsinki, etc., Finland | 1993 Advisor to Hansol Paper Co. regarding the reinstating Korean paper | 1995 Demonstrate the skill at National Science Museum | 1997 Offered special lecture on traditional paper and demonstrated skills at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불화장

Bulhwajang

제118호 불화장 | 불화장은 불화(佛畵)를 제작하는 기능이다. 불화는 불탑, 불상 등과 함께 불교의 신앙 대상이며, 그 제작 형태에 따라 탕화[幀畵], 경화(經畵), 벽화(壁畵)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특히 탕화는 복장식(服裝式), 점안식(點眼式) 등의 신앙 의식 절차를 거쳐 불단(佛壇)의 주요 신앙 대상으로 봉안되기도 한다. 우리나라 전통 사찰에 전해 오는 탕화는 불화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불화 제작을 담당하는 장인을 특별히 금어(金魚), 화승(畵僧), 화사(畵師), 화원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2006년 1월 10일 지정)

Bulhwajang (Making of Buddhist Painting) | *Bulhwajang* refers both to the art of *bulhwa* (Buddhist painting) and to a highly skilled Buddhist painter. In Korea, where Buddhist painting has long been a major object of worship along with *bultap* (Buddhist pagodas and stupas) and *bulsang* (Buddhist sculpture), these paintings are typically classified into three categories: those found on hanging scrolls, the illustrations contained in printed scriptures, and mural paintings. The paintings in the first category have been particularly important as an object of worship, and their sanctification as an altar piece has often involved various Buddhist rituals such as the storing of holy objects inside a Buddha statue, painting in the eyeballs. The artists who specialized in such Buddhist paintings went by a number of different titles, including *geumeo* (“golden fish”), *hwaseung* (“painting monk”), *hwasa* (“painting master”) and *hwawon* (“expert painter”). (Designated date : 10 January 2006)



중요무형문화재 제118호 불화장 보유자
임석환 Yim Seok-hwan

1948년생 ● 인정일 : 2006년 1월 10일 ● 기예능 : 불화
● 경력 사항 : 1988 문화재 수리 기능자 칠공 1031호 | 1985 문화재 수리 기능자 도금공 744호 | 1979 문화재 수리 기능자 화공 529호 ● 포상 사항 : 1983~ 제8, 9회 전승공예대전 입상 | 1980 제9회 불교미술대전 입상 ● 주요 활동 : 2003 충주 석종사 단청 | 2003 남북단청문화전시회 및 학술 토론회 참가 | 2001 부산 범어사 단청 및 탕화, 수원 봉녕사 탕화·벽화 개금 및 옷칠

임석환, 책가도 10폭, 명풍, 476×235cm
Im Seok-hwan, Folding Screen with a Painting of Literati's Library, 476×235cm



born in 1948 ● Accreditation date : 10 January 2006 ● Crafting talents : *Bulhwa* (Buddhist painting)
● Profile : 1979 Cultural Property Repair Skill Holder Painter No. 529 | 1985 Cultural Property Repair Skill Holder Gilder No. 744 | 1988 Cultural Property Repair Skill Holder Lacquerer No. 1031
● Awards : 1980 Runner-up Prize at the 9th Buddhist Arts Grand Competition | 1983~ Prizes at the 8th and 9th Traditional Crafts Competitions ● Major activities : 2003 South-North Korea Dancheong Ornamental Culture Exhibition and Symposium | 2003 Performed Dancheong ornamental painting at Seokjongs Temple in Chungju | 2001 Painted, Coated and lacquer to Buddhist paintings and murals at Bongnyeonsa Temple of Suwon, Dancheong ornamental painting and Buddhist paintings at Beomeosa Temple in Busan

2006 중요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현황

()는 명예보유자

지정 종목	기능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제4호 갓일	김인 정춘모 장순자 박창영	강순자 정한성
제10호 나전장	송방웅 이형만	김옥석 양옥도
제14호 한산모시짜기	문정옥 방연옥	박승월 고분자
제22호 매듭장	(최은순) 김희진	정봉섭 김혜순 박선경
제28호 나주의 셋끝나이	노진남	김홍남
제31호 낙죽장	김기찬	
제32호 곡성의 돌실나이	김점순	양남숙
제35호 조각장	김철주	남경숙
제42호 악기장	이영수 고흥곤	이정기 이동윤 윤종국 윤신 김영렬
제47호 궁시장	김박영 유영기	박호준 김중국 유세현
제48호 단청장	이치호 홍점석	박정자 김용우 이인섭 유병순 홍창원 양선희
제53호 채상장	서한규	서신정
제55호 소목장	설석철	김금철 이정곤 조화신
제60호 장도장	박용기 한병문	박종균 한상봉
제64호 두석장	박문열 김극천	
제65호 백동연죽장	황영보	추용근 황기조
제66호 망건장	이수여	양진숙 강전향
제67호 탕건장	김공춘	김혜정
제77호 유기장	(김근수) 이봉주 한상춘 김수영 이형근	
제78호 입사장	홍정실	승경란
제80호 자수장	한상수 최유현	김태자

지정 종목	기능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제87호 명주짜기	조옥이	이규중
제88호 바디장	구진갑	
제89호 침선장	(정정완)	구혜자
제91호 제와장	한형준	
제93호 전통장	김동학	
제96호 옹기장		이학수
제99호 소반장	이인세	이종덕
제100호 옥장	장주원	장석
제101호 금속활자장	오국진	임인호
제102호 배첩장	김표영	
제103호 완초장	이상재	유선옥 양인숙
제105호 사기장	김정옥	
제106호 각자장	오옥진	김각한
제107호 누비장	김혜자	
제108호 목조각장	박찬수 전기만	양봉철
제109호 화각장	이재만	
제110호 윤도장	김종대	
제112호 주철장	원광식	
제113호 칠장	정수화	
제114호 염장	조대용	
제115호 염색장	윤병운 정관채	
제116호 화혜장	황해봉	
제117호 한지장	류행영	
제118호 불화장	임석정 임석환	

보유자

고흥곤, 산조 아쟁, 27×158×33cm
Go Heung-gon, *Sanjo Ajaeng* (Seven-stringed Zither), 27×158×33cm

고흥곤, 해금, 9×13×69cm
Go Heung-gon, *Haegum* (Two-Stringed Zither), 9×13×69cm

김공춘, 탕건, 21×17cm
Kim Gong-chun, *Tanggeon* (Horsehair Indoor Hat), 21×17cm

김공춘, 정자관, 27×25cm
Kim Gong-chun, *Jeongjagwan* (Scholar's Headgear), 27×25cm

김극천, 회자문머리장, 71×36×74cm
Kim Geuk-cheon, Beside Chest with "Hui Joy" Design, 71×36×74cm

김기찬, 낙죽반야심경불자, 길이 160cm
Kim Gi-chan, Monk's Fly Whisk with the "Heart Sutra" in Pyrography, length 160cm

김동학, 죽호랑이십장생문전통, 10×90cm
Kim Dong-hak, Bamboo *Jeontong* (quivers) with Tiger and *Sipjangsaeng* (Ten Longevity Symbols) design, 10×90cm

김박영, 각궁, 길이 128cm
Kim Bak-yeong, *Gakgung* (Horn Bow), length 128cm

김인, 총모자, 12×19cm
Kim In, *Chongmoja* (Horsehair Headgear), 12×19cm

김집순, 삼베, 1필 폭 36cm
Kim Jeom-sun, Hemp, width 36cm

김정옥, 백자 달항아리, 19×40cm
Kim Jeong-ok, White Porcelain Moon Jar, 19×40cm

김중대, 패철, 22×10cm
Kim Jong-dae, *Paecheol* (Geomantic Compass), 22×10cm

김중대, 거북패철
Kim Jong-dae, Turtle-shaped Geomantic Compass

김중대, 선추, 5×6×2cm
Kim Jong-dae, Fan Pendant, 5×6×2cm

김철주, 금은상감주팔대접, (왼쪽) 10×8cm, (오른쪽) 13×6cm
Kim Cheol-ju, Bowl Inlaid with Gold & Silver Designs, (left) 10×8cm, (right) 13×6cm

김철주, 금은상감팔각주전자, 20×27cm
Kim Cheol-ju, Octagonal Wine Pot Inlaid with Gold and Silver Designs, 20×27cm

김철주, 반야심경액자, 56×78cm
Kim Cheol-ju, *Banya Simgyeong* ("Heart Sutra") in Frame, 56×78cm

김표영, 난초도 족자, 49×145cm
Kim Pyo-yeong, Scroll with Orchid Painting, 49×145cm

김해자, 아기두루마기, 42×66cm
Kim Hae-ja, Baby's Coat, 42×66cm

김희진, 금칠보연화문대삼작노리개, 길이 34cm
Kim Hui-jin, *Sanjak Norigae* (Triple-Jewel Pendant Trinket) with Gold *Chilbo* (enamels) and Lotus Design, length 34cm

노진남, 무명, 폭 35cm
No Jin-nam, Cotton, width 35cm

류행영, 전통 염색 한지, 97×64cm
Ryu Haeng-yeong, Traditionally-dyed *Hanji* (Korean paper), 97×64cm

박문열, 황동촛대, 27×96cm
Park Mun-yeol, Brass Candlestick, 27×96cm

박용기, 백옥은장철자도, 길이 17cm
Park Yong-gi, Decorative Knife with White Jade & Silver Ornamentation, length 17cm

박찬수, 거북이동자, 26×20×50cm
Park Chan-su, Tortoise & Child, 26×20×50cm

박찬수, 마루보살반가사유상, 30×40×100cm
Park Chan-su, "Maitreya Bodhisattva in Meditation", 30×40×100cm

박창영, 전립, 50×26cm
Park Chang-yeong, *Jeollip* (Military Officer's Hat), 50×26cm

방연옥, 백모시, 1필 폭 30cm
Bang Yeon-ok, White Ramie, width 30cm

서한규, 소죽상자, 35×18-24×14cm
Seo Han-gyu, *Sojuk Sangja* (Plain Bamboo Box), 35×18-24×14cm

설석철, 각개수리, 70×30×42cm
Seol Seok-cheol, *Gakgesuri* (Wooden Cabinet), 70×30×42cm

송방용, 구절판 찬합, 34×8cm
Song Bang-ung, *Gujeolpan Chanhap* (Side Dish Container with Nine Sections), 34×8cm

오국진, 중도가(남명천화상중도가), 80×51cm
O Guk-jin, "Eulogies of Priest *Nammyeong-cheon* on the Ode of Meditation", 80×51cm

오국진, 중도가(인출본), 58×42cm
O Guk-jin, "Ode of Meditation" (Printed Edition), 58×42cm

오옥진, 무릉도원(武陵桃源), 70×61cm
Oh Ok-jin, letters for "Mureung Peach Blossom Paradise", 70×61cm

오옥진, 고허금래, 70×61cm
Oh Ok-jin, "Past and Present", 70×61cm

원광식, 운수사 종, 110×50×140cm
Won Gwang-sik, Unsuwa Temple Bell, 110×50×140cm

유영기, 화살 액자, 143×95cm
Yu Yeong-gi, Arrows in Frame, 143×95cm

윤병운, 쪽염색금사, 길이 110cm
Yun Byeong-yun, Gold and Indigo Fabric, length 110cm

이봉주, 대종교 제기, 26×20-30×19cm
Lee Bong-ju, *Daejonggyo* Ritual Vessels, 26×20-30×19cm

이봉주, 특대국자, 86×19/89×5cm
Lee Bong-ju, Large Dipper, 86×9/89×15cm

이상재, 대광주리 (거북무늬함), 28×10cm
Lee Sang-jae, *Daegwangjuri* (Bamboo Chest with Tortoiseshell Design), 28×10cm

이수여, 망건, 58×10cm
Lee Su-yeo, *Manggeon* (Horsehair Head Band), 58×10cm

이영수, 수공후, 58×17×118cm
Lee Yeong-su, *Sugonghu* (Korean Harp), 58×17×118cm

이영수, 산조 가야금, 23×149×10cm
Lee Yeong-su, *Sanjo Gayageum* (Twelve-Stringed Zither), 23×149×10cm

이인세, 구족반, 53×34cm
Lee In-se, *Gujokban* (Dining Table with Legs shaped like the paws of a dog), 53×34cm

이제만, 화각문갑, 81×36×33cm
Lee Jae-man, Stationary Chest with Ox-

horn Design, 81×36×33cm

이형만, 과기함, 28×21×10cm
Lee Hyeon-man, *Gwagiham* (Confectionary Box), 28×21×10cm

임석환, 책가도10폭병풍, 476×235cm
Lim Seok-hwan, Folding Screen with a Painting of Literati's Library, 476×235cm

장순자, 양태, 지름 53cm
Jang Sun-ja, *Yangtae* (Brim of Horsehair Hat), ø53cm

장주원, 백옥매화타기, 6×4-20×12cm
Jang Ju-won, Tea Set with White Jade *Maehwa* Motif, 6×4-20×12cm

정관래, 쪽염색 원단, 37cm
Jeong Gwan-ae, Jfok-dyed Fabric, 37cm

정수화, 용봉문호족반, 81×31cm
Jeong Su-hwa, *Yongbongmun Hojokban* (Dining Table with Phoenix-and-Dragon Design and Tiger Legs), 81×31cm

정춘모, 통영갓, 44×13cm
Jeong Chun-mo, *Tongyeonggat* (Horsehair Top Hat), 44×13cm

조대용, 통영대밭, 130×180cm
Cho Dae-yong, *Tongyeong* Bamboo Screen, 130×180cm

최유현, 어령도, 60×132cm
Choi Yu-hyeon, *Eoryeongdo* (Embroidery with Fishes and Wegtails), 60×132cm

한병문, 낙죽장도, 길이 24cm
Han Byeong-mun, Decorative Knife with Pyrograph Design, length 24cm

한상수, 자수십장생10폭병풍, 47×216cm
Han Sang-su, Ten-panel Folding Screen Embroidered with *Sipjangsaeng* (Ten Longevity Symbols) Design, 47×216cm

한상춘, 제기, 20×27-7×5cm
Han Sang-chun, Ritual Vessels, 20×27-7×5cm

한형준, 기와, (왼쪽 암키와) 15×34cm (수키와) 24×40×21cm (오른쪽 암키와) 25×34cm
Han Hyeong-jun, Roof Tile, (left) 15×34cm (center) 24×40×21cm (right) 25×34cm

홍점석, 단청 문양 (용, 학), 118×73cm
Hong Jeom-seok, *Dancheong* Designs (Dragon and Crane), 118×73cm

홍점석, 단청 문양 (귀면), 114×87cm
Hong Jeom-seok, *Dancheong* Designs (Demonic Face), 114×87cm

홍정실, 향그릇과 향합, (그릇) 10×7cm, (합) 25×11cm
Hong Jeong-sil, Incense Dish and Case, (case) 10×7cm (dish) 25×11cm

황영보, 대왕죽, 길이 80cm
Hwang Yeong-bo, *Daewangjuk* (King-size Bamboo Smoking pipe), length 80cm

황해봉, 흑혜와 수혜, 길이 27cm
Hwang Hae-bong, *Heukhye* (Black Shoes) and *Suhye* (Embroidered Shoes), length 27cm

황해봉, 돌쟁이 남덕혜, 각각 길이 16cm
Hwang Hae-bong, Shoes for the First Birthday, each 16cm

전수교육조교

강순자, 총모자, 12×16cm
Kang Sun-ja, *Chongmoja* (Horsehair Headgear), 12×16cm

강전향, 망건, 58×10cm

Kang Jeon-hyang, *Manggeon* (Horsehair Head Band), 58×10cm

고분자, 생모시, 1필 폭 30cm
Go Bun-ja, Ramie, width 30cm

구혜자, 치적의, 96×160cm
Gu Hye-ja, *Chijeogwui* (Red Pheasant Robe for Queen), 96×160cm

구혜자, 강사포, 110×170cm
Gu Hye-ja, *Gangsapo* (Red Satin Robe), 110×170cm

김각환, 구(龜), 80×51cm
Kim Gak-hwan, a letter for "Turtle", 80×51cm

김금철, 경대, 27×35×25cm
Kim Geum-cheol, Mirror Stand, 27×35×25cm

김수영, 제기, 7×4-23×7cm
Kim Su-yeong, Ritual Vessels, 7×4-23×7cm

김영렬, 박, 길이 40cm
Kim Yeong-ryeol, *Bak* (Clapper), 40cm

김영렬, 양금, 80×25×12cm
Kim Yeong-ryeol, *Yanggeum* (Western Zither), 80×25×12cm

김용우, 수월관음도, 65×115cm
Kim Yong-u, Water and Moon Avalokitesvara, 65×115cm

김종국, 유엽전, 83cm
Kim Jong-guk, *Yuyeopjeon* (Willow Leaf Arrow), 83cm

김태자, 본경도병풍, 42×140cm
Kim Tae-ja, Folding Screen with Miniandscape, 42×140cm

김혜순, 옥박리삼작노리개, 길이 35cm
Kim Hye-sun, *Sanjak Norigae* (Triple-Jewel Pendant Trinket) with Jade Bat Ornamentation, length 35cm

김혜순, 밀화투호삼작노리개, 길이 33cm
Kim Hye-sun, *Sanjak Norigae* with Amber Jar Ornamentation, length 33cm

김혜정, 정자관, 27×25cm
Kim Hye-jeong, *Jeongjagwan* (Scholar's Headgear), 27×25cm

김홍남, 무명, 폭 35cm
Kim Hong-nam, Cotton, width 35cm

남경숙, 기(器), 11×7cm
Nam Gyeong-suk, Vessel, 11×7cm

남경숙, 무(無), 59×79cm
Nam Gyeong-suk, "Nothingness", 59×79cm

박선경, 방장걸이 유소, 130×200cm
Park Seon-gyeong, Drapery Hanger, 130×200cm

박승월, 생모시, 1필 폭 30cm
Park Seung-wol, Ramie, width 30cm

박정자, 수복 가리개, 72×193cm
Park Jeong-ja, Screen with "Su (Longevity)" and "Bok (Fortune)" Design, 72×193cm

박종근, 금은낙죽장도, 길이 44cm
Park Jong-gum, Knife Decorated with Gold, Silver & Pyrography, length 44cm

박호준, 화살 액자, 123×41cm
Park Ho-jun, Arrows in Frame, 123×41cm

서신정, 반질고리, 32×16cm
Seo Sin-jeong, Workbox, 32×16cm

송경란, 은입사함, 30×20×15cm
Seung Gyeong-ran, Case Inlaid with Silver Design, 30×20×15cm

양남숙, 삼베, 1필 폭 36cm

Yang Nam-suk, Hemp, width 36cm

양선희, 단청, 27×90cm
Yang Seon-hui, *Dancheong* (Architectural Color Patterns), 27×90cm

양옥도, 난초박걸이, 32×39cm
Yang Ok-do, Orchid Tapestry, 32×39cm

양인숙, 단합, 21×9.5cm
Yang In-suk, Rush Woven Basket with Lid, 21×9.5cm

양진숙, 망건, 58×10cm
Yang Jin-suk, *Manggeon* (Horsehair Head Band), 58×10cm

유선옥, 팔각단합, 19×9cm
Yu Seon-ok, Octagonal Rush Woven Basket with Lid, 19×9cm

유세원, 화살 액자, 123×47cm
Yu Se-hyeon, Arrows in Frame, 123×47cm

윤신, 승무 북, 130×60×205cm
Yun Sin, Buddhist Dance Drum, 130×60×205cm

윤종국, 승무 북, 130×60×205cm
Yun Jong-guk, Buddhist Dance Drum, 130×60×205cm

이규종, 명주, 1필 폭 36cm
Yi Gyu-jong, Silk, width 36cm

이동윤, 정악 범금, 38×157×15cm
Yi Dong-yun, *Jeongak Beopgeum* (Classical Zither for Court Music), 38×157×15cm

이동윤, 거문고, 21×152×12cm
Yi Dong-yun, *Geomungo* (Six-stringed Zither), 21×152×12cm

이인실, 달마도, 38×67cm
Yi In-seop, Bodhidharma, 38×67cm

이정근, 이중 문갑, 85×35×109cm
Yi Jeong-gon, Double-tier Stationery Chest, 85×35×109cm

이정근, 용묵서안, 75×39×28cm
Yi Jeong-gon, *Yongmok Seon* ("Wooden Reading Table"), 75×39×28cm

이정기, 법고, 80×90×120cm
Yi Jeong-gi, Dharma Drum, 80×90×120cm

이학수, 앵병, 21×45cm
Yi Hak-su, *Aengbyeong* (Brown Stoneware Bottle), 21×45cm

이학수, 병아리물병, 30×25cm
Yi Hak-su, Water Jar for Chicks, 30×25cm

이형근, 운라, 92×155cm
Yi Hyeong-geun, *Ulla* (Gongs), 92×155cm

장석, 연적과 인주함, (연적) 10×6×6cm (인주함) 9×7×4cm
Jang Seok, Water Dropper and Seal Ink Case, (dropper) 10×6×6cm (case) 9×7×4cm

장석, 패옥, 10×40cm
Jang Seok, Jade Pendants, 10×40cm

정봉섭, 비취투호삼작노리개, 길이 37cm
Jeong Bong-seop, *Sanjak Norigae* (Triple-Jewel Pendant Trinket) with Jade Tuho Jar Ornamentation, length 37cm

정봉섭, 투호팔기술삼작노리개, 29cm
Jeong Bong-seop, *Sanjak Norigae* with Jar & Strawberry Ornamentation, length 29cm

정환성, 통영갓, 36×14cm
Jeong Han-seong, *Tongyeonggat* (Horsehair Top Hat), 36×14cm

조화신, 찬장, 108×50×158cm
Jo Hwa-sin, Pantry Chest, 108×50×158cm

추용근, 오동상감연죽담배대, 길이 39-91cm
Chu Yong-geun, Black Copper Smoking Pipes with Inlaid Design, length 39-91cm

한상봉, 낙죽지휘경, 길이 50cm
Han Sang-bong, Sword Decorated with Pyrography, length 50cm

홍창원, 영락도, 75×133cm
Hong Chang-won, Painting of Bodhisattva's Jewelry, 75×133cm

황기조, 오동상감수화죽, 길이 79cm
Hwang Gi-jo, Black Copper Smoking Pipe Inlaid with Pine & Crane Design, length 79cm

이수자

강옥란, 백모시, 1필 폭 30cm
Kang Ok-ran, White Ramie, width 30cm

김경식, 철화백자용문병, 17×42cm
Kim Gyeong-sik, White Porcelain Bottle with Dragon Design, 17×42cm

김성권, 어연화문팔각문자전통, 8×82cm
Kim Seong-gwon, Octagonal Quiver with Lotus and Fish Design, 8×82cm

김윤경, 각궁, 길이 128cm
Kim Yun-geong, *Gakgung* (Horn Bow), length 128cm

김진철, 좌고, 140×40×130cm
Kim Jin-cheol, *Jwago* ("Seated Drum"), 140×40×130cm

김진한, 예물함, 60×36×38cm
Kim Jin-han, *Yemulham* (Wedding Gift Box), 60×36×38cm

박상호, 불심족자, 52×180cm
Park Sang-ho, "Buddha's Heart" Scroll, 52×180cm

박성분, 고달대, 길이 65cm
Park Seong-bun, *Godaldae* (Bamboo Smoking Pipe), length 65cm

박형백, 포립, 41×15cm
Park Hyeong-bak, *Porip* (Cloth-covered Horsehair Top Hat), 41×15cm

서순임, 전통가마솥, 11×13-31×17cm
Seo Sun-im, Woven Rush "Kitchenware Set", 11×13-31×17cm

손영학, 귀거래사, 153×41cm
Son Yeong-hak, "Returning to Live in the Country", 153×41cm

이상목, 구감문호족반, 46×30cm
Yi Sang-mok, *Gugammun Hojokban* (Dining Table with Tortoise Shell Pattern), 46×30cm

장희방, 작약, 54×67cm
Jang Hui-bang, "Peony", 54×67cm

전영인, 망건, 58×10cm
Jeon Yeong-in, *Manggeon* (Horsehair Head Band), 58×10cm

전희수, 생활반상기, 10×9/9×3/15×4cm
Jeon Hui-su, Dinner Set, 10×9/9×3/15×4cm

정환신, 통영갓, 33×15cm
Jeong Han-sin, *Tongyeonggat* (Horsehair Top Hat), 33×15cm

전시 시간 | 2006년 10월 20일~10월 31일
 전시 장소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주최 | 문화재청
 주관 | 한국문화재보호재단
 후원 |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으로 현대를 여는 예인들
 2006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작품전

발행일 | 2006년 10월 20일
 발행처 | 문화재청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전화 042 481 4962~3 (무형문화재과)
www.ocp.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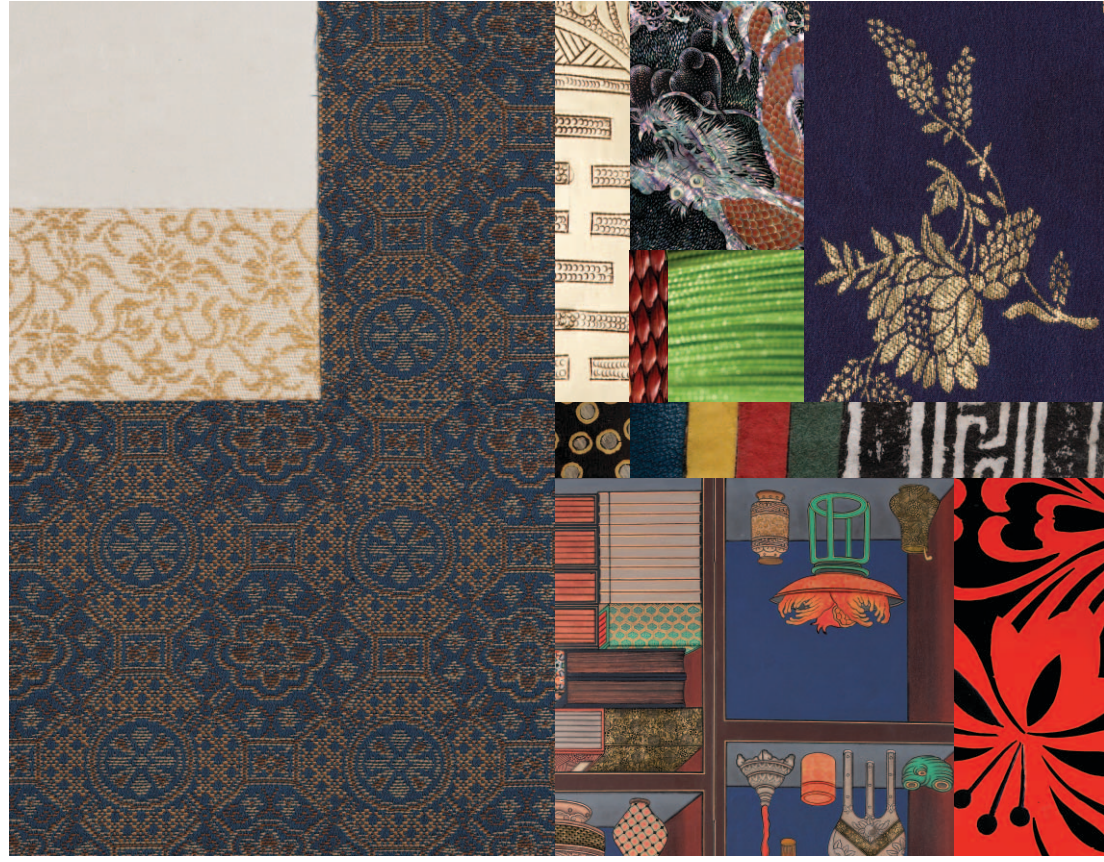
작품 사진 © 서헌강Seo Hun-gang
 인물 사진 © 서헌강Seo Hun-gang, 주병수Ju Byung-su (황영보)
 (김점순, 노진남, 류행영, 박문열, 박창영, 설석철, 윤병운, 임석환,
 장주원, 정관채, 조대용, 최유현, 한상춘, 홍정실, 황해봉 제외)
 작가 경력 출처 |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아름다운 만남』, 한국문화재보호재단
 펴냄, 2004.

인쇄 | 선진문화사
 기획 | (주)티씨아트TCArts www.tcarts.co.kr
 편집 디자인 | 樹流山房.仲心forest.camp^mind.media

2006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재단 후원

전통으로 현대를 여는 예인들

Modern Tradition and Masters of Craftsmanship



문화재청
www.ocp.go.kr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
우 320-701

요금 별납

전통으로 현대를 여는 예인들
Modern Tradition and Masters of Craftsmanship

전시 기간 | 2006년 10월 20일~10월 31일
 전시 장소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주최 | 문화재청
 주관 | 한국문화재보호재단
 후원 |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으로 현대를 여는 예인들
 2006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작품전

발행일 | 2006년 10월 20일
 발행처 | 문화재청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전화 042 481 4964~7 (무형문화재과)
www.ocp.go.kr

작품 사진 © 서현강Seo Hun-gang
 인물 사진 © 서현강Seo Hun-gang, 주병수Ju Byung-su (황영보)
 (김점순, 노진남, 류행영, 박문열, 박창영, 설석철, 윤병운, 임석환,
 장주원, 정관채, 조대용, 최유현, 한상춘, 홍정실, 황해봉 제외)
 작가 경력 출처 |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아름다운 만남』, 한국문화재보호재단
 펴냄, 2004.

인쇄 | 선진문화사 전화 042 632 4497
 기획 | (주)티씨아트TCArts www.tcarts.co.kr
 편집·디자인 | 樹流山房.仲心forest.camp^mind.media 전화 02 735
 1085